

1장. 일본열도

1. 지역학으로서의 일본학

(1) 대두 배경

-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일본과의 교류는 더욱 다원화, 전문화되고 있음
- 일본사회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는 소극적이고 어문학 분야에 편중됨
- 1990년대 일본대중문화 개방과 더불어 일본학과 개설이 활발해짐

(2) 일본학이란?

- 일본학(Japanese Studies)은 일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탐구
- 일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여러 학문분야의 교류를 중시
- 기존의 일어일문학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일본을 탐구하고자 함
→ 일본에 대해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

(3) 지역학이란?

- : 일본학은 지역학(地域學, Area Studies)
- 지역이란 지역구성원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
- 개별학문만으로는 지역의 사회생활의 단면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기 쉬움
- 지역학은 개별학문을 넘어선 학제적 연구를 지향
-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연구는 여러 학문 간 교류를 통해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적 지향
- 지역학은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개성을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

(4) 일본학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 ① 일본어 실력을 충분히 갖추어야(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활용)
- ② 일본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초적인 지식과 이론을 습득해야
- ③ 개별 학문분야에서의 과학적 훈련을 통해 스스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 항상 닥치는 대로 많은 것을 섭렵해야겠다는 열정과 욕심을 잃지 말자!!!

2. 영토

(1) 위치

-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을 따라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진 섬나라(日本列島)
- 일본열도 :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활모양으로 늘어진 6,800여 개의 섬
- 동, 남쪽 - 태평양
북쪽 - 러시아와의 사이에 오호츠크해
서쪽 - 한반도와의 사이에 동해
서남쪽 - 중국대륙과의 사이에 동중국해와 그 밑으로 필리핀해와 접함



[그림 1] 일본의 위치

(2) 영토범위

4대섬 : 北海道(ほっかいどう), 本州(ほんしゅう), 四国(しこく), 九州(きゅうしゅう)

혼슈 -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로 가장 큼, 23만 km²

- 동단: 南鳥島(みなみとりしま) - 무인도, 도쿄에서 약 1,800km 떨어져 있음, 도쿄도
- 서단: 与那国島(よなぐにじま) - 오키나와현, 타이완과 가까움
- 남단: 沖ノ鳥島(おきのとりしま) - 도쿄에서 1,740km 떨어진 산호초
- 북단: 弁天島(べんてんじま) - 북해도 북쪽에서 1km떨어진 무인도, 일본은 에토로후섬을 최북단이라 주장함.

▣ 오키노토리시마

- 산호의 분비물이나 뼈가 쌓여서 이루어진 석회질의 암초(산호초)
- 만조 시에 바다에 잠기지 않는 것은 히가시코지마(東小島)와 기타코지마(北小島)
- 일본정부는 두 섬이 파도에 깎여 가라앉지 않도록 1987년부터 두 섬 주변을 콘크리트로 에워싸는 공사를 실시
- 최근 중국정부가 오키노토리시마는 바위이기 때문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 배타적경제수역

-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바다 면적은 상당히 넓음
-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토 면적의 10배 이상으로 세계에서 6위

▣ 영토, 영해, 영공의 구분

- 영토: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땅
- 영해: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로 보통 12해리 (대한해협은 3해리. 1해리=1852m)
- 영공: 한 나라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약 370km). 연안국의 수산자원/광산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 인정됨
- 공해(公海):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바다



[그림 2] 치시마열도의 위치



[그림 3] 이즈제도/오가사와라제도의 위치

(3) 멀리 떨어진 섬

- 1) 치시마열도(千島列島) - 쿠릴열도, 홋카이도와 캄차카반도 사이의 여러 섬
- 2) 이즈제도(伊豆諸島) - 간토지방 남쪽에 위치한 100여 개의 섬, 도쿄도, 유인도는 10개.
주요섬 : 오시마(大島), 도시마(利島), 니지마(新島), 미야케지마(三宅島), 하치조지마(八丈島)
- 3)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태평양상의 30여 개의 섬. 도쿄도
주요섬: 치치지마(父島), 하하지마(母島)(유인도), 미나미토리시마, 오키노토리시마
패전후 미점령군 통치 -> 1968년 반환

4) 난세이제도

- 규슈지방 남서쪽에 위치
- 오스미(大隅)제도, 도카라(トカラ)열도, 아마미(奄美)제도, 오키나와(沖縄)제도, 다이토(大東)제도, 센카쿠(尖閣)제도, 미야코(宮古)열도, 야에야마(八重山)열도



(4) 영토분쟁

1) 독도의 영유권 문제 - 다케시마

- 1905년 시마네현(島根県)에 편입
- 1946년 CHQ각서에 의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분리
- 일본 측은 이것이 점령하의 잠정적 조치라고 함
- 20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

2) 북방영토(북방 4도) 영유권문제 - 러시아

- 치시마(千島)열도 중 하보마이(齒舞)제도, 시코탄(色丹), 구나시리(国後), 에토로후(択捉)
- 1855년 일러화친조약: 북방4도 - 일본령, 북방4도 이북의 섬 - 러시아령
- 1875년 가라후토-치시마 교환조약 : 치시마열도 전체 - 일본령, 사할린 - 러시아령
- 1905년 포츠머스 조약 - 일본이 남부 사할린 차지
-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 치시마열도의 영유권 잃게 됨

일본은 일러화친조약을 역사적 근거로 내세워 북방4도는 치시마열도에 포함되지 않는 일본고유의 영토임을 주장

3) 센카쿠제도 - 중국 야오위다오

- 남서쪽의 무인도로 1895년 오키나와현에 편입
- 패전후 미국통치하에 놓였다가 1972년 반환
- 중국과 타이완이 영유권 주장



3. 지형적 특징

(1) 해협(海峽)과 내해(內海)

- 소야(宗谷)해협 -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
- 쓰가루(津軽)해협 -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
- 쓰시마(対馬)해협 - 규슈와 한국 사이
- 간몬(関門)해협 - 혼슈와 규슈 사이
-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 혼슈와 규슈·시코쿠 사이

(2) 산지

1) 특징

- 전 국토의 약 3분의 2가 산지
- 국토의 중앙부에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산지가 이어짐
-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해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
- 지질학적으로 젊어서 험준하고 급경사를 나타냄
- 기후가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아 산림자원이 풍부
- 삼림이 잘 보존되었으며 남북으로 긴 지형 때문에 숲의 생태계가 다양



2) 높은산

- 해발 3000m가 넘는 산은 모두 21개
- 후지산(富士山, 3776m)/
기타다케(北岳, 3192m)/
오쿠호타카다케 (奥穂高岳, 3190m)/
아이노타케(間ノ岳, 3189m)/
야리가타게 (槍ヶ岳, 3180m) 등
- 이들 산은 모두 혼슈의 중앙부에 몰려 있음(일본알프스)

■ 일본알프스

- 혼슈 중앙부의 나가노(長野)·기후(岐阜)·시즈오카(静岡) 3현의 경계지역에 위치
- 히다(飛驒)산맥은 북알프스,
기소(木曾)산맥은 중앙알프스,
아카이시(赤石)산맥은 남알프스라 불림

(3) 평야와 하천

1) 하천

- 하천은 대부분 국토 중앙에 위치한 산지로부터 흘러내려 바다로 나아감
- 산지가 해안까지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하천은 길이가 짧고 흐름이 급함
- 계절에 따라 수량(水量) 변화가 크고, 장마(梅雨)나 태풍 시기에는 홍수가 발생
- 가장 긴 강은 시나노가와(信濃川)로 나가노현과 니가타현을 흐르며, 총길이 367km
- 두 번째로 긴 강은 도네가와(利根川)로 나가노현과 간토지방을 흐르며, 총길이 322km
- 이외에 이시카리가와(石狩川), 기타카미가와(北上川), 기소가와(木曾川) 등이 있음

2) 평야

- 평야는 전 국토의 4분의 1 정도
-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이 실어온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퇴적평야가 많음
- 하천의 침식·운반작용이 활발해 하천 하류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입구에 삼각주가 발달

3) 대도시권

- ① 도쿄 대도시권: 간토평야에는 도네가와(利根川)가 흐름. 도쿄, 요코하마, 가와사키, 지바로 이어지는 대도시권 형성
- ② 나고야 대도시권: 노비평야에는 기소가와(木曾川)가 흐름. 나고야와 주변 도시를 잇는 대도시권 형성
- ③ 오사카 대도시권: 오사카평야에는 요도가와(淀川)가 흐름. 교토, 오사카, 고베로 이어지는 대도시권 형성



4. 기후

1) 특징

- 혼슈지역은 온대몬순기후로 사계절 뚜렷
- 겨울에는 대륙의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랭건조, 여름에는 태평양의 남동계절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
-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지역 간 기후차가 큼
- 중앙부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동해 쪽과 태평양 쪽의 기후차가 큼

2) 지역별 기후 구분

① 난세이제도 기후

: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아열대성 기후.
겨울 평균 기온은 15°C 이상

② 홋카이도 기후

: 아한대나 냉대 기후.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추움.
연중 강수량이 적고 쓰유(梅雨)나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동해 쪽 기후

: 겨울에 눈·비가 많고 여름은 맑은 날이 많다

④ 태평양 쪽 기후

: 여름에 비오는 날이 많다.
겨울에 건조한 바람이 불며 맑고 쌀쌀한 날이 많다

⑤ 세토우치 기후

: 산지에 둘러싸여 있어 계절풍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맑은 날이 많고 비가 적다

⑥ 내륙지방 기후

: 계절풍의 영향이 적어 연중 강수량이 적음.
여름/겨울, 낮/밤의 기온차가 크다



[그림 8] 일본의 지역별 기후 구분

5. 자연재해

(1) 지진과 쓰나미

: 일본은 태평양 플레이트와 필리핀해 플레이트가 유라시아 플레이트 아래로 들어가는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진·화산활동이 활발

① 메이지산리쿠(明治三陸)지진(1896): 쓰나미로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음

② 관동대지진(1923)

간토지방 남부에 광범위한 피해 발생

유연비어로 인해 재일한국인 다수가 일본인에 의해 살해됨

③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 고베지진) (1995)

사망자 약 6500 명, 무너진 건물 25만 호

④ 니이가타현 주에쓰지진(新潟県中越地震) (2004)

사망자 67명/ 부상자가 4800여명. 피해액은 3조엔

⑤ 동일본대지진(2011)

산리쿠해안이 진원지로 도호쿠 태평양 연안에 심각한 쓰나미 피해발생

사망자 15,879명, 행방불명자 2,712명, 부상자 6,126명, 파괴된 건물도 39만 호

일본정부는 대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액을 16-25조엔으로 추산

<정답> 1.③ 2.① 3.① 4.④ 5.① 6.④ 7.①

[강의연습문제]

1. 일본의 위치와 국호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는 오키나와현에 속하며 타이완과 가깝다.
- ② 일본(日本)이라는 국호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기에 와서이다.
- ③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사이에 오후츠크해가 있다.
- ④ 일본의 남쪽 끝인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는 괌에 가깝다.

2. 다음 중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영토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의 4개 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色舟島 ② 齒舞諸島 ③ 択捉島 ④ 尖閣諸島

3. 일본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큰 섬은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주고쿠(中国), 규슈(九州)이다.
- ② 일본이 남쪽 끝은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로서 도쿄도에 속한다.
- ③ 혼슈는 약 23만 km²로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이다.
- ④ 일본의 서쪽 끝은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로 타이완과 가깝다.

<정답> 1.① 2.④ 3.③

2장. 지역사회의 구분

목차

- 1. 다양한 지역구분
- 2. 8개의 지역구분
- 3. 철도
- 4. 고속도로
- 5. 교량과 터널

1. 다양한 지역구분

(1) 도도부현의 행정체계

- 광역자치체: 1都(東京都)/ 1道(北海道)/ 2府(京都府.大阪府)/ 43県
- 기초자치체: 시정촌(市町村)

(2) 행정체계의 변천

- 1871년 7월 폐번치현(廢藩置縣)으로 3부 302현
- 1871년 11월 개치부현(改置府縣)으로 3부 72현
- 1888년 3부 43현체제
- 1901년 홋카이도가 지방자치단체가 됨
- 1943년 東京府를 東京都로 변경(47도도부현 체제 확정)

1) 홋카이도지방

北海道(ほっかいどう)

2) 도후쿠지방

青森(あおもり), 秋田(あきた), 岩手(いわて), 山形(やまがた), 宮城(みやぎ), 福島(ふくしま)

3) 간토지방

群馬(ぐんま), 栃木(とちぎ), 茨城(いばらき), 埼玉(さいたま), 千葉(ちば), 東京(とうきょう), 神奈川(かながわ)

4) 주부지방

新潟(にいがた), 富山(とやま), 長野(ながの), 山梨(やまなし), 静岡(しずおか), 石川(いしかわ), 福井(ふくい), 岐阜(ぎふ), 愛知(あいち)

5) 긴키지방

兵庫(ひょうご), 京都(きょうと), 滋賀(しが), 大阪(おおさか), 和歌山(わかやま), 奈良(なら), 三重(みえ)

6) 주고쿠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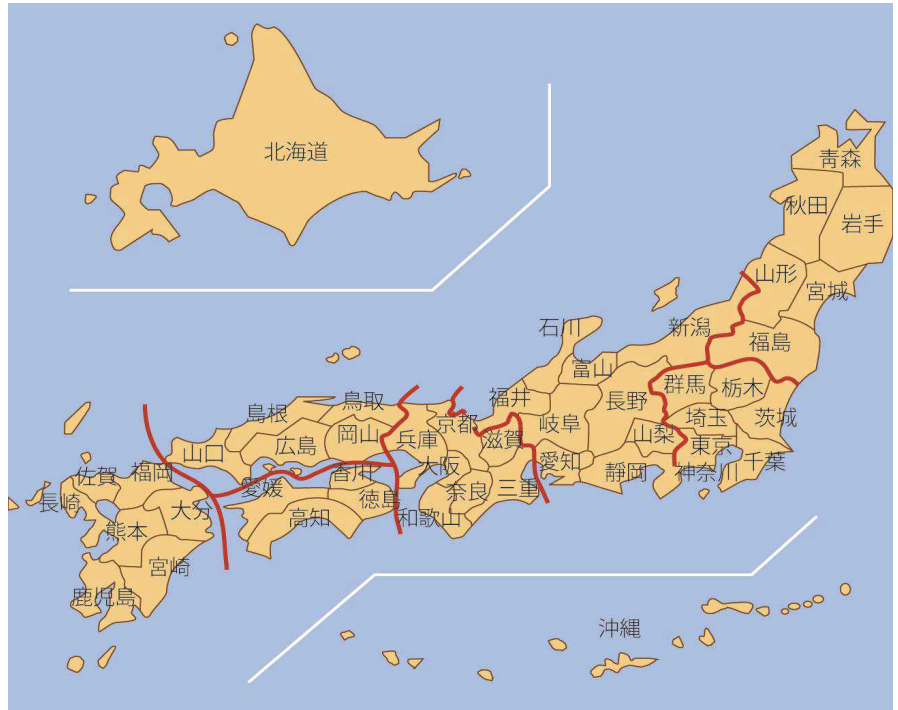
山口(やまぐち), 島根(しまね), 鳥取(とっとり), 広島(ひろしま), 岡山(おか야마)

7) 시코쿠지방

愛媛(えひめ), 香川(かがわ), 徳島(とくしま), 高知(こうち)

8) 큐슈지방

長崎(ながさき), 佐賀(さが), 福岡(ふくおか), 大分(おおいた), 熊本(くまもと), 宮崎(みやざき), 鹿児島(かごしま), 沖縄(おきなわ)



■ 도쿄도(東京都)

- 일본의 수도(Tokyo Metropolis 또는 Tokyo Metropolitan Prefecture)
- 23개의 특별구(特別區), 26개 시, 5개 정(町), 8개 촌(村)으로 이루어진 광역행정 단위

■ 홋카이도

- 메이지기에 일본영토로 편입됨
- 도(道)는 광역자치체의 행정단위의 명칭

■ 오키나와현

- 1879년 류큐처분(琉球処分)에 의해 일본영토로 편입됨

2. 8개의 지역구분

(1) 홋카이도

- 일본열도 전체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
- 아름다운 산, 호수, 온천, 숲, 습지 등의 관광자원이 풍부
-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음
- 1868년에 강제적으로 통합해 홋카이도라고 칭하고 개척사(開拓使)를 두어 다스림
- 1899년 홋카이도구토인보호법(北海道旧土人保護法)을 제정해 아이누족의 고유한 풍습과 문화를 금지하고 일본문화에 동화될 것을 강제
- 메이지기부터 탄광을 개발하고 철도를 건설
- 전후 홋카이도개발청을 설치해 개발정책 추진
- 홋카이도는 농업의 중심지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2% (2012년 기준)를 차지

(2) 도호쿠지방

- 아오모리현(靑森縣), 이와테현(岩手縣), 아키타현(秋田縣), 야마가타현(山形縣), 미야기현(宮城縣), 후쿠시마현(福島縣)
- 고대에 오우산맥(奥羽山脈)을 경계로 동해 쪽에 데와국(出羽國), 태평양 쪽에 무쓰국(陸奥國)을 설치
- 동해 쪽은 해로가 발달해 호쿠리쿠지방, 긴키지방과 밀접하게 교류
- 태평양쪽은 육로를 통해 간토지방과 교류
- 평야가 발달해 쌀 생산량이 많은 곳(津輕·秋田·庄内·仙台平野)
- 메이지기에 공업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농촌지역
- 전후 고도성장기에는 집단취직으로 도쿄로 대거 이동
- 東北新幹線, 東北自動車道の 개통으로 도쿄와의 교류가 활발해짐

(3) 간토 지방

- 이바라키현(茨城縣), 도치기현(栃木縣), 군마현(群馬縣), 사이타마현(埼玉縣), 도쿄도(東京都), 치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1) 특징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
- 공업지역으로
 - 계이힌공업지대(京浜工業地帯, 도쿄만연안),
 - 계이요공업지역(京葉工業地域, 치바현),
 - 기타칸토공업지역(北関東工業地域,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 가시마임해공업지역(鹿島臨海工業地域, 이바라키현)

2) 주요도시

① 도쿄23구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 국회의사당, 최고재판소, 관공청, 증권거래소, 대기업 본사, 대학, 문화시설 등이 집중
- 과밀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 대기오염, 교통정체, 쓰레기문제 등

② 요코하마시(横浜市)

- 일본 제2의 도시
- 1859년 개항 이래 대표적인 국제무역도시로 성장
- 게이힌공업지대의 일부를 형성
- 도쿄의 배후도시로서 출퇴근자도 많음

(4) 주부지방

- 니가타현(新潟県), 도야마현(富山県), 이시카와현(石川県), 후쿠이현(福井県), 야마나시현(山梨県), 나가노현(長野県), 기후현(岐阜県), 시즈오카현(静岡県), 아이치현(愛知県)

■ 주부지방의 3구분

① 호쿠리쿠(北陸)지방

- 동해와 접하는 지역(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 겨울철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눈이 많이 내림
- 고급견직물, 칠기(漆器), 동기(銅器), 서양 식기(洋食器) 등이 유명

② 중앙고지(中央高地)

- 내륙부의 높은 산들이 모여 있는 지역(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 히다산맥(飛騨山脈), 기소산맥(木曾山脈), 아카이시산맥(赤石山脈)이 모여 있음

③ 도카이지방(東海地方)

- 태평양에 접한 지역(시즈오카현, 아이치현)
-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나고야 대도시권을 형성
- 주쿄공업지대(中京工業地帯)과 도카이공업지역(東海工業地域)을 형성
- 온난한 기후조건과 대도시와 가까워 원예농업이 발달
- 시즈오카현은 일본 제일의 차 생산지

(5) 긴키지방

- 효고현(兵庫県), 교토부, 시가현(滋賀県), 오사카부, 와카야마현(和歌山県), 나라현(奈良県), 미에현(三重県)

1) 역사적 특징

- 고대부터 수도가 위치하여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
- 긴키는 수도권을 의미(畿는 수도를 말함, 오사카, 나라, 교토)
- 간사이지방(関西地方)이라고 부르기도 함

2) 주요 도시

게이한신(京阪神) : 교토, 오사카, 고베의 3개 도시를 잇는 형태로 대도시권이 발달

① 오사카시

- 에도시대에 전국의 쌀이나 특산물의 집산지로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
- 직인이나 상인을 중심으로 한 조닌(町人)문화 발전
- 메이지기에 대공장이 들어서면서 공업도시로 발전

- 1960년대부터 센리(千里), 센보쿠(泉北), 세이신(西神) 뉴타운이 조성됨
- 이쿠노구(生野区)는 재일한국인이 많이 거주

② 교토시(京都市)

- 794년에 헤이안쿄(平安京)로 건설되어 천 년간 수도의 역할
- 신사(神社), 절, 일본정원 등 역사적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음
- 긴카쿠지(金閣寺), 기요미즈데라(清水寺), 헤이안진구(平安神宮), 료안지(龍安寺) 등

③ 고베시

- 메이지기에 개항지로 발전
- 외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외국풍의 생활양식을 많이 남김 (異人館, 南京町)
- 공업도시로 한신공업지대에 속함
- 나가타구(長田区)는 재일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④ 나라시(奈良市)

- 710~794년까지 수도의 역할
- 고대율령국가 형성기에 중국이나 백제의 영향을 깊게 받은 불교문화가 발전
- 나라공원(奈良公園), 도다이지(東大寺), 호류지(法隆寺), 야쿠시지(藥師寺) 등

(6) 주코쿠지방

- 돗토리현(鳥取県), 시마네현(島根県), 오카야마현(岡山県), 히로시마현(広島県), 야마구치현(山口県)

1) 특징

- 주코쿠산지를 경계로 동해 쪽이 산인지방(山陰地方)
- 세토나िका이(瀬戸内海)와 접하는 지역이 산요지방(山陽地方)
- 평야나 분지가 좁고 적기 때문에 교통망의 정비가 늦어짐
- 산인지방의 공업 발달이 뒤쳐짐
- 산요지방은 세토우치공업지역(瀬戸内工業地域)을 형성
- 도쿄 방면으로 통하는 경로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 (山陽新幹線, 山陽自動車道)

2) 주요 도시

■ 히로시마시(広島市)

- 오타가와(太田川) 하류 삼각지에 있는 도시로 에도시대에 조카마치(城下町)로 성장
- 청일전쟁 때 제국의회와大本영이 이전해오면서 군수공업도시/ 군사도시로 발전
- 1945년 8월 6일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20만 명 이상이 사망
- 1949년 참화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히로시마평화기념도시건설법을 제정
- 평화도시를 표방하며 세계에서 반핵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7) 시코쿠지방

- 도쿠시마현(徳島県), 고치현(高知県), 가가와현(香川県), 에히메현(愛媛県)

- 시코쿠산지(四国山地)가 동서로 길게 늘어서 있음
- 도쿠시마현은 긴키지방/
가가와현은 오카야마현/
에히메현은 히로시마현과 교류가 활발
-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하는 3개 연락교가 건설되어 혼슈와의 연결이 긴밀해 짐
- 세토나िका이공업지역을 형성
- 온난하고 비가 적기 때문에 올리브나 미강 재배가 활발

(8) 규슈지방

- 후쿠오카현(福岡県), 사가현(佐賀県), 나가사키현(長崎県), 구마모토현(熊本県), 오이타현(大分県), 가고시마현(鹿児島県), 미야자키현(宮崎県), 오키나와현(沖縄県)

1) 특징

- 산지가 발달해 있고 화산이 많음
- 아시아대륙과 가까워 고대에 대륙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담당
- 고대에 대륙문화 교류를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가 다수 발견됨
-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는 중국/네덜란드와 무역항으로 역할

2) 오키나와

- 메이지기에 일본영토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독자적인 류큐문화를 발전시켜옴
- 15세기에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일본, 한반도, 중국대륙, 동남아시아와 활발하게 무역활동
- 슈리성(首里城)을 비롯해 류큐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적이나 풍속이 있음
- 제2차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유일한 전장이 되어 수많은 주민이 희생됨
- 1972년까지 미군의 통치를 받았고 현재 미군 기지의 4분의 3이 오키나와에 배치

3) 주요 도시

① 후쿠오카시(福岡市)

- 한국이나 중국, 동남아시아와 거리가 가까워 교류가 활발
-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하카타만 동부에 대형 항만시설을 정비한 인공섬 건설

② 기타큐슈시

- 1901년에 관영제철소로 야하타제철소가 조업을 하면서 공업지역으로 발전
- 기타큐슈공업지대를 형성
- 고도성장기에 심각한 공해 발생
- IT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의 진출이 활발

3. 철도



(1) 신칸센

- ① 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 - 1964년 개통
 - 도쿄에서 출발해 요코하마, 아타미(熱海), 시즈오카(静岡), 나고야, 교토를 거쳐 오사카에 도착
- ② 산요신칸센(山陽新幹線) - 1975년 전 구간 개통
 - 오사카에서 출발해 고베, 오카야마(岡山), 히로시마를 거쳐 하카타(博多)역에 도착
 - 도카이도신칸센과 산요신칸센이 연결되어 운행되는 경우가 많음
- ③ 규슈신칸센(九州新幹線)
 - 하카타-나가사키 간 구간과 하카타-가고시마 간의 두 개의 노선
 - 2011년에 하카타에서 야츠시로까지 이어지는 전 구간이 개통됨
 - 도카이도신칸센, 산요신칸센, 규슈신칸센이 연결되어 운행되는 경우도 있음
- ④ 도호쿠신칸센(東北新幹線) - 2010년 전 구간이 개통됨
 - 도쿄에서 출발해 오미야, 후쿠시마(福島), 센다이(仙台), 모리오카(盛岡)를 거쳐 아오모리에 도착
- ⑤ 야마가타신칸센(山形新幹線)
 - 도호쿠신칸센에서 갈라져 야마가타를 거쳐 신조(新庄)에 도착 (미니신칸센)
- ⑥ 아키타신칸센(秋田新幹線)
 - 도호쿠신칸센에서 갈라져 아키타로 이어짐(미니신칸센)
- ⑦ 조에쓰신칸센(上越新幹線)
 - 도쿄에서 출발해 니가타(新潟)에 도착
- ⑧ 나가노신칸센(長野新幹線)/호쿠리쿠신칸센(北陸新幹線)
 - 도쿄에서 출발해 나가노(長野)에 도착
 - 1997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앞서 개통
 - 오사카에서 호쿠리쿠지방의 주요 도시를 잇는 간선으로 계획됨
 - 현재 호쿠리쿠신칸센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전 구간이 완성되면 도야마(富山), 가나자와(金沢), 후쿠이(福井), 츠루가(敦賀)까지 연결됨
- ⑨ 홋카이도신칸센(北海道新幹線)
 - 삿포로시(札幌市)에서 출발해 쓰가루해협을 지나 아오모리시에 이르는 구간, 건설 중

(2) 재래선

- ① 도카이도본선(東海道本線) - 1889년 전 구간 개통
 - 도쿄에서 출발해 고베에 도착
- ② 도호쿠본선(東北本線) - 1891년 전 구간 개통
 - 도쿄에서 출발해 고오리야마(郡山), 센다이, 모리오카, 하치노헤(八戸)를 거쳐 아오모리에 도착
- ③ 산요본선(山陽本線)
 - 고베시에서 기타큐슈시의 모지(門司)에 도착
 - 시모노세키(下関)역을 지나 해저의 간문(関門)터널을 통과
- ④ 가고시마본선(鹿児島本線) - 모지에서 출발해 하카타, 구마모토(熊本)를 거쳐 가고시마에 도착
- ⑤ 간사이본선(関西本線) - 나고야에서 오사카로 이어지는 노선
- ⑥ 중앙본선(中央本線) - 도쿄에서 고신(甲信)지방을 거쳐 나고야에 도착
- ⑦ 호쿠리쿠본선(北陸本線) - 시가현 마이바라(米原)에서 니가타현 조에쓰(上越)로 이어지는 노선
- ⑧ 산인본선(山陰本線)
 - 교토에서 출발해 돗토리(鳥取), 이즈모(出雲), 하마다(浜田)를 거쳐 시모노세키(下関)에 도착

- ⑦ 규슈자동차도
 - 규슈지방을 관통하는 자동차도로 기타큐슈에서 출발해 가고시마에 도착
- ⑧ 도오자동차도(道央自動車道)
 - 홋카이도를 남에서 북으로 종단
- ⑨ 도토자동차도(道東自動車道)
 - 홋카이도를 동에서 서로 횡단
- ⑩ 아키타자동차도(秋田自動車道)
 - 도호쿠자동차도에서 갈라져 아키타에 도착
- ⑪ 야마가타자동차도(山形自動車道)
 - 도호쿠자동차도에서 갈라져 야마가타를 거쳐 사카타(酒田)에 도착

5. 교량과 터널

(1) 세이칸터널

- 1988년 개통
- 아오모리현의 히가시츠가루(東津軽)와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시(函館市)를 연결
- 해저부의 총거리는 약 53.9km
- 주로 화물 수송으로 이용됨
- 홋카이도신칸센이 개통되면 4-5시간 안에 도쿄에 도착

(2) 혼슈시코쿠연락교(本州四国連絡橋)

- 1970년 혼슈시코쿠연락교공단(本州四国連絡橋公団) 설립
- 다리의 개통으로 혼슈와의 교류 활발해지고 생활권을 형성

1) 세토오하시(瀬戸大橋)

- 1988년 전부 개통
- 가가와현 사카이데(坂出) - 오카야마현 구라시키키시(倉敷市)의 고지마(児島) 간
- 도로와 철도 겸용의 2층 교량
- 세토오하시는 5개의 섬을 연결하는 모두 6개의 다리를 총칭 (도로 37.3km, 철도 32.4km).
- 상부 다리는 세토중앙자동차도(瀬戸中央自動車道)
- 하부 철도는 세토오하시선(瀬戸大橋線)

2) 고베아와지나루토자동차도(神戸淡路鳴門自動車道) - 3개의 다리로 구성

① 아카시해협대교(明石海峡大橋) :

- 1998년 고베와 아와지시마(淡路島)를 연결하는 아카시해협대교 (明石海峡大橋)가 개통

② 오나루토교(大鳴門橋)

- 도쿠시마의 나루토시(鳴門市)와 아와지시마(淡路島)를 연결하는 다리
- 1985년 개통
- 상하 2층 구조로 상부가 자동차전용도로, 하부가 신칸센 규격의 철도용 도로
- 시코쿠신칸센 건설이 동결되면서 하부의 철로는 통행자의 보도교로 이용되고 있음

3) 세토우치시마나미海道(瀬戸内しまなみ海道)

- 1999년 개통
- 히로시마현 오노미치(尾道)와 에히메현 이마바리(今治) 간을 연결
- 2006년 일부 미개통 구간이 전부 개통되어 하나의 도로로 연결됨
- 6개의 섬이 10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음
- 니시세토자동차도(西瀬戸自動車道)



[평가문제]

1.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행정단위가 아닌 것은?

- ① 도(道)
- ② 부(府)
- ③ 촌(村)
- ④ 읍(邑)

2. 다음 지명중 43현(県)에 해당하지 않는 지명은?

- ① 오카야마(岡山)
- ② 시가(滋賀)
- ③ 가가와(香川)
- ④ 미토(水戸)

3. 47개 도도부현 지명의 한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오이타현(大分県)
- ② 시가현(佐賀県)
- ③ 오키나와현(沖繩県)
- ④ 도치기현(栃木県)

4. 일본의 전 국토를 흔히 8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때 사용되는 명칭이 아닌 것은?

- ① 규슈(九州)지방
- ② 사가(佐賀)지방
- ③ 주부(中部)지방
- ④ 긴키(近畿)지방

5. 다음 중 도호쿠지방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 ① 아키타현
- ② 후쿠시마현
- ③ 돗토리현
- ④ 이 와테현

6. 도호쿠지방의 한 가운데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산맥은?

- ① 아카이시산맥(赤石山脈)
- ② 오우산맥(奥羽山脈)
- ③ 에치고산맥(越後山脈)
- ④ 데시오산지(天塩山脈)

7. 다음 중 도호쿠지방에 위치한 평야가 아닌 것은?

- ① 아키타(秋田)평야
- ② 이시카리(石狩)평야
- ③ 쓰가루(津軽)평야
- ④ 쇼나이(庄内)평야

8. 근대 이전에 에조치(蝦夷地)라고 불리던 곳으로 메이지기에 와서 일본영토로 편입되어 본격적인 개척이 이루어진 곳은?

- ① 가라후토(樺太)
- ② 아마미제도(奄美諸島)
- ③ 홋카이도(北海道)
- ④ 오키나와(沖繩)

9. 다음은 어느 지방에 대한 설명인가?

메이지기부터 공업이 발달하여 대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전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더욱 인구가 집중하였다. 현재 일본인구의 3분의 1이 모여 있을 정도로 인구의 집중도가 크다.

- ① 주고쿠(中国)지방 ② 간토(關東)지방 ③ 긴키(近畿)지방 ④ 주쿄(中京)지방

10. 다음에 제시한 현(県)중에서 주부지방에 속하지 않은 곳은?

- ① 이시카와현 ② 기후현 ③ 아이치현 ④ 히로시마현

11. 다음은 어느 지방에 대한 설명인가?

이곳은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최근 아소산(阿蘇山)이나 사쿠라지마(桜島)와 같은 화산에서는 분화가 일어나 주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 ① 규슈(九州)지방 ② 주고쿠(中国)지방 ③ 긴키(近畿)지방 ④ 주쿄(中京)지방

12. 주고쿠지방(을 크게 2 지역으로 구분할 때 이에 해당하는 명칭은?

- ① 고신에쓰(甲信越)지방 ② 산인(山陰)지방 ③ 도카이(東海)지방 ④ 고신(甲信)지방

13. 다음 중 긴키지방(近畿地方)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 ① 미에현 ② 시가현 ③ 와카야마현 ④ 오이타현

14. 고대 율령국가가 확립되던 시기에 행정구획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7도(道)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호쿠리쿠도(北陸道) ② 홋카이도(北海道) ③ 난카이도(南海道) ④ 사이카이도(西海道)

15. 다음은 어느 지방에 대한 설명인가?

이곳은 아시아대륙과 가까워 고대부터 대륙에서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역할을 하였다. 현재에도 이곳에는 아시아 각지로 가는 항공로가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 ① 주고쿠(中国)지방 ② 규슈(九州)지방 ③ 긴키(近畿)지방 ④ 시코쿠(四国)지방

16. 일본에서 가장 먼저 개통된 철도 노선으로 도쿄에서 고베까지 이어지는 재래선의 명칭은?

- ① 도카이도본선(東海道本線) ② 하코다테본선(函館本線)
- ③ 도호쿠본선(東北本線) ④ 간사이본선(関西本線)

17. 산요본선(山陽本線)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도쿄에서 출발하여 센다이를 거쳐 아오모리에 이른다
- ② 규슈지방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철도 노선이다.
- ③ 고베에서 출발하여 시모노세키를 지나 기타규슈로 이어진다.
- ④ 도쿄와 나고야의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다.

18. 다음 중 홋카이도를 달리는 고속도로의 노선명은?

- ① 도오자동차도(道央自動車道) ② 중앙자동차도(中央自動車道)
- ③ 도메이고속도로(東名自動車道) ④ 간에쓰자동차도(関越自動車道)

19. 도쿄로 이동하는 국내 여객 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대륙과 가까워 예부터 아시아 각지와 교류가 활발한 규슈지방의 중심 공항은?

- ① 후쿠오카공항 ② 주부국제공항 ③ 신치토세공항 ④ 나하공항

20. 도쿄올림픽 개최 직전에 개통되었으며, 간토지방과 간사이지방의 주요도시를 통과하며, 가장 이용자수가 많은 신칸센의 노선은?

- ① 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 ② 도호쿠신칸센(東北新幹線)
- ③ 나가노신칸센(長野新幹線) ④ 조에쓰신칸센(上越新幹線)

<정답> 1.④ 2.④ 3.② 4.② 5.③ 6.② 7.② 8.③ 9.② 10.④ 11.① 12.② 13.④ 14.② 15.② 16.① 17.③ 18.① 19.① 20.①

[강의 연습문제]

1. 홋카이도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삿포로, 무로란, 왓카나이 등은 아이누족의 언어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 ② 전후 일본정부는 홋카이도개발청을 설치해 홋카이도 개발을 추진하였다.
- ③ 1868년 메이지정부는 에조치(蝦夷地)라고 부르던 이곳을 강제로 통합해 홋카이도라고 칭하였다.
- ④ 홋카이도구토인보호법은 아이누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방안을 규정하였다.

2. 일본열도를 8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때 시코쿠지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愛知県 ② 徳島 ③ 高知県 ④ 岡山県

3. 다음은 어느 지방에 대한 설명인가?

고대부터 수도가 위치해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간토지방과 대비해 간사이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① 주고쿠지방 ② 간토지방 ③ 긴키지방 ④ 주쿄지방

4. 일본의 철도 교통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메이지기에 간토지방과 도호쿠지방을 연결하는 도호쿠본선이 개통되었다.
- ② 고속철도인 신칸센이 처음으로 개통된 것은 1960년대이다.
- ③ 산요본선은 규슈지방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철도노선이다.
- ④ 조에쓰신칸센은 도쿄와 니가타를 연결하는 철도노선이다.

5. 다음 중 혼슈와 시코쿠지방을 연결하는 교량이 아닌 것은?

- ① 아카시해협대교(明石海峡大橋) ② 세토오하시(瀬戸大橋)
- ③ 세토우치시마나미해도(瀬戸内しまなみ海道) ④ 센트레아오하시(セントレア大橋)

<정답> 1.④ 2.④ 3.③ 4.③ 5.④

3장.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목차

1. 지역간 경제격차의 구조
2. 지역간 인구격차
3. 주요 공업지역
4. 주요 농업지역
5. 과소지역의 과제

1. 지역간 경제격차의 구조

(1) 산업별 인구구성

[표 1] 제1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1~5위, 2010년)

	높은 지역	비율(%)	낮은 지역	비율(%)
1위	青森県	13.0	東京都	0.4
2위	高知県	12.4	大阪府	0.5
3위	岩手県	12.2	神奈川県	0.9
4위	宮崎県	11.8	埼玉県	1.8
5위	熊本県	10.5	兵庫県	2.1

⇒ 제1차산업 비중이 높은 곳은 도호쿠지방, 규슈지방, 산인지방, 시코쿠지방

[표 2] 제3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1~5위, 2010년)

	높은 지역	비율(%)	낮은 지역	비율(%)
1위	東京都	82.0	山形県	60.5
2위	沖縄県	79.2	長野県	60.7
3위	神奈川県	76.5	福島県	62.0
4위	千葉県	76.4	栃木県	62.2
5위	福岡県	76.0	富山県	62.4

⇒ 제3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주변에 대규모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음

[표 3] 제2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1~5위, 2010년)

	높은 지역	비율(%)	낮은 지역	비율(%)
1위	滋賀県	34.5	沖縄県	15.4
2위	富山県	34.1	高知県	17.5
3위	静岡県	33.7	東京都	17.6
4위	愛知県	33.6	北海道	18.1
5위	岐阜県	33.6	長崎県	20.2

⇒ 제2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공업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도시가 있는 경우

(2) 부문별 경제규모

[표 4] 농업 생산액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1~5위, 2012년)

	높은 지역	경제규모 (백억 엔)	낮은 지역	경제규모 (백억 엔)
1위	北海道	105	東京都	3
2위	茨城県	43	大阪府	3
3위	鹿児島県	41	奈良県	4
4위	千葉県	40	福井県	5
5위	熊本県	32	石川県	6

[표 5] 공업제품 생산액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1~5위, 2012년)

	높은 지역	경제규모 (백억 엔)	낮은 지역	경제규모 (백억 엔)
1위	愛知県	4,003	高知県	49
2위	神奈川県	1,746	鳥取県	69
3위	大阪府	1,602	島根県	98
4위	静岡県	1,571	秋田県	112
5위	兵庫県	1,435	宮崎県	144

[표 6] 상품 판매액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1~5위, 2007년)

	높은 지역	경제규모 (백억 엔)	낮은 지역	경제규모 (백억 엔)
1위	東京都	18,135	鳥取県	135
2위	大阪府	6,030	島根県	142
3위	愛知県	4,319	高知県	159
4위	福岡県	2,213	徳島県	165
5위	神奈川県	2,105	佐賀県	184

[표 7] 1인당 현민소득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1~5위, 2011년)

	높은 지역	경제규모 (백억 엔)	낮은 지역	경제규모 (백억 엔)
1위	東京都	437	沖縄県	202
2위	静岡県	316	高知県	220
3위	愛知県	311	宮崎県	221
4위	滋賀県	307	鳥取県	223
5위	富山県	306	長崎県	235

2. 지역간 인구격차

(1) 47개 도도부현의 인구격차

: 지역간 경제격차의 구조는 인구격차로 나타남

1) 일본인구의 추이

- 1955년 8,411만 명 → 1980년 1억 1,706만 명 → 2008년 1억 2,808만 명
- 2060년 8,67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 지역(9) - 7개 지역이 3대 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

: 홋카이도, 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인구

■ 100만 명 이하 현

: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고치현, 사가현

■ 인구 150만 명 이하 현

: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이와테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시가현, 나라현, 에히메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오키나와현

[표 8]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1~5위, 2013)

인구증가 지역	비율(%)	인구감소 지역	비율(%)
東京都	0.53	秋田県	-1.18
沖縄県	0.44	青森県	-1.04
愛知県	0.21	山形県	-0.90
埼玉県	0.14	高知県	-0.89
神奈川県	0.13	和歌山県	-0.84

2) 고령자(65세이상) 비율의 추이

- 1970년의 7.1% → 1980년의 9.1% → 1990년의 12.0% → 2000년 17.3% → 2013년의 25.1%
- 2060년에는 39.9%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 9] 고령자 비율이 높은 도도부현과 낮은 도도부현 (1~5위, 2013)

높은 도도부현	비율(%)	낮은 도도부현	비율(%)
秋田県	31.6	沖縄県	18.4
高知県	31.1	東京都	21.9
島根県	30.9	愛知県	22.3
山口県	30.2	神奈川県	22.4
和歌山県	29.4	滋賀県	22.5

3) 3대 도시권 - 대규모 임해공업지역을 끼고 있어 인구가 집중됨

- ① 도쿄권: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 ② 오사카권: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시가현, 나라현
- ③ 나고야권: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4) 태평양벨트 지역

-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형성
-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감소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고령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주민의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음

5) 그 이외 지역

- 공업화로부터 탈락되어 제1차산업이 중심 산업
- 인구감소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큼
- 고령자 비율이 높음
- 지역주민의 소득도 상대적으로 낮음

(2) 주요 대도시

▣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 정령으로 지정
- 도도부현에 속하는 사무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시행
-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음
- 2013년 정령지정도시는 20개

▣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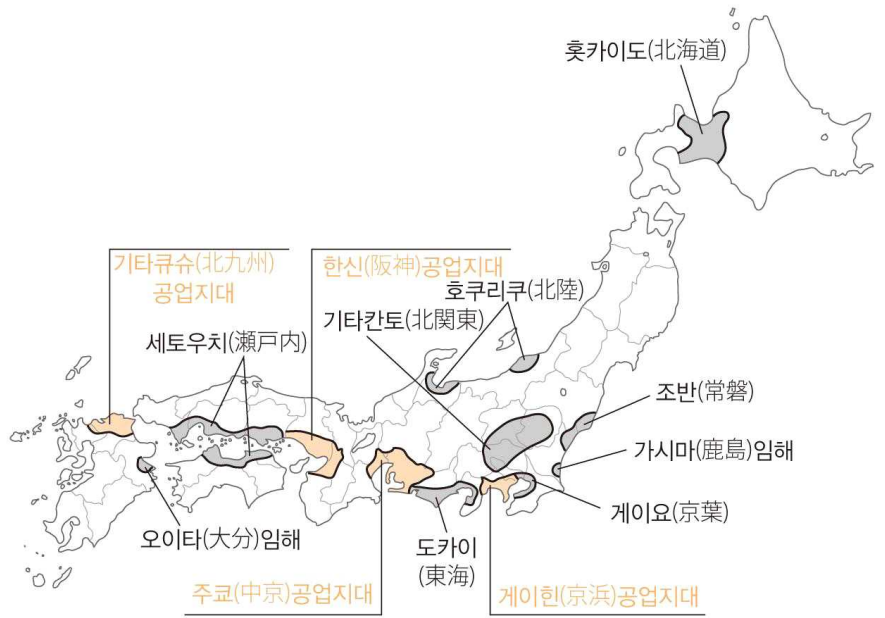
도쿄(東京)23구	913만 명
요코하마(横浜)시	371만 명
오사카(大阪)시	269만 명
나고야(名古屋)시	228만 명
삿포로(札幌)시	192만 명
고베(神戸)시	154만 명
후쿠오카(福岡)시	152만 명
교토(京都)시	147만 명
가와사키(川崎)시	146만 명
사이타마(埼玉)시	125만 명
히로시마(広島)시	119만 명



[그림3-2] 정령지정도시(2013년)

3. 주요공업지역

- ① 게이힌공업지대
 - 도쿄도에서 가나가와현으로 이어지는 공업지대
- ② 게이요공업지역
 - 도쿄만에서 치바현의 치바항(千葉港)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형성
 - 제2차세계대전 후 게이힌공업지대의 연장선상에서 발전
- ③기타칸토공업지역
 - 게이힌공업지대의 과밀화로 사이타마현, 군마현, 도치기현에 형성
 - 간토내륙공업지역(關東內陸工業地域)이라고도 함
- ④가시마임해공업지역
 - 이바라키현 남동부의 가시마시(鹿島市)와 가미스시(神栖市)를 중심으로 형성



[그림 3] 일본의 주요 공업지역

- ⑤ 주쿄공업지대 :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아이치현 남부에서 미에현 북부로 이어지는 공업지대
- ⑥ 도카이공업지역 : 시즈오카현의 태평양 연안을 따라 형성
- ⑦ 한신공업지대 : 오사카만을 중심으로 오사카부와 효고현을 중심으로 형성
- ⑧ 세토우치공업지역 : 세토나िका이 연안에 위치한 주고쿠지방과 시코쿠지방의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
- ⑨ 기타큐슈공업지대 : 기타큐슈시를 중심으로 임해부에 형성
- ⑩ 호쿠리쿠공업지역 : 호쿠리쿠지방의 임해도시를 중심으로 형성
와지마의 칠기, 가나자와의 금박(金沢箔), 가가(加賀)지방의 구타니야키(九谷焼)
- ⑪ 홋카이도공업지역 : 종이·펄프공업, 제철업, 유제품이나 맥주 등의 식품공업이 발달
- ⑫ 조반공업지역 : 후쿠시마현 남부에서 이바라키현 북부의 지역, 전기기계나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이 발달
- ⑬ 오이타임해공업지역 : 석유화학이나 제철, 전기기계 등의 공업이 발달



호쿠리쿠공업지역 와지마의 칠기



호쿠리쿠공업지역 가나자와의 금박(金沢箔)



호쿠리쿠공업지역 가가(加賀)지방의 구타니야키(九谷焼)

4. 주요 농업지역

(1) 농업의 특성

- 농가 수는 1960년의 606만호에서 2010년의 253만호로 크게 감소
- 농업으로 수입을 얻는 판매농가는 2012년에 150만 호
- 소득의 절반 이상을 농업에서 얻고 있는 주업농가(主業農家)는 34만호
- 농가의 약 80%는 2헥타르 미만의 작은 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영세농가
- 농업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은 2012년에 60%
- 최근 경영규모 확대, 법인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추구

(2) 주요 농업지역

- 농업생산액(2012년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홋카이도(생산액 약 1조 엔)
- 그 다음으로 농업생산액이 높은 지역은 이바라키현, 가고시마현, 치바현
- 홋카이도는 곡물이나 야채, 목축 등 전 분야에 걸쳐 농업생산이 활발
- 이바라키현이나 치바현은 대도시에 가까운 입지 조건을 배경으로 야채 생산이 활발

5. 과소지역의 과제

(1) 3대 도시권의 인구집중

- 고도성장기에 지역개발정책은 3대 도시권의 공업입지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됨
- 도쿄만(東京灣), 이세만(伊勢灣), 오사카만(大阪灣), 세토나이카이 연안이 매립됨
- 이들 매립지에 철강이나 석유정제, 석유화학, 알루미늄 정련, 전력 등의 산업이 유치됨
- 고도성장기에는 3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 됨
- 규슈지방, 시코쿠지방, 주고쿠지방, 호쿠리쿠지방, 고신지방, 도호쿠지방에서는 인구가 유출됨
- 3대 도시권의 인구비율: 1950년 35.7% → 1970년 46.9% → 1990년 49.8% → 2013년 50.9%
- 고도성장기에 인구가 급증한 대도시에서는 과밀화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
- 4대공해병으로 불리는 미나마타병, 니가타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천식 등이 발생

(2) 과소지역의 문제

- 고도성장기에 농촌의 젊은이와 남성들이 도시로 대거 유출
- 과소(過疎)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져 지역사회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된 지역
- 과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1970년대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

■ 과소지역의 현황(2012년)

- 과소지역으로 지정된 시정촌은 797개(전체 시정촌의 46.4%)
- 과소지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8.9%
- 과소지역의 면적은 전 국토의 59%
-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천 개의 마을이 사라졌으며, 앞으로도 수천 개 마을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

[평가문제]

- 다음 중 인구 500만명(2004년 기준)이 넘는 지역이 아닌 것은?
 ① 홋카이도 ② 지바현 ③ 효고현 ④ 가가와현
- 대규모 자동차 공업단지를 형성하고 있어 일본에서 공업 생산액(2002년 기준)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① 도쿄도 ② 오사카부 ③ 아이치현 ④ 가나가와현
- 도쿄만의 해안에서 지바항으로 이어지는 곳에 형성된 공업지역으로 게이한공업지대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한 공업 지역은?
 ① 게이요공업지역 ② 주쿄공업지역 ③ 도카이공업지역 ④ 기타칸토공업지역

4. 다음 중 전전부터 발달한 일본의 3개 공업지역에 속하는 것은?
 ① 호쿠리쿠공업지역 ② 한신공업지대 ③ 세토우치공업지역 ④ 가시마임해공업지역
5.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아이치현 남부에서 미에현 북부로 이어지는 공업지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주요공업지대 ② 게이힌공업지대 ③ 한신공업지대 ④ 가시마임해공업지역
6. 다음 중 고도성장기에 대도시로 인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도호쿠지방 ② 시코쿠지방 ③ 호쿠리쿠지방 ④ 긴키지방
7. 고도성장기에 일본에서 진행된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오사카권이 발달함에 따라 나고야권에서는 대량의 인구유출이 일어났다.
 ② 거점별 지역개발방식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
 ③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주민 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④ 태평양벨트로 불리는 지대에 대규모 중화학공업기지가 건설되었다.
8. 고도성장기에 일본의 농촌에서 진행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가 진전되었다.
 ② 농가소득이 높아지면서 전업농가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③ 농업의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④ 농촌의 몰락으로 농가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9. 고도성장기에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았던 지역은?
 ① 간토(關東)지방 ② 시코쿠(四国)지방 ③ 홋카이도(北海道)지방 ④ 도호쿠(東北)지방
10. '마치즈쿠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1960년대에 일본의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② 시빌미니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운동을 말한다.
 ③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다.
 ④ 산업시설의 유치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운동이다.

<정답> 1.④ 2.③ 3.① 4.② 5.① 6.④ 7.④ 8.① 9.① 10.③

[강의연습문제]

1. 주요공업지대의 동쪽에 위치한 공업지역으로 시즈오카현의 태평양 연안을 따라 형성된 공업지역은?
 ① 게이요공업지역 ② 호쿠리쿠공업지역 ③ 도카이공업지역 ④ 기타칸토공업지역
2. 다음 중 전전(戰前)부터 발달한 일본의 3대 공업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주요공업지대 ② 한신공업지대 ③ 게이힌공업지대 ④ 가시마임해공업지역
3. 다음 중 간토지방에 위치한 공업지역이 아닌 것은?
 ① 가시마임해공업지역 ② 오이타임해공업지역 ③ 기타칸토공업지역 ④ 게이요공업지대
4. 대도시를 끼고 있어 인구규모가 크고 산업별 취업인구 비율로 볼 때 제3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① 돗토리현 ② 아오모리현 ③ 미야자키현 ④ 치바현
5. 오사카만을 중심으로 오사카부와 효고현으로 이어지는 공업지역은?
 ① 게이요공업지역 ② 한신공업지대 ③ 세토우치공업지역 ④ 세토우치공업지역

<정답> 1.③ 2.④ 3.② 4.④ 5.②

4장. 일본인의 생활문화

목차

1. 생활 속의 의례
2. 출산과 육아
3. 성인식
4. 약혼식과 결혼식
5. 장례와 제례
6. 야쿠도시와 도시이와이

1. 생활 속의 의례

(1) 일본인의 생활 속의 의례

- 일본인의 생활에는 인생의 전기를 기리는 의례가 발달
-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를 중시
- 가정에서 불단(佛壇)과 가미다나(神棚)를 설치해 일상적으로 선조 공양을 함
- 정월 초 새해 소원을 빌러 신사를 참배하는 하쓰모데(初詣)도 여전히 성행

(2) 통과의례

1) 통과의례란?

- 인생의 중요한 전기에 특정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치러지는 의례
- 각 단계에서 부과된 과제를 수행해 새로운 역할이나 지위를 획득
- 공간적 이동, 시간적 이동, 사회적 지위 이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2) 반 제넵(Arnold van Gennep)의 통과의례 3단계설

- ① 현재 상태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는 분리의 의례
- ② 과도적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과도(이행)의 의례
- ③ 새로운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사회적으로 승인 받는 통합의 의례

(3) 인생의례

1) 인생의례란?

-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례
- 인생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중시한 고유한 가치관이 담겨있음
- 중국에서 전래되었지만 불교와 신도가 결합해 일본적인 방식으로 정착
- 한 개인이 지역공동체의 성원임을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의미가 있었음
- 예전에 인생의례의 많은 부분을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집행

2) 출생 및 성장과 관련된 의례

- 신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
- 한 개인의 탄생은 씨족신인 우지가미(氏神)의 자손인 우지코(氏子)로 태어나는 것
- 신앙생활은 신사에서 우지가미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됨
- 성장과정의 다양한 의례를 통해 우지가미와 우지코의 관계는 강화됨

3) 장례/제례와 관련된 의례

- 불교식으로 행해짐
- 죽은 조상은 후손의 공양에 의해 부처가 된다는 불교신앙에 기반
- 신이 된 조상은 이승에 머물면서 후손에게 안녕을 가져다줌
- 후손이 공양을 게을리 하면 조상은 성불을 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아다니게 됨
- 사후에도 공양을 통해 조상과 후손이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선조 중심의 사회집단을 형성
- 데라우케제도(寺講制度)의 영향으로 절은 장례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음

2. 출산과 육아

(1) 출산축하

- 출산을 하면 친지나 친구들이 선물을 한다 (아기용품, 장남감, 돈 등)
- 최근에는 대체로 병원에서 출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풍속은 없어지고 있음
- 우치이와이(内祝い) : 출산시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축하선물을 보내 준 사람에게 답례를 하는 것.
원래 뜻은 가족끼리 축하를 한다는 의미이지만, 받은 도움이나 선물에 대한 답례를 의미하는 말.
출산 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팥밥이나 떡 등의 물품을 보냄 (받은 물품의 1/2 ~ 1/3정도)

(2) 오시치야

- 7일간 무사한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무사를 기원한다는 의미.
- 아이 이름을 가미다나나 도코노마에 붙여 놓음
- 현재 축하의식은 없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정도

(3) 하쓰미야마이리(初宮参り)

- 출생한 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하는 신사참배
- 생후 30일 전후에 아이의 부모나 할머니가 함께 감
- 태어난 곳의 씨족신인 우지가미에게 아이의 출생을 알리고 신의 가호를 기원
- 본래는 우지가미에게 참배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출산한 곳 근처의 신사를 방문

(4) 오쿠이조메(お食初) : 생후 100일(내지 120일)이 되는 날, 처음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

(5) 하쓰셋쿠(初節句)

: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절기

1) 모모노셋쿠(桃の節句)/히나마쓰리(雛祭り)

- 여아의 경우로 3월 3일에 실시
-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원래는 인형에 병이나 재난을 옮겨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냄
- 진열대에 천황과 황후, 궁중의 신하나 시녀를 배치
- 여아가 예쁘게 성장해서 행복하게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음
- 서민들의 화려한 궁정생활에 대한 동경을 엿볼 수 있음

2) 단고노셋쿠(端午の節句)

- 남아의 경우로 5월 5일에 실시
- 중국의 단오행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무사사회에서 행해짐
- 가정이나 공원에 **고이노보리(鯉のぼり)**를 내걸음
- 고이노보리는 인생의 험한 파도를 헤치고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음
- 실내에 갑옷, 투구, 활, 창, 칼을 장식하고 긴타로인형이나 모모타로인형을 장식

(6) 첫돌

(7) 시치고산(七五三)

- 11월 15일에 7·5·3세(남자는 5세와 3세, 여자는 7세와 3세) 어린이가 부모를 따라 신사 참배
- 남자 어린이는 하카마(袴), 여자 어린이는 후리소데(振袖)를 입음
- 이 날은 우지가미에게 그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
- 어린이의 존재를 우지가미와 지역공동체에 승인받고 축복받는 축제
- 무가사회에서 시작되어 에도시대에 서민계급에 퍼짐
- **가미오키(髪置き)** : 3살 남녀 어린이가 지금까지 깎았던 머리를 길러 끈을 묶는 것
- **하카마기(袴着)** : 5살 남아에게 처음으로 하카마를 입힘
- **오비토키(帯解き)** : 7살 여아는 지금까지 끈이 붙어 있는 유아용 기모노에서 오비(帯)를 묶는 후리소데로 갈아 입음. 오비나오시(帯直し), 오비하지메(帯始め), 히모오토시(紐落とし)라고 부르기도 함
-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되면서 가족행사로 행해짐

3. 성인식

(1) 전통적인 성인식

■ 남자의 경우

- 15세 경에 원복(元服)을 입고, 관(冠), 에보시(烏帽子), 혼도시(禪)를 차기도 함
- 겐푸쿠이와이(元服祝い), 에보시이와이(烏帽子祝い), 혼도시이와이(禪祝い)
- 성인식을 통해 젊은이는 노동, 행정, 혼인 등 여러 방면에서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됨
- 성년식 후 와카모노구미에 가입하고 요바이(夜這い)를 통해 혼전 성교가 공인됨

■ 여자의 경우

- 13세경 또는 초조(初潮)를 시작으로 성인식이 행해짐
- 속치마의 긴 천을 허리에 감는 고시마키(腰巻) 의례
- 가네(鉄漿)라는 액체에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가네쓰케(鉄漿つけ) 의례
- 혼인 가능한 연령이 되었음을 의미, 혼전 성교 공인

(2) 오늘날의 성인식

- 1948년부터 1월 15일을 성인의 날로 지정, 현재는 1월 둘째 월요일로 지정(국정 공휴일)
- 성인이 되는 나이는 남녀 만 20세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젊은이들을 공회당에 초청해 성인식 의례를 실시
- 남자들은 양장, 여자들은 후리소데를 입을
- 젊은이들이 너무 떠들어 행사 진행이 어렵다든지 지역과의 유대가 약화되면서 행사에 참가할 젊은이들이 없다는 지 하는 문제점이 있음

4. 약혼식과 결혼식

(1) 약혼식

- 전통적인 약혼식은 **유이노(結納)**라고 함
- 혼인으로 양가가 맺어지게(結びつく) 된 것을 축하해 선물을 보내는(納め合う) 의식
- 유이노품목으로 부부의 인연이 오래 지속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물건을 준비
- 노시아와비(熨斗鮑), 유이노킨(結納金), 가스오부시(勝男節), 스루메(寿留女), 곤부(子生む婦), 도모시라가(友白髪), 스에히로(末広), 영수증(お受け).
- 약혼반지나 시계, 건강진단서 등을 교환하기도 함

(2) 결혼식

- 예식스타일로 신전식(神前式), 기독교식, 진젠식(人前式), 불교식 등 다양
-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결혼식이 널리 행해짐(기독교, 신전식)
- 진젠식이나 불교식 결혼식의 비중은 낮음

■ 신전식(神前式) 결혼

- 신사에서 신도식으로 하는 결혼식
- 근대 이후 서양식 결혼을 본 따 신사에서 보급하기 시작
- 1900년 도쿄다이진구(東京大神宮)에서 올린 다이쇼천황의 결혼식이 보급의 계기
- 전전에 도시부에 퍼지고 전후에 농촌으로 확산

■ 기독교식 결혼

- 교회나 성당 등의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결혼식
- 호텔이나 예식장에서 마련한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음
- 종교적 의미보다는 종교적 엄숙성만을 빌려옴
- 일본인의 중층신앙(syncretism)의 경향을 잘 나타냄

▣ 피로연

- 호텔이나 전문 음식점이 주도하면서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음
- 주최 측에서 미리 초대객을 선정
- 신부는 피로연 동안 여러 번의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옴(お色直し)
- 초대객에게는 히키데모노(引き出物)라고 부르는 답례품을 줌

5. 장례와 제례

(1) 장례식

- 불교식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음
- 예전에 장례식은 소시키구미(葬式組)에 의해 치러짐. 오늘날은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음
- 철야(通夜) 시 유족이나 친지가 고인을 추모하면서 시신과 함께 하룻밤을 지냄
- 장례식에는 승려가 입장해서 독경을 하고 향을 피움
- 가장 일반적인 장법은 화장이지만 최근 납골당이 크게 증가
- 장례식을 치른 해에는 연하장이나 새해인사를 주고받지 않으며 신사참배도 하지 않음
-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물건을 보냄(香典返し)
-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 상업화된 불교식 장례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증가

(2) 제례

- 죽은 인간의 혼은 후손들의 공양으로 신(神)이나 부처(佛)가 된다고 믿음
- 제사를 연기(年忌), 연기공양(年忌供養), 연기법요(年忌法要)라고 부름
- 연기는 사후 33년째의 마지막 제사를 끝으로 종료되지만 50년째에 종료되기도 함
- 마지막 연기에는 불단에 모셔 두었던 위패를 태우거나 무덤 속이나 절에 모심

▣ 오봉 (お盆)

- 전통적으로는 음력 7월 15일
- 현재는 양력 8월 15일이 많음
- 죽은 조상들이 이승에 돌아온다고 믿는 불교의식에서 유래
- 선조를 모셔와 접대하고 다시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선조와 자손의 교류를 상징하는 행사

6. 야쿠도시와 도시이와이

(1) 야쿠도시 (厄年)

- 특정 연령을 재액이 많은 해라 하여 특별히 근신하는 관습
- 중국의 음양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근세 이후 민간에 널리 퍼짐
- 남자는 25세/42세/61세, 여자는 19세/33세/37세가 야쿠도시
- 남자의 42세와 여자의 33세는 가장 주의해야 하는 야쿠도시
- 재액을 쫓는 주술 행위를 함

(2) 도시이와이 (年祝い)

- 장수를 축하하는 의례
- 61세의 환갑(還暦), 70세의 고희(古稀), 77세의 희수(喜壽), 80세의 산수(傘壽), 88세의 미수(米壽), 90세의 졸수(卒壽), 99세의 백수(白壽) 등
- 환갑을 맞은 사람은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두건을 쓰고 붉은 색 방석에 앉음
- 예전에는 환갑(還暦)을 맞으면 가독의 지위를 양도하고 은퇴해 은거(隱居)
- 은퇴한 가정은 신사의 우지코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에 전념
-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장수 축하의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평가문제]

1. 다음 중 어린이의 탄생과 육아와 관련된 의례가 아닌 것은?
 ① 오시치야 ② 하쓰미야마이리 ③ 오쿠이조메 ④ 가네쓰케
2. 원래 이 행사는 우지가미에게 그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우지가미의 가호를 받고 자란 어린이의 존재를 우지가미와 지역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승인받고 축복을 받는 데서 시작되었다. 현재도 일본에서 널리 행해지는 이 의례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시치코산 ② 하쓰젯쿠 ③ 하쓰미야마이리 ④ 도시이와이
3. 전통사회에서 남자들이 치르는 성인식을 지칭하던 말이 아닌 것은?
 ① 겐푸쿠 이와이 ② 훈도시 이와이
 ③ 에보시 이와이 ④ 고시마키 이와이
4. 일본에서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신도식 결혼이 행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① 무로마치시대 ② 에도시대 ③ 메이지기 ④ 전시기

<정답> 1.④ 2.① 3.④ 4.③

[강의연습문제]

1. 다음 중 어린이의 탄생 및 육아와 관련된 의례가 아닌 것은?
 ① 오시치야 ② 하쓰미야마이리 ③ 오쿠이조메 ④ 가네쓰케
2. 원래 이 행사는 우지가미에게 그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우지가미의 가호를 받고 자란 어린이의 존재를 우지가미와 지역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승인 받고 축복을 받는 데서 시작되었다. 현재도 일본에서 널리 행해지는 이 의례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시치고산 ② 하쓰젯쿠 ③ 하쓰미야마이리 ④ 도시이와이
3. 다음 중 전통적인 성인식 의례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① 훈도시이와이 ② 에보시이와이 ③ 가네쓰케 의례 ④ 도시이와이
4. 단고노셋쿠에 어린이가 인생의 험한 파도를 헤치고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옥외에 내거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하쓰젯쿠 ② 고이노보리 ③ 시치고산 ④ 히나마쓰리 인형

<정답> 1.④ 2.① 3.④ 4.②

5장. 원시 및 고대

1. 구석기 및 신석기(조몬) 시대
2. 야요이시대
3. 야마토조정의 시대
4. 율령정치의 완성
5. 헤이안시대

1. 구석기 및 신석기(조몬) 시대

(1) 구석기시대

- 수렵과 어로로 생활하는 채집경제
- 작은 집단을 이루고, 바위그늘이나 동굴 속에서 생활, 간단한 타제석기를 사용

(2) 신석기시대 - 조몬(縄文)시대 (수천년전 ~ 기원전 3C)

- 조몬(縄文) - 토기 표면의 새끼줄 문양을 의미
- 마제석기와 토기의 사용
- 채집경제의 단계
- 수혈식주거 : 지면에 기둥을 세우고, 풀과 나무로 지붕을 덮고, 중앙에 화덕을 만들
- 패총: 조개껍질, 짐승이나 물고기 뼈를 한곳에 버림, 오모리(大森, 지금의 도쿄)패총이 유명
- 주위보다 약간 높은 대지나 산기슭에 수혈식주거가 모여 작은 마을 형성,
- 빈부 차이가 없음
- 태양, 달, 별, 비, 산, 강 등의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 주술 행할 때 흙인형(土偶)사용

2. 야요이시대

(1) 야요이(弥生)문화

- 야요이시대 : 야요이토기가 사용된 기원전 3C경부터 기원후 3C 무렵까지
- 한반도와 중국에서 수전경작(벼농사)과 금속기(청동기와 철기)가 서부 일본지역에 전파, 점차 동부 일본으로
- 물을 얻기 쉬운 저지대에 모여 논이 가까운 곳에 수혈식 주거를 만들어 정착
- 음식물 저장위해서 고상식(高床式) 창고 세움.
→ 인구증가하고 마을이 커짐.
(야요이시대 대표적 마을: 시즈오카현 도로(登呂)유적, 사가현 요시노가리(吉野ヶ里)유적)
- 빈부와 신분의 차이가 생김
- 금속기 : 대륙에서 온 것도 있지만, 일본에서도 제작
 - 청동기 : 동검, 동모, 동탁, 동경 등, 보물이나 제사도구로 사용
 - 무기나 공구로 사용하였던 철기의 수는 적음
 - 실제생활에서는 석기나 목기를 사용

※ 조몬토기와 야요이토기의 비교

조몬토기	야요이토기
색깔이 검은빛을 띠	붉은빛을 띠
새끼줄 문양을 지닌 것이 많음	직선문양 등 문양이 간단함
두껍지만 부드럽고 잘 깨어짐	얇지만 딱딱하고 잘 깨어지지 않음
손으로 반죽하여 형태를 만들	물레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
동부 일본에서 많이 출토됨	서부 일본에서 많이 출토됨

※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비교

	조몬시대	야요이시대
연대	수천 년전부터 기원전 3C경까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음	기원전 3C경부터 기원후 3C까지 수백 년 동안으로 비교적 짧음
작업	수렵이나 어로, 자연물의 채집	수렵과 어로외에 벼농사가 시작됨
도구	수렵, 어업용의 석기(마제석기), 골각기, 조몬토기	벼농사 작업에 필요한 석기, 목기, 청동기, 철기, 야요이토기
주거	수혈식 주거	수혈식 주거, 고상식 창고
사회	혈연관계가 있는 작은 집락 사냥감을 쫓아서 이주하는 생활 평등한 생활	큰 마을에서의 생활 벼농사에 편리한 저지대에 정착생활 영위 빈부나 신분의 차이 발생

(2) 소국의 분립과 야마타이국(邪馬台國)

- 계급이 분화하고 정치적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배자(호족)를 중심으로 소국이 난립
→ 『후한서』 「동이전」에 의하면 왜국대란(倭國大亂)의 상황
-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킨 것이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의 여왕 히미코(卑彌呼)
- 『위지(魏志)』 「왜인전」- 3세기 전반에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가 추대되어 왜국대란이 종식
- 약 30여 개의 소국을 통합
- 히미코(卑彌呼)는 무녀 내지는 제사장으로, 아직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제정일치의 단계
→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결합
- 야마타이국의 위치 - 북규슈설과 야마토설 (고대사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

3. 야마토조정(또는 야마토 왕권)의 시대

(1) 야마토 조정(또는 야마토 왕권)과 고분문화

- 야마토조정: 야요이시대 야마토지방(나라와 오사카지역)의 소국들이 연합하여 출현, 이 여러 호족의 정부
- 최고 수장인 대왕(大王)을 중심으로 호족층이 결집하여 성립 → 호족들의 연합정권
- 우지(氏)·가바네(姓)제 - 호족층을 조직하는 정치적 신분제도
호족들은 우지를 칭하고 조정으로부터 가바네를 부여받아 토지와 백성을 지배함.

1) 우지(氏)

- 호족 각각의 동족집단으로 씨족 내지 일족을 가리키는 개념
- 혈연적으로는 서로 다른 집단이나 의제적으로 하나의 우지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상계보와 동족 의식을 공유하며 하나의 동족집단임을 자처하는 정치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단위체
- 일족의 수장인 우지노카미(氏上)와 일족의 구성원인 우지비토(氏人)로 구성되어, 우지노카미가 우지비토를 거느리고 세습적인 직무를 담당
- 실제 노동은 주로 그들 밑에 있는 가키베(部曲)와 노비가 담당

2) 가바네(姓)

- 야마토 조정이 각 우지들에게 수여한 호칭으로, 각 우지가 야마토 조정 내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
- 대왕가문과의 친소관계, 세력이나 지위, 업무 등에 따라 각각 다른 호칭을 수여
- 대왕이 가바네를 하사함으로써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분질서가 존재하며, 또한 그들이 그 신분질서에 복속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
⇒ 우지·가바네제에 의해 편성된 호족들이 대왕 밑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치를 담당

• 베민(部民)제 - 인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원리

- 야마토 조정은 인민을 집단 단위로 지배하였는데 그 집단을 베(部)라고 함
- 베에 속한 인민을 베민(部民)이라고 함
-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집단은 중앙 조정에 특별히 배속
- 특별한 기술이 없는 대부분의 농민은 자신이 사는 거주 지역에 편제되어 조정의 지배를 받았는데, 야마토 조정은 호족들에게 그 지배를 위임함
- 다만 호족들에게 지배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왕권에 복속한 백성

• 같은 시대에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 등의 고분들이 출현 → 고분시대라고도 함

(2) 대륙문화의 영향

- 왜(倭)가 4C 후반 한반도에 병력파견하여 고구려와 싸움 (광개토대왕의 비문)
- 5C경 야마토조정은 중국의 남조에 대하여 사신을 빈번히 파견
- 도래인(渡來人) :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살게 됨.
대륙의 선진기술과 문화를 전함(토목공사, 양잠 등의 기술, 한자와 유교(5C까지), 불교(6C중엽까지 백제))
- 야마토조정에서는 한자 사용법에 익숙한 도래인에게 조정의 기록을 맡기거나 재정을 담당하도록 함.

(3) 아스카문화

1) 야마토조정의 동요

- 호족들의 연합정권인 야마토 조정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
- 호족들의 세력다툼, 특히 모노노베씨(物部氏)와 소가씨(蘇我氏)가 다투어 소가씨 승리
- 동요의 이유
 - ① 중앙 호족의 분열과 항쟁
 - ② 지방 호족의 반란
 - ③ 대왕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항쟁
- 스이코(推古)천황이 즉위, 593년 천황의 조카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섭정이 됨.

2) 쇼토쿠태자

- 혼란을 극복할 방법으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할 것을 모색
⇒ 구체화된 첫 걸음이 관위십이계(冠位十二階) 제도와 헌법십칠조(憲法十七條)

- ① 관위십이계제도 : 관인(官人)의 서열화
 - 덕(德)·인(仁)·예(禮)·신(信)·의(義)·지(智)의 여섯 종류를 각각 대소로 나누어 12가지로 구분하여, 조정에 출사하는 호족과 관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지위의 고하를 구분한 것
 - 관위의 수여가 우지(氏)가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승진도 가능
→ 호족을 관인으로 편성해가는 첫걸음
- ② 헌법십칠조
 -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관인에 대한 유교적·불교적 훈계
 - 관인들에 대한 도덕규범이자 복무규율의 성격이 강함
 - 왕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구축을 목표로 한 것
 - 호족을 관료로 편성함과 동시에 그것을 제정한 집권자를 호족층을 초월한 존재로 확립하려 한 의도
⇒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제정하여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아나감

- 불교를 깊이 신앙하고 사람들에게 권장
⇒ 그 무렵 수도인 아스카지방(나라분지의 남부)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일어남 (아스카문화)

3) 아스카문화의 대표적인 작품

- ① 건축 : 호류지(法隆寺, 나라현), 사천왕사(오사카시)
- ② 조각 : 호류지의 석가삼존상과 백제관음상
- ③ 공예 : 호류지의 다마무시노즈시(玉虫厨子)

(4) 다이카(大化)개신

- 쇼토쿠태자 사망후 소가씨의 독재정치
- 645년 나카노오에황자(中大兄皇子) : 나카도미노 가마타리(中臣鎌足)와 짜고 소가씨 멸망시키고 정치개혁 단행
-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를 만들려 함
- 개신정치의 중요방침
 - ① 호족의 사지사민(私地私民)을 폐지하여 공지공민(公地公民)으로 한다.
 - ② 지방의 행정구획을 정하고 지방관을 임명한다.
 - ③ 호적과 계장(計帳)을 만들고 반전수수법(班田收授法)을 정하여 전국의 인민과 토지를 지배한다.
 - ④ 국가의 통일적인 세제를 정비한다.

(5) 천황지위의 강화

- 다이카개신후에도 호족들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은 아님
- 중앙집권국가가 완성될 때까지는 다이카개신 후 50년 이상이 걸림

※ 중앙집권국가의 성립과정

연대	주요사건	결과
645년	다이카개신	중앙집권국가로의 방침을 제시함
663년	나카노오에 황자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 당나라 수군에 패배함 (백촌강전투)	이후, 내정에 주력함
668년	나카노오에 황자가 즉위해 덴지천황이 됨 (오미(近江)의 오쓰(大津)로 천도함)	덴지천황이 영(令)과 호적을 만들게 하여 개신정치를 진전시킴
672년	오아마(大海人) 황자가 오토모(大友) 황자와 싸워 승리함 (임신(壬申)의 난)	오토모 황자 측에 가담하였던 유력 호족들이 몰락함.
673년	오아마황자가 덴무천황이 되어 황족이 조정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	호족세력이 약화, 천황의 권위와 지위가 강화됨
701년	다이호율령(大宝律令)의 제정 (문무(文武)천황)	중앙집권국가의 체제가 정비됨

4. 율령정치의 완성

※ 고대 천황제 국가로의 전개과정

① 덴지(天智)천황[나카노오에(中大兄)황자]

- 668년에 오우미령(近江令)을 제정
- 최초로 전국적인 호적인 경오년적(庚午年籍)도 작성

② 덴무(天武)천황 - 684년 「8색(色)의 성(姓)」의 제정

- 가바네(姓) 질서를 새롭게 정비
- 기존의 가바네가 고정된 것에 반해 천황에 대한 충성 등에 의해 가바네가 승진
- 마히토(真人) · 아손(朝臣) · 스쿠네(宿禰) · 이미키(忌寸) · 미치노시(道師) · 오미(臣) · 무라지(連) · 이나기(稻置)의 순서로 서열화

→ 우지 · 가바네 제도가 관료제에 대응하여 변모된 것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확충되어 간 것

③ **지토(持統)천황** - 689년에 아스카기요미하라령(飛鳥淨御原令)을 반포

- 이것은 중국의 수·당을 모법(母法)으로 한 일본 최초의 법전

④ **문무(文武)천황** - 701년에 최초의 율령인 다이호율령(大宝律令)을 완성

(1) 율령의 내용

- 다이카개신의 방침은 율령으로 구현됨 - 율(오늘날의 형법), 영(행정법과 민법)

1) 율령정치 : 율령에 입각한 정치, 701년에 제정된 이후 2C 넘게 지속됨

중앙 (2관과 8성)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정관 : 행정을 담당 • 신기관 : 국가의 제사나 신사의 관리를 담당 • 8성 : 태정관 관할로 각각 정치업무를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을 국(国), 군(郡), 리(里)로 나누고, • 국에는 국사를 파견, 그 밑의 군사는 지방호족을 임명 • 규슈에는 다자이후(大宰府)를 둠 (외교나 방위임무)

2) 신분제도 : 크게 양민과 천민으로 나눔

양민	귀족 등의 유위자	위는 정일위, 종일위 등 30계로 나누어짐
	공민	일반 농민들로 세금이나 병역을 부담함
	품부 · 잡호	조정의 지배하에 수공업에 종사함
천민	노비	조정, 귀족이나 사사, 호족의 소유로 매매되기도 함.

3) 토지제도 : 반전수수법이 시행

- ① 6년마다 호적을 제정하여 인구를 조사함
- ② 6살 이상의 남자에게 2반(약 23아르)의 구분전을 분배함
- ③ 여자에게는 남자의 2/3에 해당하는 구분전을 분배함

4) 조세제도

- ① 조(租) · 용(庸) · 조(調)
 - 조(租)는 토지세이며,
 - 용(庸)과 조(調)는 주로 성년 남자에게 부과된 인두세
 - 용(庸) -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노역(勞役)을 하는 것
 - 조(調) - 지방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
- ② 잡요(雜徭) - 지방관인 국사(国司)의 책임 하에 지역 관내의 토목공사나 지방 관청의 잡무를 맡아 봄
- ③ 병역
- ④ 출거(出舉) - 국가가 봄에 벼를 빌려 주고 가을 수확 후에 이자를 붙여 거둬들이는 제도
 -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오히려 농민에게 조세 못지 않은 커다란 부담이 됨
 - ⇒ 이러한 조세를 부담한 것은 구분전(口分田)을 받은 일반 농민인 공민(公民)

(2) 나라시대 (701년 ~ 794년까지 약 80년)

- 헤이조쿄(平城京) : 710년 당나라 수도 장안을 모방하여 조성

1) 나라시대의 사회상

- ① 수도를 중심으로 도로조성 및 역 제도 정비
- ② 각지의 광산물이나 특산물이 수도로 운반되었고, 시장도 열림
- ③ 708년 일본 최초의 화폐가 만들어짐 <와도카이친(和銅開珎)>
- ④ 조정은 군대를 보내어, 도후쿠지방의 에미시(蝦夷)등의 변경지방도 개척

2) 쇼무(聖武)천황의 불교장려 : 각 국마다 고쿠분지(国分寺)와 고쿠분니지(國分尼寺)를 세우게 함.
 나라에 도다이지(東大寺)를 세우고 금동으로 만든 대불을 건립하여 천황의 힘을 과시

- 3) 공지공민제의 변질 : 보통 농민은 구분전의 수확만으로 생활이 힘들고, 노동동원과 병역부담도 큼
- ① 구분전의 부족 : 나라시대 말기. 가난한 농민은 구분전을 팔거나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
 - ② 개간의 장려 : 새롭게 개간한 농토(간전)의 사유를 인정 ⇒ **장원(莊園)**이 발생
 - ③ **삼세일신법(三世一身法, 723년)** : 간전은 3대에 걸쳐서, 황폐하게 된 농지를 회복시켰을 경우에는 본인 1대에 한해 사유를 인정
 - ④ **간전영년사재법(墾田永年私財法, 743년)** : 간전은 영원히 사유를 허가한다고 하는 법

(3) 덴표문화 : 나라시대의 문화는 쇼무천황 때 가장 번성하여 이 무렵의 연호를 따

- 1) 덴표문화의 특색
- ① 견당사의 파견(630년~894년) : 당나라 문화의 영향이 강함
 - ② 천황이나 귀족이 불교를 중시하였음 : 불교중심의 문화
 - ③ 조정의 힘이 강화됨 : 천황과 귀족이 만들어 낸 문화
- 2) 나라시대에 간행된 책
- ① 역사서 :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 - 국가성립을 황실을 중심으로 정리
 - ② 지리서 : 풍토기(風土記) - 조정이 전국의 지세와 산물을 보고 하게 함
 - ③ 와카슈 : 만요슈(万葉集) - 천황, 귀족, 농민의 노래 약 4,500수를 수록

5. 헤이안시대

(1) 율령정치의 문란

율령정치의 형태	주요내용	나라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
천황	불교로 나라를 안정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쟁탈전이 전개됨 절의 건립, 불상제조가 재정을 압박함 승려가 정치에 간여함
귀족	후지와라씨와 반후지와라 세력간의 대립	귀족의 세력쟁탈
	사리사육의 총족에 공직을 악용함	국사의 태만과 부정부패
공지공민제 (반전수수법)	간전영년사재법(743년)	귀족과 사사의 사유지가 확대됨 반전수수제가 시행에 차질을 빚음
세금, 노역, 병역	천재, 기근, 전염병이 농민의 고통을 유발	도망, 유랑 농민이 증가, 귀족과 사사의 사유지에 유입됨
	변경의 정복, 지배	도호쿠지방에서 에미시가 반란을 일으킴

(2) 헤이안시대의 정의

: 794년 간무(桓武) 천황은 헤이안쿄(지금의 교토)로 수도를 옮겨서 율령정치의 재건하고자 함.
이후 약 400년 동안을 헤이안시대(平安時代)라 한다.

(3) 간무천황의 정치

- ① 국사의 부정을 단속하기 위해 노력
- ② 지방호족의 자제들을 병사로 삼아 군단을 강화
- ③ 반전수수법을 6년에서 12년마다 행하는 것으로 변경
- ④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坂上田村麻呂)를 정이대장군에 임명해 도호쿠지방의 에미시 정벌

- 천태종 : 사이초(最澄)가 히에이잔(比叡山)에 엔라쿠지(延曆寺)세움
- 진언종 : 쿠가이(空海)가 고야산(高野山)에 곤고부지(金剛峰寺)세움

※ 간무(桓武)·사가(嵯峨)천황의 개혁정치

1) 간무천황의 개혁정치

① 농민생활 안정책

- 농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잡요의 일수를 반으로 줄였으며 출거의 이자도 낮춤
- 반전제(班田制)도 현실에 맞추어 확실히 실시할 수 있도록 12년에 1번으로 변경

② 지방정치 개혁

- 율령제 지배의 근간인 지방지배의 해이함을 막기 위한 것
- 준사쓰시(巡察使)를 파견하여 지방행정을 감독
- 새롭게 영외관(令外官)인 가계유시(勘解由使)를 설치하여 지방관 교체시의 부정을 방지

2) 사가천황의 개혁정치

- 영외관인 구로도(藏人)와 게비이시(檢非違使)를 설치
(구로도는 천황의 비서관이며, 게비이시는 도성 안의 경찰과 재판 업무를 담당)
- 『고닌격식(弘仁格式)』의 편찬 - 다이호율령 제정 이후의 격식(格式)을 집대성한 것
(격식이란 율령을 보완하는 것으로, 격은 율령의 규정을 수정한 것이며 식은 시행세칙)
⇒ 영외관(令外官)은 영(令)의 규정에 없이 새롭게 설치된 관직으로, 율령관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회의 변화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4) 장원의 발달과 섭관정치

1) 장원의 성립과 발달

- 유력 농민이나 호족들이 각지에서 활발히 개발을 하여 사유지를 확장
- 자신의 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의 귀족이나 사사(寺社)에게 바치고 그들을 영주로 모심
→ 이를 기진(寄進)이라고 함
- 귀족이나 사사는 자신들의 땅이 된 장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하고 관리들의 출입까지 막음
→ 이를 불수불입권이라고 하는데, 이로써 국가권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완전한 사유지가 됨
- 기진한 사람은 명의를 가진 귀족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에, 자신은 장원을 관리하는 자리인 장관(莊官)에 올라 현지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
- 지방관이 관리하는 나라의 땅인 공령(公領)도 율령제가 붕괴되면서 지방관 등에 의해 장원처럼 변모
⇒ 10C 이후 반전수수법은 미 실시, 공지공민제의 붕괴, 공적 영역의 사유화

2) 후지와라씨의 섭관정치(攝關政治)

- 당시 정치의 중심에 있던 후지와라씨는 많은 장원을 기진받아 번영함
- 섭관정치(攝關政治) - 후지와라씨가 천황의 외척으로서 상례화된 섭정(攝政)과 관백(關白)의 지위를 독점하여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는 정치형태. 9C 후반부터 10C 초에 걸쳐 확립되기 시작
- 후지와라노 요리후사(藤原良房)가 866년 정식으로 섭정이 되고 그 후 그의 양자인 후지와라노 모토쓰네(藤原基經)가 관백이 된 후, 섭정과 관백의 지위에는 모토쓰네 자손의 장손만이 대대로 임명됨
- 10C 후반에서 11C가 섭관정치의 전성기: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와 아들 후지와라노 요리미치(藤原頼通)
⇒ 율령국가가 형해화(形骸化)되어 국가권력이 사적인 권력에 의해 대치되는 결과를 초래

※ 섭관정치의 특색

- ① 후지와라씨 가문에서 정치가 행하여지고, 조정은 의식이나 행사장소가 됨
- ② 후지와라씨의 생활과 공공의 정치가 구별하기 어려워짐
 - 섭정(攝政) - 천황이 어릴 때 천황을 대신하여 정무를 집행하는 지위
 - 관백(關白) - 천황이 성인이 된 후 천황을 도와서 정무를 행하는 지위

(5) 헤이안문화

1) 국풍문화 : 894년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가 건당사 파견 중지 건의후 건당사가 정지한 뒤로 일본풍의 문화가 발달함. 후지와라씨의 섭관정치가 시행되던 무렵에 가장 번영

- ① 주거 : 신덴즈쿠리(寢殿造)
- ② 의복 : 男 - 의관속대(衣冠束帶), 女 - 여방장속(十二巢)을 정장으로 사용
- ③ 병풍 : 일본의 풍경, 풍속을 표현한 야마토에(大和繪)를 그림

2) 가나문자발명 - 문학 발달

※ 헤이안시대의 주요 문학작품

작품명	완성시기	작자	내용 및 특색
다케도리모노가타리(竹取物語)	9~10C	(불명)	가구야히메가 주인공
도사일기(土佐日記)	10C	기노 쓰라유키	도사에서 교토까지의 여행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11C	무라사키 시키부	히카루겐지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
마쿠라노소시(枕草子)	11C	세이 쇼나곤	여성이 귀족생활을 묘사한 수필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10C	기노 쓰라유키 등	일본 최초의 칙찬와카슈
에이가모노가타리(榮華物語)	11C	(불명)	후지와라 미치나가의 영화를 중심으로 한 역사소설

3) 정토신앙 - 아미타당이 많이 세워짐

후지와라 요리미치가 세운 묘도인(平等院) 봉황당(鳳凰堂)

오슈 후지와라(奥州藤原)가 세운 추손지(中尊寺)의 곤지키도(金色堂)

(6) 무사의 발흥과 성장

- 무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 장원의 지주나 농민은 자위를 위해 무장
- 동량(棟梁) : 무사의 우두머리, 겐지(源氏)와 헤이씨(平氏)
- 겐지 : 11C후반 도호쿠지방에서 발생하나 2번의 호족의 반란을 진압해 명성
- 후지와라 요리미치 이후 후지와라씨의 세력이 쇠퇴하고 고산조(後三条)천황이 즉위, 장원정리를 비롯한 정책을 통하여 정치를 혁신하려 함
- 원정(院政) : 시라카와천황(고산조천황의 아들)이 시작, 천황이 상황이 된 뒤에도 정사를 보는 것
- 호겐의 난(1156, 保元の乱), 헤이지의 난(1160, 平氏の乱)

(7) 다이라노 기요모리와 헤이씨정권

- 호겐, 헤이지의 난의 결과,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가 미나모토노 요시토모(源義朝)를 제압하고 헤이씨가 무사로서는 처음 정권을 장악

※ 헤이씨정권의 특색

- ①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무사로서는 최초로 태정대신이 됨
- ② 다이라노 기요모리는 효고 항구를 수리하여 중국의 송나라와 무역을 행함
- ③ 전국의 약 절반에 달하는 지방을 지배하고 많은 장원을 손에 넣음

▣ 주요용어

우지(氏) · 가바네(姓)	우지란 호족 각각의 동족집단으로 씨족 내지 일족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가바네란 야마토 조정이 각 우지들에게 수여한 호칭이다.
다이카개신(大化改新)	7세기 중엽의 정치개혁으로, 당의 율령제를 모범으로 하여 공지공민제에 의한 중앙집권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
반전수수법(班田收授法)	율령국가가 생활의 기반을 제공하고 징세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민들에게 경작지를 나누어 주었던 제도이다.
섭관정치(摂関政治)	후지와라씨(藤原氏)가 천황의 외척으로서 섭정과 관백의 지위를 독점하여 정치의 실권을 장악한 정치형태를 가리킨다.
장원(莊園)	귀족과 사사(寺社) 또는 지방호족의 사유지로 불수불입권(不輸不入權)을 확보하여 갔다.

▣ 정리하기

- 야마토조정의 성립에 즈음하여 새로운 형태의 고분들이 출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이다. 이러한 고분들은 야마토조정의 정치적 지배력의 성장과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야마토조정을 다른 말로는 고분시대라고도 한다.
- 스이코(推古)천황의 섭정인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관위십이계(冠位十二階)**의 제도를 실시하고 **헌법십칠조(憲法十七條)**를 제정하여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아나갔다고 하는데, 관위십이계가 관인을 서열화한 것이라면 헌법십칠조는 관인의 복무규율이자 도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 나카노오에황자(中大兄皇子)는 다이카개신(大化改新)을 단행한 천황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려 하였다. 이후 문무(文武)천황 때에 다이호율령(大宝律令)이 제정되어 율령국가가 제도적으로 확립된다.
- 율령국가의 기반인 공지공민제는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는 삼세일신법(三世一身法)·간전영년사재법(墾田永年私財法) 등에 의해 점차 붕괴되어 간다.
- 간무(桓武)천황은 지금의 교토인 헤이안쿄(平安京)로 천도하여 동요하는 율령국가를 근본적으로 재건하려는 개혁정치를 펼쳤는데, 그러한 개혁정치는 이후 사가(嵯峨)천황에게까지 이어진다.
- 후지와라씨(藤原氏)가 천황의 외척으로서 섭정(摂政)과 관백(関白)의 지위를 독점하여 정치의 실권을 행사하는 정치형태가 등장한다. 이를 섭관정치(摂関政治)라고 하는데,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에 걸쳐 확립되기 시작하여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로써 율령국가의 조직은 형해화되어 버리고 꺾데기만 남게 되어 국가권력이 사적인 권력에 의해 대치된다.
- 10세기 이후 귀족과 사사(寺社) 또는 지방호족의 사유지로 불수불입권(不輸不入權)을 확보한, 국가권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완전한 사유지인 장원(莊園)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지방관이 관리하던 나라의 땅인 공령(公領)도 지방관 등에 의해 장원처럼 변질되어 공지공민제는 붕괴하게 된다.

[평가문제]

- 일본의 선사시대를 연대순으로 맞제 나열한 것은?
 - ① 선토기시대 - 조몬시대 - 야요이시대 - 고분시대
 - ② 조몬시대 - 야요이시대 - 선토기시대 - 고분시대
 - ③ 야요이시대 - 선토기시대 - 야요이시대 - 고분시대
 - ④ 조몬시대- 선토기시대 - 야요이시대 - 고분시대

6장. 중세

▣ 학습목표

1. 중세사회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마쿠라막부의 지배관계의 구조인 봉건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가마쿠라막부의 멸망에서 남북조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무로마치시대의 슈고다이묘(守護大名)와 그들이 만들어낸 지배체제인 슈고영국제(守護領國制)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소(惣)·소촌(惣村)의 형성으로 대표되는 무로마치시대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목차

1. 중세적 세계의 형성
2. 가마쿠라시대
3. 무로마치시대
4. 무로마치시대의 산업과 사회
5. 전국시대
6. 무로마치문화

1. 중세적 세계의 형성

(1) 중세 탄생의 배경 중세적 세계의 형성

- ① 경제적 배경 - 국가의 통제와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유지인 장원의 발달
- ② 사회적 배경 - 기존의 신분제도의 틀을 무너뜨린 무사계급의 성장
- ③ 정치적 배경 - 원정(院政)의 등장

⇒ 무사의 등장이 장원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장원의 발달이 무사의 대두를 초래

(2) 무사의 등장

1) 재지영주(在地領主)

- 무사의 사회적 존재 형태
 - 현지의 유력 토호나 유력 농민의 자제
 - 농민들을 지휘하여 농업 경영을 행하며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는 무장해서 대항
 - 수렵이나 어로 등에 종사하는 비농민층이 무사로 성장하기도 함
- ⇒ 이들이 각지에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무사계급으로 성장

2) 군사귀족

- 나라(奈良)시대 이래 동북(東北)지방의 에미시(蝦夷) 정벌 사업을 추진
 - 중앙에서는 출세할 수 없는 귀족, 특히 천황의 자손으로 미나모토(源) 또는 다이라(平)라는 성을 받은 사람들이 장군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음
 -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동국(東國)지방에 잔류하여 무사로 성장
 - 이들을 군사귀족이라고 하는데, 고귀한 신분 출신이므로 무사들의 신망을 받아 무사단을 형성
 - 무사세력의 2대 계보
 - ① 간무(桓武)천황의 후손인 간무 헤이시(桓武平氏)
 - ② 세이와(清和)천황의 후손인 세이와 겐지(清和源氏)
- ⇒ 무사란 출신에 관계없이 무력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며 동국지방을 기반으로 성장

(3) 원정(院政)

- 11세기 후반 시라카와상황(白河上皇)이 원정(院政)을 시작
 - 후지와라씨의 섭관정치 극복

- 원정이란 퇴위한 천황인 상황(上皇)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행하는 것
- 상황이 살고 있는 곳을 원(院)이라 하였기에 상황이 주도하는 정치 형태를 원정이라고 함.
- 상황 권력의 근거는 천황 집안의 장로(長老), 즉 천황의 아버지라는 것에 기인
- 원정시대에는 권력 강화나 안정에 무사들의 힘을 이용
 - 무사세력이 성장하는 계기
- 12세기 중엽 호겐(保元)의 난과 헤이지(平治)의 난을 통해 무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
- 두 사건의 승리자인 헤이시(平氏) 무사단의 수장인 다이랴노 기요모리(平清盛)가 정권을 장악
 - ⇒ 헤이시정권(平氏政權)의 수립

2. 가마쿠라시대

(1)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의 성립

- 권력과 이익이 헤이시 일족에 집중
 - 고시라카와(後白河)법황이나 귀족·대사원 등의 반감
- 헤이시정권은 기존의 국가권력에 기생하여 귀족정권화
 - 무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 무사계급의 지지를 상실
- 겐지(源氏)와의 5년에 걸친 내란 끝에 겐지가 승리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 ⇒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막부의 성립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① 슈고(守護)와 지토(地頭) 설치

a) 슈고

- 각 국(国)마다 유력 고케닌(御家人)이 임명됨
- 해당 국의 고케닌을 통솔하며 경찰과 군사업무를 담당

b) 지토

- 장원과 공령(公領)에 설치되어 고케닌이 임명됨
- 연공(年貢)을 징수하고 치안 유지를 담당
 - ⇒ 토지를 매개로 한 지배관계의 구조인 봉건제의 형성을 상징

② 가마쿠라(鎌倉)에 본거지를 두고 무가정치의 기초를 엮.

③ 1192년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에 임명

(2) 가마쿠라막부의 조직

쇼군	싯켄	중앙 (가마쿠라)	사무라이도코로(侍所) : 코케닌의 감독 · 군사 · 경찰업무 구문조(公文所, 이후 만도코로(政所)) : 막부의 재정업무 문추조(問注所) : 소송 · 재판업무 효조슈(評定衆) : 중신의 합의에 의한 정치
		지방	로쿠하라탄다이(六波羅探題) : 서국의 감독, 조정 감시, 교토 경비 슈고 : 국내 고케닌의 통솔, 경찰업무 지토 : 장원 · 공령의 관리, 연공징수 진서봉행(鎮西奉行) · 오주총봉행(奥州總奉行) : 규슈 · 도호쿠지방의 단속

(3) 가마쿠라시대의 정치

- 요리토모 사후 그의 아들 요리이에(源頼家)와 사네토모(源実朝)가 쇼군이 됨
- 막부의 실권은 요리토모의 처 마사코(政子)와 그의 아버지 호조 도키마사(北条時政)가 장악

※ 가마쿠라막부 초기의 상황

- 초기의 가마쿠라 막부는 아직 전국을 지배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함
- 교토에서는 여전히 원정(院政)이 행하여지고 있었으며 조정에도 반막부세력이 존재
- 슈고와 지토에 대한 지방관이나 장원영주의 반발
 - ⇒ 가마쿠라와 교토의 두 정권이 전국을 이원적(二元的)으로 지배
 - [공가(公家)와 무가(武家)의 이원지배체제(二元支配體制)]

1) 싯켄정치 : 사네토모의 암살후 호조씨는 싯켄(執權, 만도코로와 사무라이도코로의 장관)이 되어 막부를 움직임
가마쿠라막부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

2) 조큐(承久)의 난

① 원인과 경과

- 쇼군(將軍)의 외척인 호조(北条)씨가 쇼군과 유력 고케닌들을 제거하여 막부의 실권을 장악
- 친황 친정(親政)을 꿈꾸던 고토바(後鳥羽)상황이 막부의 혼란을 틈타 막부 타도 명령을 내림
- 무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막부측에 가담한 결과, 1개월도 안 되어 난은 평정됨

② 전후 처리와 결과

- 막부는 상황측에 가담한 귀족과 무사의 영지를 몰수하여 전공을 세운 고케닌들을 새로이 지토로 임명
- 교토에 조정을 감시하고 서국(西國)의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며 고케닌들을 통솔할 기구인 로쿠하라탄다이(六波羅探題)를 설치
- 막부의 권력기반은 매우 강화된 반면, 조정의 위신과 세력은 현저히 실추됨
 - ⇒ 공가와 무가의 이원지배체제의 해소

3) 싯켄정치(執權政治)의 확립

- 조큐의 난을 승리로 이끈 호조 야스토키(北条泰時)의 활약

① 미숙한 단계에 있었던 막부의 통치기구를 새롭게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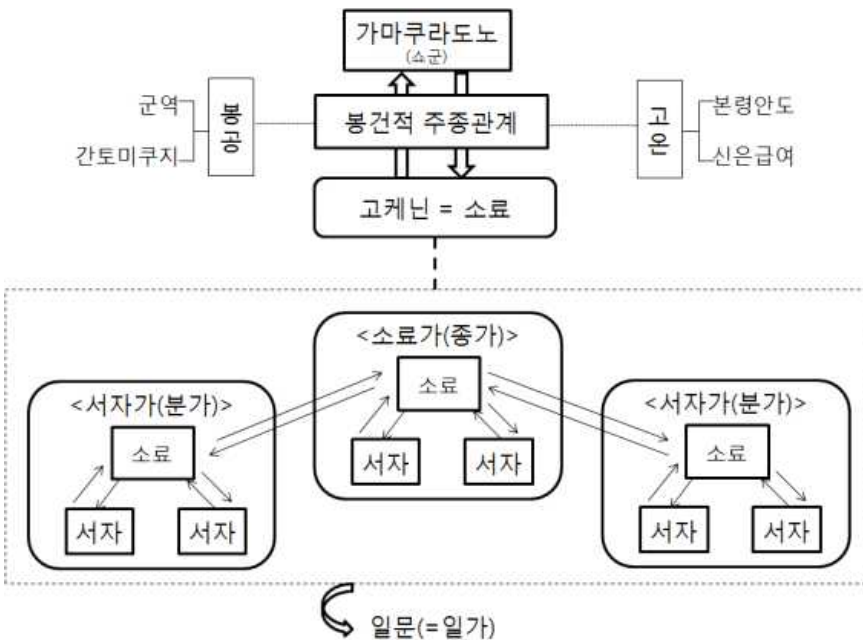
② 새로운 지배 원리로서 막부의 기본법인 고세이바이시키키모쿠(御成敗式目)를 제정 (1232)

→ 법과 기구에 의한 호조씨의 지배체제를 확립

⇒ 호조씨가 막부를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쇼군의 권력을 제한

(4) 가마쿠라시대의 사회와 문화

※ 가마쿠라막부의 구조 - 봉건제의 구조



- 1) 봉건제도의 시초 : 쇼군(요리토모)과 고케닌(무사)사이에 토지를 매개로 한 주종관계
 - 고케닌: 쇼군과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
 - 고온(御恩) : 고케닌은 쇼군으로부터 보호를 받음
 - 호코(奉公) : 고케닌은 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의무
- 2) 무사는 부케즈쿠리(武家造)에 살고, 일족의 우두머리인 소료(惣領)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영지를 지배
- 3) 농업과 수공업, 상업이 발달
 - 기나이(畿内)지방을 중심으로 쌀과 보리의 이모작이 시작. 송나라 동전이 사용
- 4) 신불교 발생 : 호넨의 정토종, 신란의 정토진종, 니치렌의 법화종, 선종은 에이사이의 임제종, 도겐의 조동종
- 5) 문학 : 무사들의 활동을 주로 묘사한 군기물(軍記物)이 중심.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가 대표적.
- 6) 조각 : 운케이(運慶) · 가이케이(快慶)의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
 - cf) 가마쿠라시대에 송에서 주자학, 선종, 수묵화, 동전 등이 일본에 전해짐

※ 고케닌 계급의 동요

- 분할상속에 의해 영지가 세분화되고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고케닌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
 - 장자에게 모든 영지를 상속하는 단독상속으로 이행
-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동전을 수입하여 화폐로 사용
 - 화폐경제로의 급속한 이행
- 오랜 기간 농업생산물에만 의존해 온 고케닌들은 화폐경제에 대처하지 못해 몰락하는 경우도 발생
 - ⇒ 가마쿠라 막부의 정치적 · 군사적 기반인 고케닌 계급이 동요

(5) 원(元)나라의 일본 침공

- 원이 복속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침공
 - 분에이노에키(文永の役), 고안노에키(弘安の役)
- 가미카제(神風)라 불린 태풍과 가마쿠라 무사들의 분전, 그리고 원정군 내부의 문제 등으로 모두 실패
- 방어전이었고 막부의 재정도 악화되어 고케닌들에게 은상(恩賞)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
 - ⇒ 봉공에 대한 은상 지급이라는 봉건사회 제일의 원칙이 붕괴
 - ⇒ 경제적 곤궁에 빠진 고케닌의 막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

(6) 가마쿠라막부의 멸망

- 고케닌 보호대책인 덕정령(德政令)을 발표 →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여 고케닌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
- 호조씨의 가독(家督)인 도쿠소(得宗)에 의한 전제정치 → 고케닌들의 불만과 불신이 격화
- 막부에 반항하는 무사세력인 아쿠토(悪党)가 등장
- 고다이고(後醍醐)천황이 즉위하여 막부의 타도를 시도
 - ⇒ 막부의 이반 세력과 아쿠토들이 고다이고천황측에 가담하고 결정적으로 토벌군 대장이었던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가 반기를 들게 되어 가마쿠라막부는 멸망(1333년)

3. 무로마치시대

(1) 겐무의 신정과 남북조

1) 겐무의 신정(建武の新政)

- 고다이고(後醍醐)천황의 친정(親政) → 무가사회를 천황 중심의 국가로 재편할 것을 목적
- 중앙과 지방의 정치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실시
- 정책상의 문제점을 노정 - 특히 은상(恩賞)과 영지(領地)처리 문제
- 은상이 무사보다 공가(公家)에게 유리하여 무사들의 불만 초래
- 천황의 명령(린지(綸旨))으로만 영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
-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천황의 아들인 모리요시(護良)의 대립 → 공가(公家)와 무가(武家)의 반목

2) 남북조(南北朝) 내란

-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반기 - 겐무신정은 3년여 년 만에 붕괴
- 교토에 입성한 다카우지는 고묘(光明)천황을 옹립
- 고다이고천황은 요시노(吉野)로 도망쳐 정통성을 주장
- 요시노의 남조(南朝)와 교토의 북조(北朝)로 나뉘어 약 60년 간 대립 → 남북조(南北朝) 내란
- 북조 내부의 권력투쟁(간노노조란(觀応の擾乱))으로 남조의 생명이 연장
⇒ 1392년 남북조의 합일(合一) -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

1335년	다카우지가 고다이고천황에 반기를 들고 닛타의 부대를 격파함
1336년	다카우지가 교토에 새로운 조정을 세움(북조). 자신은 막부를 열었음. 고다이고천황이 요시노(나라현)로 도망쳐 조정을 이어감(남조). 이로써 남북조의 내란이 일어남
1378년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교토의 무로마치에 막부를 설치함
1392년	남조의 천황이 요시미쓰의 신청으로 북조의 천황에게 왕위를 양보함. 남북조의 내란 약 60년 동안에 전국의 무사들은 각각 북조(막부)와 남조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붙어 자기의 지배지를 확장하고자 싸웠음.

(2) 무로마치시대의 정의

- 3대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 당시 교토의 무로마치로 옮겨졌기에, 아시카가씨의 막부를 무로마치막부라 함.
- 16세기 후반까지의 약 230년 동안을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라고 함.

(3) 무로마치막부의 통치체제

쇼군	관령	중앙 (교토)	사무라이도코로(侍所) : 군사 · 경찰업무 만도코로(政所) : 막부의 재정업무 몬추조(問注所) : 기록의 보관업무
		지방	가마쿠라부(鎌倉府) : 간토지방의 지배 슈고, 지토

- 무로마치(室町)막부의 제도와 조직은 가마쿠라막부와 매우 유사
- 고세이바이시키후코(御成敗式目)를 기본법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법령을 추가 - 겐무이라이쓰이카(建武以来追加)
- 조직상의 차이로는 중앙에 간레이(管領)를 설치한 것과 지방에 가마쿠라후(鎌倉府)를 설치한 정도
- 가마쿠라후 - 관동(關東)지역을 관할
→ 가마쿠라후의 설치 역시 가마쿠라막부를 모방한 것으로, 가마쿠라막부가 교토에 로쿠하라탄다이(六波羅探題)를 설치하여 서국(西国)을 지배한 것과 동일

(4) 슈고다이묘

1) 슈고(守護)의 권한

※ 남북조 내란의 와중에 지방의 무사세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슈고(守護)의 권한이 강화

- ① 가마쿠라막부의 슈고의 권한인 군사 · 경찰권
- ② 불법적으로 작물을 수확하는 가리타로제키(刈田狼藉)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
→ 영국(領國)의 무사들의 영지 다툼에 개입[무사의 통제]
- ③ 막부의 판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시세쓰준교(使節遵行)의 권한
→ 사법권 행사를 통한 재지(在地)무사의 통제
- ④ 군비조달의 명목으로 장원과 공령(公領)의 연공(年貢) 중 절반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한제이레이(半濟令)]
→ 슈고의 장원 · 공령 침탈의 계기
- ⑤ 몰수지의 처분권이나 단센(段錢)과 같은 세금의 징수권

- ⑥ 슈고의 권한 강화에 따라 슈고가 실질적으로 장원을 지배하는 대신에 일정한 연공을 징수하여 장원영주에게 지불하는 슈고우케(守護請)가 널리 시행
→ 슈고의 장원·공령 침탈의 구실

2) 무로마치막부의 지배체제 - 슈고영국제(守護領国制)

- 슈고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영국(領国)에 대한 지배를 강화
- 가리타로제키의 단속권과 시세쓰준교의 권한
→ 재지의 무사들을 통제하는 수단
- 한제이레이와 슈고우케 등의 권한
→ 영국 안의 장원과 공령에 대한 지배를 강화
→ 그를 통해 확보한 연공이나 토지를 국내의 재지무사인 고쿠진(国人)들에게 분배하여 자신의 가신단으로 조직
- 이상의 방법으로 슈고는 영국 전체에 미치는 지배권을 확립
- 강화된 슈고의 권한이 무로마치막부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
- 이러한 무로마치시대의 슈고를 슈고다이묘(守護大名)라고 하며 그들이 만들어낸 지배체제를 슈고영국제(守護領国制)라고 함
⇒ 무로마치막부는 유력한 슈고다이묘들에 의해 지탱되었고 슈고도 또한 자신의 지배근거를 막부권력에 의해 보장받음

3) 쇼군의 슈고다이묘 견제

※ 남조의 세력이 약해지자 쇼군이 슈고다이묘의 세력을 삭감

①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

- 도키 야스유키(土岐康行)의 난
- 1390년 3개국의 슈고를 겸직하던 도키(土岐)씨의 상속 다툼에 요시미쓰가 개입하여 세력을 삭감
- 메이토쿠(明德)의 난
- 1391년 11개국의 슈고를 겸직하던 야마나(山名)씨의 상속 분쟁을 이용하여 세력을 삭감
- 오에이(応永)의 난
- 1399년 반란을 일으킨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를 사카이(堺)에서 멸망시켜 6개국의 슈고를 겸직하였던 오우치(大内)씨의 세력을 삭감
⇒ 무로마치막부의 최전성기

② 6대 쇼군 요시노리(義教)

- 쇼군 권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잇시키(一色)씨, 도키(土岐)씨 등 유력 슈고들을 토벌
- 위협을 느낀 슈고다이묘 아카마쓰 미쓰스케(赤松満祐)가 요시노리를 살해 [가키쓰(嘉吉)의 난]
→ 가키쓰의 난을 계기로 쇼군의 권위와 막부의 권력은 쇠퇴
⇒ 슈고다이묘를 견제하려던 쇼군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이후 막부정치의 동요는 더욱 격화

(5) 오닌(応仁)의 난 (1467년)

1) 원인과 경과

- 쇼군 집안의 후계자 문제와 시바(斯波)씨와 하타케야마(畠山)씨의 후계자 다툼 문제가 막부의 2대 실력자였던 야마나(山名)씨와 호소카와(細川)씨의 대립으로 이어져 발생
- 호소카와 가쓰모토(細川勝元)의 동군과 야마나 소젠(山名宗全)의 서군에 슈고다이묘가 참가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내란으로 발전
- 11년에 걸친 전란은 1477년 종결되지만, 그 후에도 지방에서의 전란은 여전히 계속됨

2) 결과 및 영향

- 막부와 쇼군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유력 슈고다이묘의 세력은 쇠퇴하였으며 공가(公家)는 몰락함
- 재지무사에 의한 장원의 침탈이 심해져서 장원제를 기반으로 한 중세국가의 틀이 붕괴
- 하극상의 풍조가 강해져 슈고다이(守護代)나 고쿠진(国人)들이 슈고를 타도하고 센고쿠다이묘(戦国大名)로 성장
⇒ 오닌의 난은 센고쿠시대의 개막

(6) 일본의 국내정세와 왜구

- 아쿠토(惡党) : 가마쿠라시대 말기부터 일본 국내에서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무사들의 활동.
약탈, 방화, 살인 등을 일삼음
아쿠토가 국경을 넘어 고려와 중국을 침구하면 현지인들이 '왜구'라 부름
- 80년의 공백후 간노노조란(觀応の擾乱, 1350년)이 시작된 해부터 고려멸망(1392년)시까지 지속적으로 고려 침구. - 규슈지역에서의 내전상황과 밀접한 관련

(7) 동아시아와 정세와 왜구

- 일본의 남북조시대에 중국은 명나라가 중국을 통일
- 이 무렵 왜구의 활동이 활발 ⇒ 고려와 명나라는 왜구를 단속해 줄 것을 무로마치막부에 자주 요구
- 15C 초,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명에 사신파견하여 왜구를 단속하는 조건으로 명과 무역을 개시
수입품 : 동전, 생사, 견직물, 도자기, 서화 등
수출품 : 구리, 도검, 유황, 마키에 등
- 대명무역의 실권은 무로마치막부에서 슈고다이묘(호소카와씨나 오우치씨)로 넘어감.
- 무역의 실제업무는 효고, 사카이, 하카타 등의 항구도시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 담당.

4. 무로마치시대의 산업과 사회

(1) 농촌사회의 변화 - 소(惣)·소촌(惣村)의 형성

- 남북조 내란 이후 슈고가 장원을 침탈하여 장원이 점차 해체되자 농민들은 지역적으로 결합하여 소촌(惣村) 또는 소(惣)라고 하는 자치조직을 형성
- 자위(自衛)나 농업생산을 위한 협력이 자치조직 형성의 목적
- 소촌(惣村)의 지도자층은 농민의 계급분화에 따라 형성된 유력농민인 묘슈(名主)나 지자무라이(地侍) 계층
- 마을의 운영에 관한 많은 사안들을 자치적으로 해결
- 소촌은 요리아이(寄合)라고 하는 촌민들의 회의의 결정에 따라 사타닌(沙汰人)·오토나(乙名) 등으로 불린 지도자들에 의해 운영
- 촌민은 마을 내 질서유지를 위해 무라오키테(村掟)라는 규약을 정하고 위반 시에는 자체적으로 제재
- 소촌이 책임을 지고 장원영주에게 일괄적으로 연공을 납입할 정도로 성장[하쿠쇼우케(百姓講)]
⇒ 소촌은 장원의 틀을 깨고 사회적·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단위로 행동

(2) 다양한 잇키(一揆)의 발생

※ 잇키(一揆) - 무사나 농민 등이 특정한 목적 하에 집단을 결성하여 행한, 무력행사를 포함한 저항운동

1) 무로마치시대의 잇키

- ① 쓰치잇키(土一揆): 농민들이 소촌을 기반으로 하여 일으킨 잇키로, 연공이나 부역의 감면, 도쿠세이(德政) 등을 요구
- ② 도쿠세이잇키(德政一揆): 도쿠세이를 요구하며 일으킨 쓰치잇키로, 도쿠세이란 채권·채무의 파기를 의미함
- ③ 고쿠진잇키(国人一揆): 재지무사인 고쿠진들이 슈고다이묘에 대항하거나 농민을 지배하기 위해 결성한 잇키

2) 센고쿠시대의 잇키

- ① 구니잇키(国一揆): 고쿠진·지자무라이(地侍)가 중심이 되어 소촌의 농민[묘슈(名主)계급]들과 연합하여 일으킨 잇키
- ② 잇코잇키(一向一揆) - 정토진종(浄土真宗) 혼간지(本願寺) 교단[잇코슈(一向宗)]의 신도들이 일으킨 잇키
cf) 하쿠쇼잇키(百姓一揆) - 에도시대에 농민들이 일으킨 잇키

(3) 좌(座)의 발전 - 상공업의 발달

- 좌(座) - 유럽의 길드에 해당하는 중세의 특권적인 동업조합
- 무로마치시대에는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거의 모든 부문에 좌가 결성되는 등 좌가 눈부시게 발전
- 농·상·공업의 선진지역이며 좌를 보호해줄 장원영주도 많았던 기나이(畿内)지역에 다수 존재
- 혼조(本所)의 보호하에 영업이나 상품의 구입·판매의 독점권 등 특권을 획득하고 통행세나 영업세 등의 면제의 혜택을 받음
⇒ 센고쿠다이묘의 경제진흥책에 의해 해체

5. 전국시대(戰國時代)

(1) 하극상의 시대

- 15C 후반 오닌의 난을 계기로 전란은 전국 각지로 확산.
- 이후 100년 동안 무사들이 영지를 서로 뺏고 빼앗는 전국시대가 지속

(2) 센고쿠다이묘

- 전국시대의 다이묘는 슈고다이묘를 쓰러뜨리고 새롭게 다이묘가 된 경우가 많음.
- 막부나 조정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공가, 사사 등의 장원영주의 세력을 일소하여 넓은 영국 지배
- 부국강병의 정치 -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한 군사력 양성
- ① 영국의 중심적인 장소에 성을 쌓고 가신이나 상공업자를 모아 조카마치(城下町)를 만들
- ② 가법(分國法)이라 불리는 법률을 만들어 가신이나 민중들을 단속
- ③ 농업, 상공업의 발달에 주력
- ④ 영지 내의 농민을 직접 지배하여 연공의 증가에 노력

6. 무로마치문화

(1) 금각과 은각 - 무로마치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재

- ① 금각 :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막부의 전성기에 교토의 기타야마(北山)에 건립
- ② 은각 :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오닌의 난 무렵, 교토의 히가시야마(東山)에 건립
요시마사가 은각에서 생활하던 무렵의 문화를 '히가시야마문화'라고 함
- 쇼인즈쿠리(書院造)라는 양식이 무사의 주택으로 채용

(2) 선종문화

- ① 정원 : 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계곡과 하천을 표현하여 깊은 정치가 있다.
교토 료안지(龍安寺)의 석정(石庭)은 세계적으로 유명
- ② 도쿄노마(床の間)
수묵화 : 명나라에서 선종과 수묵화를 배운 셋슈(雪舟)가 뛰어난 산수화 남김
이케바나(生け花): 부처에게 꽃을 바치는 의식에서 시작
- ③ 차실건축 - 차노유(茶の湯) : 다실에서 마음의 안정을 추구
- ④ 임제종 : 막부의 보호로 교토와 가마쿠라의 오산(五山)이라는 대표적인 사찰들을 중심으로 번영
- ⑤ 노가쿠와 교겐

(3) 문화의 지방 확산

- 오닌의 난이후, 공가와 승려들이 지방의 다이묘들을 의지하여 교토를 벗어남
(수도의 문화가 전해진 오우치씨의 조카마치인 야마구치, 간토지방에 아시카가학교가 재건)

(4) 조총과 기독교의 전래

- 1543년 다네가시마(種子島)에 포르투갈인이 표착하여 조총을 전함
- 남만무역 : 규슈의 히라도(平戸), 나가사키(長崎) - 포르투갈, 스페인 상선
수입품 - 중국산의 생사나 견직물, 유럽의 조총, 화약, 시계, 유리그릇, 남방산의 향료, 담배 등
수출품 - 일본산의 은, 공예품이나 도검 등
- 1549년 스페인 선교사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가고시마(鹿兒島)에 와서 기독교 전래
- 기리시탄 다이묘 : 다이묘 중에 선교사를 보호하고 스스로 신자가 됨
규슈의 오토모(大友), 오무라(大村), 아리마(有間)

■ 주요용어

슈고(守護) · 지토(地頭)	슈고는 해당 국(國)의 고케닌을 통솔하며 경찰과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고, 지토는 장원과 공령(公領)에 설치되어 연공(年貢)을 징수하고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로쿠하라탄다이 (六波羅探題)	조큐(承久)의 난 이후, 조정을 감시하고 서국(西國)의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며 고케닌들을 통솔할 목적으로 교토에 설치한 가마쿠라(鎌倉)막부의 기구이다.
겐무신정 (建武新政)	고다이고(後醍醐)천황이 가마쿠라막부를 멸망시킨 후 행한 천황 중심의 정치를 가리킨다.
한제이레이 (半濟令)	무로마치(室町)시대의 슈고가 장원이나 공령의 연공 중 절반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슈고가 장원과 공령을 침탈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오닌(応仁)의 난	무로마치시대에 슈고다이묘들이 11년간에 걸쳐 벌인 내란으로, 센고쿠(戰國)시대의 시작이라고 평가된다. (1467년)
소(惣) · 소촌(惣村)	남북조(南北朝) 내란 이후, 장원에 대한 장원영주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농민들은 장원을 뛰어넘어 지역적으로 결합하여 소(惣) 또는 소촌(惣村)이라고 하는 자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갔다.

■ 정리하기

- 중세의 무가정권을 낳은 배경을 생각해보면, 경제적 배경으로는 국가의 통제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유지인 장원의 발달, 사회적 배경으로는 기존의 신분제도의 틀을 무너뜨린 무사계급의 성장, 정치적 배경으로는 원정(院政)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무사와 장원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무사의 등장이 장원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장원의 발달이 무사의 대두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 가마쿠라(鎌倉)막부는 교토의 조정과는 전혀 다른 정치·사회체제를 가진 무사들의 독자적인 정권이였다. 가마쿠라막부는 쇼군(將軍)과 고케닌(御家人)이 토지를 매개로 하여 맺은 주종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배관계의 구조를 봉건제도라고 한다.
- 가마쿠라막부 성립 초기에는 막부의 세력이 강하지 못하여 가마쿠라[무가(武家)]와 교토[공가(公家)]의 두 정권이 전국을 이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부 내부의 내분을 틈타 고토바(後鳥羽)상황이 일으킨 조큐(承久)의 난에서 막부측이 승리함으로써 공가와 무가의 이원지배체제는 해소되고 가마쿠라막부는 전국정권으로 성장하였다.
- 고다이고(後醍醐)천황의 겐무신정(建武新政)은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에 의해 3년여 만에 붕괴되고 만다. 교토에 입성한 다카우지가 고묘(光明)천황을 옹립하자 고다이고천황은 요시노(吉野)지방으로 도망쳐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이로써 조정은 요시노의 남조(南朝)와 교토의 북조(北朝)로 나뉘어 약 60년 간 싸우게 된다. 이를 남북조 내란이라고 하는데, 1392년 무로마치(室町)막부의 제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에 의해 남북조가 합일(合一)된다.
- 무로마치막부의 슈고의 권한은 남북조 내란의 와중에 지방의 무사세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강화되었다. 슈고는 강화된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이 관할하는 영국(領國)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이와 같은 무로마치막부의 슈고를 군사/경찰권만을 가졌던 가마쿠라막부의 슈고와 구별하여 슈고다이묘(守護大名)라고 하며, 그들이 만들어낸 지배체제를 슈고영국제(守護領國制)라고 한다.
- 무로마치막부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義政)의 시대에 오닌(応仁)의 난이 발발하는데, 다수의 슈고다이묘가 참가하여 11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이 난의 결과, 쇼군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유력 슈고다이묘의 세력은 쇠퇴하였으며 공가는 몰락하였다. 반면에 재지무사에 의한 장원의 침탈이 심해져서 장원제를 기반으로 한 중세국가의 틀이 붕괴되었고, 또한 하극상의 풍조가 나타나 슈고다이(守護代)나 고쿠진(國人)들이 슈고를 타도하고 센고쿠다이묘(戰國大名)로 성장해갔다. 즉, 오닌의 난은 센고쿠시대의 개막이었던 것이다.
- 남북조 내란 이후 슈고가 장원을 침탈하게 되면서 장원영주가 힘을 잃어 장원이 점차 해체되어 가자, 농민들은 장원을 뛰어넘어 지역적으로 결합하여 소(惣) 또는 소촌(惣村)이라고 하는 자치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소촌은 사회적·경제적인 단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단위였다. 농민들은 소촌을 기반으로 쓰치잇키(土一揆)를 일으켜 장원영주나 슈고다이묘 등에게 저항하였던 것이다.

7장. 근세

■ 학습목표

1. 센고쿠다이묘가 등장한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오다 노부나가와 전국통일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근세적 질서를 수립하고 통일정권을 확립하려 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심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에도시대의 정치체제인 막번체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에도시대의 신분질서, 특히 농민에 대한 통제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목차

1. 센고쿠시대 - 근세의 여명기
2. 오다 노부나가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치
3. 에도시대의 정치와 사회

1. 센고쿠시대 - 근세의 여명기

(1) 센고쿠다이묘(戰国大名)의 성립

- 오닌(応仁)의 난의 결과, 쇼군의 권위가 실추되고 막부 권력이 쇠퇴
- 슈고다이(守護代)나 고쿠진(国人)들이 대두하여 실권 장악
- 슈고다이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領国)지배를 강화
 - ⇒ 슈고다이나 고쿠진의 성장, 슈고다이묘의 적극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격의 권력이 각지에 등장
 - 센고쿠다이묘
 - ⇒ 센고쿠다이묘는 막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분권적인 권력

(2) 센고쿠다이묘의 정책

1) 가신단 편성

- 고쿠진 · 지자무라이(地侍) 등의 무사들과 토지를 매개로 한 봉건적 주종관계를 맺어 가신단에 편제
- 유력 가신과 재지(在地)의 중소무사들에게 의제(擬制)적인 친자관계를 맺게 하여 가신단의 조직을 강화
[요리오야 · 요리코 (寄親寄子)제도]

※ 요리오야 · 요리코

- 의제적인 친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주종관계, 혹은 그것에 준하는 보호자 · 피보호자의 관계
- 보호하는 측이 요리오야, 보호받는 측이 요리코

2) 분국법의 제정

- 분국법은 센고쿠다이묘가 영국을 지배하기 위하여 발포한 법령
- 법전의 형태나 가훈의 형태, 또는 개별적인 법령을 모아둔 것 등등 형태가 다양함
- 무사만이 아니라 농민이나 상인까지 그 대상에 포함
 -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
- ⇒ 영국지배의 기본 정책을 명문화하여 강력한 지배가 가능

3) 토지지배 정책

- 토지에서 징수할 연공(年貢)을 통화의 양으로 표시한 간다카(貫高) 제도를 통해 토지와 인민에 대한 통일적 지배를 추진
 - 가신에 대한 분봉, 군역 · 세금 부과시의 기준
- 간다카를 설정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인 겐치(檢地)도 시행
 - ⇒ 토지를 장악하여 장원을 해체

4) 경제 · 산업진흥책

- 조카마치(城下町)를 건설하여 가신과 상인들을 거주시킴
→ 조카마치를 경제의 중심지로
- 동업조합인 좌(座)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을 보호하여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라쿠이치(樂市)정책을 실시
→ 상업의 자유화 정책
- 부국을 위해 금광, 은광 등 적극적으로 광산개발을 추진

■ 슈고다이묘(守護大名)와 센고쿠다이묘(戰国大名)의 비교

	슈고다이묘	센고쿠다이묘
막부와와의 관계	쇼군이 임명. 영국지배를 위해 막부권력에 일정 부분 의존.	막부권력으로부터 독립. 실력으로 지위를 획득. 단, 막부의 권위는 이용.
다이묘의 거주	유력 슈고는 교토에 거주. 영국에는 슈고다이묘가 거주.	영국에 거주. 조카마치를 건설하여 가신을 거주시킴.
가신의 통제력	고쿠진을 가신화하였으나 주종관계는 센고쿠다이묘에 비해 약함.	고쿠진 등을 토지를 매개로 가신단에 편성하여 강한 주종관계를 형성함.
정치 · 경제정책	영국에서의 정치 · 경제상의 장악력은 불충분.	분국법, 겐치 등으로 지배권 강화. 각종 산업을 보호육성

2. 오다 노부나가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치

(1) 뎃포(鉄砲) 전래의 영향

- ① 활을 사용하여 일대일로 겨루는 기마전에서 아시가루(足輕) 뎃포(鉄砲) 부대 등에 의한 보병의 집단전법으로 변화
- ② 산성에서 평지에 견고한 성을 축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석축이나 높은 천수각(天守閣)도 만듦
- ③ 전쟁의 승패가 빨리 결정되어 군사적 통일이 촉진
- ④ 집단전법에 의한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가신들을 조카마치에 거주시킴
- ⑤ 병농분리로의 진행도 빨라짐

(2)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종교 세력과의 대립

1) 엔랴쿠지(延暦寺)

- 직접적인 원인 -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昭)와 연합하여 노부나가에게 대항
- 엔랴쿠지는 천태종(天台宗)의 총본산으로 천황 · 귀족과의 관계가 깊었고, 헤이안(平安)시대 이래 장원영주세력의 정신적인 거점
- 강력한 종교적 권위와 함께 장원과 좌의 혼조(本所)로서의 경제력과 승병조직을 바탕으로 한 세속적인 힘도 보유
⇒ 엔랴쿠지로 대표되는 장원제와 기존권력을 부정하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불가피한 것

2) 혼간지(本願寺)와 잇코잇키(一向一揆)

- 잇코잇키 - 정토진종(淨土真宗) 혼간지 교단, 즉 잇코슈(一向宗)의 신도들이 일으킨 무장봉기
-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 잇코슈의 가르침
→ 신도들은 이 가르침에 따라 횡적인 평등원리로 단결
- 종적인 신분제를 전제로 한 무사신분에 의한 전국통일을 꿈꾸는 노부나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 노부나가의 최대의 적으로, 가혹할 정도로 잇코잇키를 탄압

(3) 오다 노부나가의 정책

- 교토, 오츠(大津) 등과 함께 전국 제일의 경제력을 가진 사카이(堺)를 직할령으로 삼아 기나이(畿内)의 높은 경제력을 장악 (사카이 상인들이 군사비를 부담하기를 꺼려함.)

- 각지의 세키쇼(関所)를 철폐하고 도로와 다리를 정비
- 아즈치성(安土城)의 조카마치에 라쿠이치라쿠자(楽市楽座)를 실시
 - 동업자집단인 좌의 특권을 폐지하고 상공업자에게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인정하여 상공업의 진흥을 추진
- 토지조사사업인 겐치를 실시
 - 장원영주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

(4) 도요토미정권의 경제적 기반과 조직

1) 경제적 기반

- 다이코쿠라이리치(太閤蔵入地)라고 하는 약 200만석의 직할령
 - 다이묘에 대한 은상, 가신들의 봉록과 군량미 등에 충당
- 사도(佐渡)의 금광, 이와미(石見)의 은광, 이쿠노(生野)의 은광 등 주요 광산을 직할경영
- 교토, 오사카, 사카이, 후시미(伏見), 나가사키(長崎) 등의 주요 도시들을 직할령으로 삼아 경제력을 장악

2) 조직

- 경제적 기반은 방대한 반면, 조직체계는 매우 미숙한 수준
- 가신 다섯 명을 부교(奉行)로 삼아 정무를 분담하게 하는 정도
- 만년에는 유력한 다이묘 다섯 명을 다이로(大老)로 삼아 중요 정무를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함
 - ⇒ 조직의 미비함은 도요토미정권의 독재적 성격을 상징

(5) 고부교(五奉行)와 고다이로(五大老)

1) 고부교

- ① 아사노 나가마사(淺野長政) - 사법
- ②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 행정
- ③ 마시타 나가모리(増田長盛) - 토목
- ④ 나쓰카 마사이에(長束正家) - 재정
- ⑤ 마에다 겐이(前田玄以) - 종교

2) 고다이로

- ①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 필두
- ②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
- ③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 ④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 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 사후에는 우에스키 가게카쓰(上杉景勝)

(6) 토지조사사업 - 다이코겐치(太閤檢地)

- 근세적 질서를 수립하고 통일정권을 확립하고자 추진한 중심정책
- 센고쿠시대의 겐치 - 토지의 면적 등의 기준이 영국마다 달랐고, 토지대장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
 - 현지조사는 부분적으로만 실행
- 다이코겐치는 통일된 기준에 의한 현지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

※ 다이코겐치의 기준

- ① 토지의 측량단위를 통일
- ② 연공을 수납하는 되의 크기를 통일
- ③ 토지를 4등분하여 각각의 표준수확량인 고쿠모리(石盛)를 결정
- ④ 토지의 생산력을 쌀의 생산량으로 표시하는 고쿠다카(石高)를 결정
- ⑤ 하나의 토지에 직접 경작하는 한 사람의 권리자만을 인정 [잇치잇사쿠닌(一地一作人)의 원칙]

※ 다이코켄치의 의의

- 장원공령제에 기반한 중층적 토지소유관계, 즉 중세적 토지소유관계가 일소되고, 토지대장에 기재된 백성을 무라(村) 단위로 지배하는 근세적인 토지소유관계가 성립

(7) 신분통제정책

① 가타나가리(刀狩り)

- 농민으로부터 무기를 몰수하는 정책
- 잇키를 미연에 방지하여 농업에만 전념하게 할 것을 목적

② 히토바라이레이(人掃令) - 1591년

- 무사가 조닌(町人:상공인)이나 농민이 되는 것을 금지
- 농민이 조닌이 되는 것도 금지 → 농업에만 전념하게 할 목적
- 1592년에 전국의 호구조사를 실시 → 조선 침략을 위한 동원 준비

⇒ 이상의 정책들로 각 신분이 확정되고 병농분리가 완성되어 에도(江戸)시대의 신분제도의 전제가 형성

(8) 모모야마문화(桃山文化)

1) 모모야마문화의 특색 : 유럽인의 내항, 신흥 다이묘와 마치슈(町衆)들의 활동

- ① 호화스럽고 웅대하며 활기에 넘친다
- ② 불교의 영향이 약하다

2) 문화적 산물

- ① 건축 : 주라쿠데이(聚落第, 교토), 히메지성(효고현), 후시미성(모모야마성), 아즈치성, 오사카성 등의 성곽건축
성안에 높이 솟은 덴슈가쿠(天守閣)와 다이묘들의 주거인 쇼인즈쿠리 양식의 공간이 만들어짐
- ② 회화 : 장벽화(襖絵, 후스마에) - 성이나 저택의 후스마나 병풍에 금박 위에 선명한 색채로 화조(花鳥)의 그림
가노 에이토쿠(狩野永徳), 가노 산라쿠(狩野山楽), 하세가와 토하쿠(長谷川等伯)

3) 차노유 : 다이묘나 마치슈들 사이에 유행

센노리큐(千利休) - 사카이의 호상(豪商), 다도를 대성시킴

4) 난교조루리(인형극), 가부키오도리가 유행

3. 에도시대의 정치와 사회

(1) 에도(江戸)막부의 수립

-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세키가하라(関ヶ原)전투에서 도요토미 세력을 격파 [1600년]
-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이이타이쇼군(征夷大將軍)에 올라 에도(江戸)막부를 수립[1603년]
- 쇼군의 직위를 선택한 것은 무가의 선례에 따라, 무가의 동량으로서 전국 지배자의 지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
- 2년 후 아들인 히데타다(秀忠)에게 쇼군을 양위하고 이에야스는 순푸(駿府)로 옮겨 오고쇼(大御所)라고 칭하며 막정을 지도
 - 쇼군이란 지위는 도쿠가와씨가 세습하는 것임을 다이묘에게 보이기 위한 것[하극상의 부정]
 - 또한 도요토미측의 다이묘를 제압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치형태

(2) 에도막부의 통치제제

1) 에도막부의 경제적 기반

- 약 400만석에 이르는 직할령인 덴료(天領)에서 징수되는 연공
- 약 300만석에 이르는 하타모토치교지(旗本知行地)
 - 하타모토에게 분봉해 준 영지로, 넓은 의미의 덴료에 속함
 - 당시 전국 생산량 3000만석의 약 4분의 1
- 사도, 이와미, 이쿠노, 이즈(伊豆) 등의 주요 광산을 직할경영

- 금화, 은화 등 화폐주조권도 독점
- 에도, 교토, 오사카, 사카이, 나가사키 등의 주요 도시들을 직할 지배하여 상공업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무역의 이익도 장악
- ⇒ 다이묘들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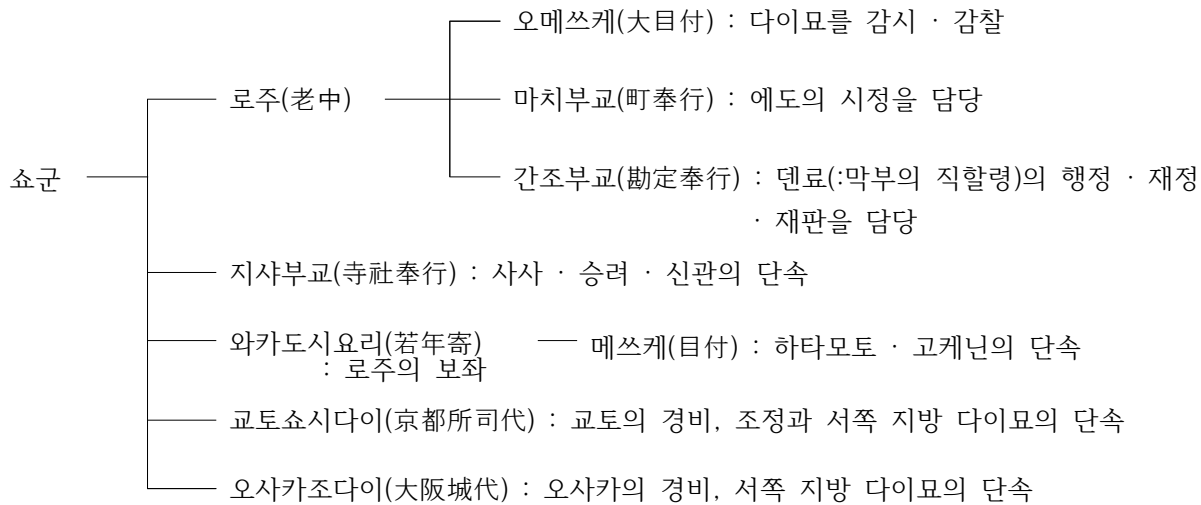
2) 에도막부의 군사적 기반

- 쇼군 직속의 가신단인 하타모토(旗本)·고케닌(御家人)과 다이묘들이 부담하는 군역으로 구성
- 쇼군 직속 가신단의 규모 - 하타모토와 고케닌, 그들의 가신을 포함하면 약 7만 명 정도
- ⇒ 다이묘에 비해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

※ 하타모토와 고케닌 - 영지 1만석 미만의 쇼군의 직속가신

- 쇼군과 알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타모토로, 영지를 받아 그 연공으로 생활하였으나 점차 영지 대신 쌀로 지급받음
- 고케닌은 쇼군을 알현할 자격이 없으며, 대부분 봉록을 쌀로 받음

3) 에도막부의 주요 직제 : 제3대 쇼군 이에미쓰(家光) 때 통치체제가 거의 완성



4) 막부 직제의 특징

- 막부의 요직은 제도적으로 소규모의 후다이(譜代)다이묘와 하타모토가 독점
- 로주, 와카도시요리, 지사부교 - 후다이다이묘를 임명
- 오메쓰케, 마치부교, 간조부교 - 하타모토를 임명
- 도쿠가와 일족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상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요직에 측근들을 배치함으로써 쇼군의 권력을 강화
- 요직에는 동격의 사람들을 복수로 임명하여 매월 교대로 근무시킴
-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

(3) 막부의 다이묘 · 조정 · 사원 통제

1) 다이묘의 구분

- 다이묘 - 쇼군에게서 1만석 이상의 영지를 받은 영주
- 쇼군 가문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신판(親藩), 후다이(譜代), 도자마(外様)로 구분

① 신판 - 도쿠가와 일족의 다이묘로 요지에 배치

[고산케(御三家) : 오와리(尾張), 기이(紀伊), 미토(水戸)의 도쿠가와씨]

② 후다이 -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 이전부터 도쿠가와씨의 가신이었던 다이묘로, 요지에 배치되었으며 막부의 요직에 임명

③ 도자마 -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 도쿠가와씨에게 복속한 다이묘로, 영지가 넓고 유력한 자가 많았으나 막부의 요직에는 임명되지 않고 원격지에 배치되어 견제를 받음

2) 다이묘의 권력 - 번(藩)의 지배

- 번 - 다이묘의 영지와 영민(領民), 그리고 지배기구의 총칭
- 점차 다이묘들의 지배체제가 공고해져 유력 무사들을 가신단에 편성하여 조카마치에 거주시키고 번의 행정을 분담시킴
- 다이묘는 가신단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 위하여 번법을 제정
 - ⇒ 다이묘가 영지와 영민을 지배하는 힘이 강화되고 번의 조직과 제도도 정비되어 번의 권력은 확립
 - ⇒ 막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번은 다이묘의 독자적인 정치와 법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

3) 막부의 다이묘 통제

- 고산케 - 동북(미토), 중부(오와리), 서일본(기이)의 감시를 담당
- 신판다이묘와 후다이다이묘 - 간토지방, 긴키지방 등 중요한 장소에 둠
- 도자마다이묘 - 오우(奥羽), 시코쿠, 규슈 등 에도에서 먼 곳에 둠
- 다이묘 통제를 위해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를 제정
- 막부는 쇼군이 교체될 때마다 무가제법도를 개정
- 다이묘는 쇼군 교체 시에 에도성에 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영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슈인조(朱印狀)를 교부받아 주종관계를 갱신
- 다이묘의 의무는 무가제법도에 규정
-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지의 몰수·삭감·교체 등의 처분을 내림

※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

- ① 새롭게 성을 쌓는 일을 금지, 성의 수축을 제한시킴
- ② 다이묘들끼리 자유롭게 결혼하는 것을 금지
- ③ 산킨고타이 실시

4) 산킨고타이(參勤交代)

- ① 성립
 - 무가제법도 중에서 대표적인 다이묘 통제 정책
 - 충성을 서약하는 인질제도의 일종으로,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가 제도화
- ② 운영방법
 - 다이묘는 원칙적으로 매년 번갈아 가면서 영지와 에도에 거주
 - 처자식들은 인질의 의미로 에도에 상주
 - 막부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다이묘는 에도에 정주
 - 관동의 대부분의 후다이다이묘는 반년 교대
 - 쓰시마(對馬)의 소씨(宗氏)는 3년에 1번 교대
 - 다이묘들은 임전체제를 갖춘 행군의 여장으로 왕래
- ③ 의의와 영향
 - 에도와 영지에서의 이중생활과 다이묘교례쓰(大名行列) 등의 막대한 비용으로 다이묘권력의 약화를 초래
 - 에도와 영지를 왕복함으로써 교통의 발달, 화폐경제의 진전, 문화의 교류를 촉진

5) 막번(幕藩)체제

- 에도막부는 쇼군이 다이묘의 영주권[분권(分權)]을 인정하면서도 쇼군권력이 영주권을 집권적으로 편성하여 봉건적 지배를 강화
- 번이란 독자적인 법으로 지배되고 독립적으로 정치가 행해지는 공간
- 번의 독립성은 막부의 허용 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하나하나의 번들 전체를 강력히 통제하고 지배한 것은 막부
 - ⇒ 강력한 영주권을 가진 쇼군의 막부와 다이묘의 번이 함께 토지와 인민을 통치하는 지배체제를 막번체제라고 함

6) 조정과 종교 세력에 대한 통제

- ① 조정(천황·황족·공가) -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并公家諸法度)
- ② 사원 - 사원법도(寺院法度), 제종사원법도(諸宗寺院法度)
- ③ 신사 - 쇼샤네기칸누시법도(諸社禰宜神主法度)
 - 사원과 신사의 종교적 권위는 막부로서도 이용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종교 쪽으로만 활동을 한정하여 통제
- ④ 크리스티교 - 금교령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일정한 사원에 속하게 하는 데라우케제도(寺請制度)를 시행
 - ⇒ 에도막부는 사회의 각 부분에 대해 봉건적 지배와 통제를 강화

(4) 사농공상의 신분사회

1) 에도시대의 신분 : 무사와 농민, 공인, 상인의 차별이 특별히 엄격

四民 : 사(武士) - 지배계급, 농(百姓=農民), 공(職人), 상(商人)

에타, 히닌 - 천민계급

- 공인과 상인을 합하여 조닌(町人)이라 함
- 신분에 따라 생활방법이 다르고, 다른 신분간에는 교제나 결혼을 할 수 없다
- 신분과 직업은 자손대대로 계승

2) 무사계급의 특권 : 무사는 많은 특권을 누리며 다른 계급과 엄정하게 구별

- ① 묘지(名字) · 대도(帶刀)의 특권 : 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칼을 찰 수 있음
- ② 기리스테고멘(切捨御免)의 특권 : 무례하면 백성이나 조닌을 살해해도 무방

- 엄정한 신분질서는 같은 무사계급 안에서도 존재

→ 무사계급은 쇼군을 정점으로 하여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복잡한 서열과 차별이 있으며 상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이 요구됨

- 무사와 함께 지배신분에 속하는 공가나 상층의 승려·신관(神官)에게도 서열이 명확히 존재

3) 엄격한 농민 통제

- 농민은 무사 다음가는 신분이었지만, 무거운 연공(수확의 40-50%)과 부역 등으로 경제적 지위는 조닌(町人)보다 낮았음

- 근세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농민은 자영농인 혼바쿠쇼(本百姓)

- 막번권력은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을 수탈하는 체제였으므로 혼바쿠쇼를 통제·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

- 농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통제

- ① 향촌제법도(鄉村諸法度) - 담배·술·두부 제조의 금지 등

- ② 이전의 자유를 제한

- ③ 게이안(慶安)의 오후레가키(御觸書) - 농민들이 지켜야 될 규범과 의식주의 제한 등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통제

- 혼바쿠쇼와 농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법령

- ① 전전영대매매금령(田畑永代賣買禁令) - 경작지의 매매를 금지

- ② 분지제한령(分地制限令) - 경작지의 분할을 제한

- ③ 상업 작물의 재배를 금지 - 미곡 생산의 감소를 방지

⇒ 농민을 토지와 농업에만 묶어두기 위한 수단

4) 농촌 사회의 구조

- 막부는 농민을 무라(村)를 통해 통제, 무라는 농업생산의 단위이자 행정의 단위

- 막부는 무라를 지배의 말단에 자리매김하고 무라의 운영은 촌락 구성원의 자치에 일임

- 무라에서는 구성원들이 무라오키테(村掟)라고 하는 규약을 정하고 지도자를 선출하여 자치적으로 운영

- 규약을 어길 때에는 무라하지부(村八分)라는 제재를 가함

⇒ 무로마치시대 이래의 농촌사회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용하여 지배질서를 강화·유지한 것

5) 조닌의 생활

- 조닌은 도시에 거주하는 상공업자로 영업세를 납부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음
-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혼초닌(本町人)이 도시 공동체의 정규 구성원
 - ① 공동체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② 각종 부담금이나 기부금을 납부할 의무
 - ③ 조닌의 대표를 선출하고 소방·하수·축제·토목공사 등을 부담
- 도시 공간에도 자치조직들이 있어 막부나 다이묘는 자치조직만 장악하였고, 도시의 실질적인 행정은 자치조직을 통해 이루어짐

6) 에타(穢多)와 히닌(非人) - 천민

- 에타는 일부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대부분은 죽은 말과 소의 처리와 피혁제품의 제조, 수공업 등에 종사
- 히닌은 농촌부나 도시에 거주하며, 청소나 잡역 등에 종사하였고, 죄수의 수송·관리 등 마치부교쇼(町奉行所)의 말단의 역할도 수행
- 에타와 히닌은 외형적으로도 차별을 강요받음
- 에도시대에는 에타와 히닌에 대한 차별이 강화
 - ⇒ 막번권력은 사회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서 천민계급을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차별

(5) 에도시대 초기의 외교와 쇄국

1) 에도 초기의 외교관계

- 이에야스의 적극적인 태도
 - ① 쓰시마의 소씨(宗氏)의 중개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
 - ② 네덜란드, 영국과의 무역을 시작
 - ③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교사를 탄압하면서 악화되었던 스페인과의 관계회복을 시도
- 일본인의 활발한 해외 진출
 - ① 막부의 도항허가서를 받은 주인선(朱印船)들이 동남아시아 각 지역으로 도항하여 활발히 무역활동
 - ② 해외로 이주하는 일본인들도 증가하여 동남아시아 각지에 일본인 거주지인 니혼마치(日本町)가 발생

2) 쇄국정책 - 4개의 창구

- 말년의 이에야스는 크리스티교를 금하였는데(1612년), 이러한 방침은 그의 사후에도 답습되어 쇄국정책이 추진
- 1641년 네덜란드 상관(商館)을 나가사키의 데지마(出島)로 옮겨 쇄국체제가 완성 [3대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 때]
- 쇄국체제 하에서도 외국을 향해 나가사키, 쓰시마, 사쓰마(薩摩), 마츠마에(松前)의 4개의 창구는 개방되어 있었음
- 쓰시마는 조선, 사쓰마는 류큐와 중국의 명·청, 마츠마에는 아이누, 나가사키는 네덜란드와 중국
- 나가사키 데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장은 매년 막부에 네덜란드 풍설서(風說書)를 제출
 - 해외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원
- 17세기 중반 나가사키에 내항하는 청의 선박이 증가하자, 막부는 청국인을 거주시킬 도진야시키(唐人屋敷)도 나가사키에 완성
 - ⇒ 실질적인 쇄국은 아님

(6) 에도시대의 농업과 산업의 발달

- 경작지의 큰 증가와 농업기술 개량으로 농업이 크게 발달
- 사회가 안정되자 수공업의 원료인 마, 차, 담배, 뽕, 면화 등이 많이 재배
- 겐로쿠시대 - 벼농사와 야채, 원료작물의 재배기술 체계화, 농업기술 크게 진보
- 쇄국정책의 결과 - 국내에서 평화지속되어 수산업, 광업, 수공업 등의 여러 산업이 발달

(7) 에도시대의 교통과 도시의 발달

1) 가도(街道)의 발달

- 다이묘의 산킨코다이에 의해 교통량이 증가하자 5가도 등 각지에 가도의 설비가 갖추어짐
- 슈쿠바(宿場) : 인부와 말 준비
- 세키쇼 : 에도를 방어하기 위해 통행인을 조사

2) 해운의 발달

- 대량의 물품 운반위해 연안항로나 하천의 수운이 발달
- 니시마와리(西廻り) 항로 : 동해 연안에서 혼슈를 서쪽으로 돌아 오사카로
- 히가시마와리(東廻り) 항로 : 쓰가루해협을 통해 동쪽으로 돌아 에도로

3) 삼도(三都)의 번영 - 에도, 오사카, 교토

- 오사카 : '천하의 부엌', 상인들의 도시로 크게 발달,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
다이묘들은 구라야시키(蔵屋敷) 또는 창고를 설치, 연공으로 바쳐진 쌀, 특산물을 상인을 통해 매각

(8) 에도시대의 상업의 발달

1) 상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

- ①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생산물이 증가
- ② 육상과 해상 교통이 발달
- ③ 막부가 화폐를 통일함
- ④ 무사계급이 연공을 시장에서 팔아 화폐로 바꾸어 생활함

2) 가부나카마(株仲間) : 유력한 상인이나 직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업조합

- 동업자의 숫자나 판매가격과 양을 제한
- 막부와 번에 세금을 바치고 보호받음 → 독점영업으로 큰 이익

4. 에도시대 중기의 정치와 사회

(1) 겐로쿠시대의 정치

- 1) 무단정치 : 제3대 쇼군 이에미쓰 때까지 여러 다이묘의 반항을 제압하고 전국을 지배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무력에 의한 엄격한 정치를 행함
- 2) 문치정치 : 제4대 쇼군 이에쓰나(家綱) 때부터 안정되어 장기적인 지배를 위해 학문과 교육을 통해 막부에 대해 충성을 다하도록 다스림
- 3) 겐로쿠시대 : 제5대 쇼군 쓰나요시(綱吉)는 문치정치와 함께 장군권력의 강화를 도모함. 당시의 연호를 따.
 - ① 에도의 유시마(湯島)에 성당을 세워 주자학 장려
 - ② 쇼루이아와레미노레이(生類憐れみの令) : 사람보다도 개를 중요시
 - ③ 화폐주조
- 4) 정덕(正徳)의 치 : 주자학자인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정치 (제6대 쇼군 이에노부(家宣)에 의해 등용)
 - ① 유학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식을 정비 : 쇼군의 권위를 높임
 - ② 화폐의 질을 개량 : 물가의 안정을 꾀함
 - ③ 나가사키에서의 무역량 제한 : 금과 은의 해외유출을 막는다

(2) 학문의 발달과 겐로쿠문화

- 유학이 발달, 그중 주자학이 막부 공인의 학문

1) 교육의 보급

- ① 막부 : 에도의 유시마에 학문소를 설치
- ② 번 : 한코(藩校)를 세워 무사들의 자제를 교육
- ③ 민간 : 데라코야(寺子屋) <읽기, 쓰기, 주산 등 교육>, 심학(心学) <이시다 바이간>

2) 겐로쿠문화의 특색

- ① 17C ~ 18C초 쓰나요시가 다스리던 겐로쿠시대에 개화
- ② 교토, 오사카 등 가미가타(上方)를 중심으로 발달
- ③ 부유한 조닌들 사이에 일어난 문화

3) 겐로쿠문화의 대표적 인물

- ①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 우키요조시(浮世草子)에 조닌의 생활이나 내면을 기술
- ②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 렌가에서 파생한 하이카이(俳諧)를 대성시킴
- ③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問左衛門) : 조루리의 각본에 의리와 인정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씀

4) 겐로쿠문화의 회화와 연극

- ① 회화
 - a. 장식화 : 야마토에를 토대로 다와라야 소다쓰(俵屋宗達)가 시작하고 오가타 고린(尾形光琳)이 대성
 - b. 우키요에 : 판화형태, 히시카와 모로노부(菱川師宣)가 시작
- ② 연극
 - a. 가부키 : 조닌들이 즐기는 연극으로 발달
 - b. 닌교조루리 : 조루리의 각본의 대사에 샤미센의 음악이 수반된 전통 인형극

(3) 교호개혁과 다누마시대

1) 겐로쿠시대에서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시대로

- 겐로쿠시대부터 막부의 재정이 어려워짐
- 아라이 하쿠세키가 개선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실패
-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의 교호개혁이 추진

2) 교호개혁 : 18C 전반,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아라이 하쿠세키를 퇴진시키고 이에야쓰 때의 간소하고 실제적인 정치를 이상으로 내세워 막부정치의 개혁 추진

3) 교호개혁의 내용

- ① 정치를 엄정하게 함
 - 하타모토, 고케닌과 같은 무사들에게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권장
 -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메야스바코(目安箱)를 설치
 - 신분보다 재능있는 사람을 등용
- ② 재정적자의 개선
 - 다이묘에게 산킨코타이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대신 쌀을 더 바치게 함
 - 연공의 비율인상(5公5民, 연공의 50%)
 - 쌀 가격의 안정을 꾀함
 - 새로운 농지 개발과 상품작물의 재배를 권장하여 연공증대에 노력
 - 산업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서적의 수입금지를 완화
- ③ 결과 : 막부의 재정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쌀값은 안정되지 않음
 즉, 쌀 증산 ⇒ 도시의 쌀값 하락 ⇒ 쌀을 팔아 화폐로 바꾸었던 무사들의 생활 더욱 어려워짐
 ⇒ 농민에게 연공부담을 증가시킴 ⇒ 농민의 생활을 더욱 어려워짐

4) 다누마 오키쓰구의 등장

- 교호개혁 이후, 다누마 오키쓰구(田沼意次)가 로주가 되어 정치실권을 장악
- 상업적인 이익을 재원으로 막부 재정수입을 늘리려고 함
 - 가부나카마 결성 장려 : 가부나카마의 특권을 인정하고 대신 세금 징수
 - 큰 상인들에게 자금융자하여 인바누마(印旛沼)를 간척하게 함
 - 나가사키 무역 제한정책을 완화하여 구리와 해산물 등의 수출 장려

(4) 에도시대 농촌의 변화와 민중의 저항

- 1) 가난한 농민과 부유한 농민 : 농민들 사이에 빈부격차 확대
- 2) 하쿠쇼잇키의 발생 : 18C 중엽부터 점차 증가
- 3) 우치고와시(打ち壊し, 도시빈민들의 폭동)의 발생
- 4) 농촌공업의 발달 : 화폐경제의 발달에 수반되어
 - ① 도이야(問屋)제 가내공업 : 도이야 상인이 농민들에게 도구나 재료를 빌려주고 임금노동을 시켜 생산한 제품을 사들이는 체제
 - ② 공장제 수공업 : 공장에 사람들을 모아 분업에 의한 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체제, 매뉴팩처라고 함.

(5) 간세이(寛政)개혁

- 18C 후반, 다누마 오키쓰구의 뒤를 이어 로주가 된 시라카와 번주(후쿠시마현)인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가 요시무네의 교호개혁을 모델로 한 정치개혁
- 엄격한 정치를 시행한 탓에 6년 동안에 걸친 사다노부의 정책은 실패하고 로주 자리에서 물러남

1) 간세이개혁의 내용

- ① 문교정책 : 무사들에게 무예와 학문을 장려하고 정신무장 강조
 - 쇼헤이자카(昌平坂) 학문소에서 주자학이외의 학문 강의 금지
- ② 경제정책 : 검소한 생활을 통해 절약을 권장하고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함.
 - 하타모토와 고케닌들이 상인들로부터 빌린 빚을 없애는 것으로 함
- ③ 농촌대책
 - 농민들의 도시에서의 노동금지와 도시로 나온 농민을 농촌으로 돌려보냄
 - 기근에 대비해 농촌에 창고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쌀을 저장하게 함
- ④ 외교정책 :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여 해방(海防)계획 추진

2) 외국선박의 접근 : 간세이개혁이 추진되던 무렵부터 외국선박 내항

- ① 러시아 선박의 내항 : 1792년 러시아, 락스만이 홋카이도의 네무로(根室)에 와서 통상요구했으나 거절
- ② 외국선박 추방령의 발표 : 영국 등의 외국선박이 나가사키항구에서 난폭한 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1825년 연안지방에 접근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추방령 발표

(6) 새로운 학문과 가세이문화

- 1) 국학의 발생 : 일본의 고전을 연구하여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고대 일본 본래의 정서를 알고자함
- 2) 국학의 대성 : 18C후반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 고사기전(古事記伝) 저술, 국학 대성
- 3) 복고신도(復古神道)의 발생 : 노리나가의 제자 히라타 아쓰다네(平田篤胤)
- 4) 난학의 발달 : 18C후반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沢)와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가 네덜란드 의학서를 번역하여 가이타이신쇼(解体新書) 출판, 이후 난학 더욱 발달
- 5) 가세이(化政)문화의 발생
 - 가세이시대 : 분카(文化) · 분세이(文政) 시대, 19C초, 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徳川家斉) 시대
 - 에도시대 후기의 조닌문화 : 겐로쿠시대의 조닌문화가 에도를 중심으로 번영

6) 가세이문화의 대표적인 작품

- ① 소설
 - 짓펜샤 잇쿠(十返舎一九) : 도카이도추히자쿠리계(東海道中膝栗毛)
 - 시키데이 산바(式亭三馬) : 우키요부로(浮世風呂), 우키요도코(浮世床)는 소위 곱게이본(滑稽本)이라 불리는 것으로, 민중들의 생활을 회화 중심으로 익살스럽게 묘사한

작품

- 다키자와 바킨(滝沢羆琴) : 난소사토미햏켄덴(南総里見八犬伝)
-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 - 요미혼(読本), 역사나 전설을 제재로 한 장편소설 또는 단편소설집

② 하이카이

- 요사 부손(与謝蕪村) : 화가의 감각으로 사생을 중시하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
- 고바야시 잇사(小林一茶) : 약자의 입장에 서서 인간의 사랑을 노래

③ 센류(川柳) · 교카(狂歌) : 익살과 풍자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센류와 교카가 유행

④ 니시키에(錦絵)의 발명 : 여러 가지 색채를 사용한 판화

- 기타가와 우타마로(喜多川歌麿) : 미인화로 유명
-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 풍경화로 유명, 부악삼십육경(富嶽三十六景)
- 안도 히로시게(安藤広重) : 동해도오십삼차(東海道五十三次)

5. 에도시대 말기의 정치와 사회

(1) 막부정치의 위기

- 1) 사회불안의 고조 : 덴포연간(1830~1843)에 기근이 연달아 발생해 빈번히 하쿠쇼잇기와 우치고와시를 일으킴
- 2) 오시오 헤이하치로(大塩平八郎)의 난 : 1837년 오사카
- 3) 덴포개혁의 실시
: 로주 미즈노 다다쿠니(水野忠邦)가 막부의 정치를 교호 · 간세이시대로 돌리고자 한 정치개혁(1841년)
- 4) 덴포개혁의 내용
 - ① 물가인하 : 검약령의 엄격한 시행, 풍속의 단속, 가부나카마 해산, 대상인의 매점매석 단속
 - ② 황폐해진 농촌 구제책 : 에도와 오사카로 온 농민들을 농촌으로 돌려보내는 정책
- 5) 덴포개혁의 결과
: 미즈노 다다쿠니는 에도와 오사카 주변의 다이묘와 하타모토의 영지를 막부의 직할령으로 삼으려 했다가, 로주에서 물러나고, 결국 2년여에 걸친 개혁은 실패로 돌아감
- 6) 번정의 개혁 : 사쓰마번(薩摩藩, 가고시마현)이나 조슈번(長州藩, 야마구치현) 등 몇몇 번만이 성공
- 7) 하급무사의 대두 : 번정개혁에 성공한 사쓰마번과 조슈번 등에서는 서양식 군대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급무사들이 번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어 뒷날 메이지유신을 추진하는 세력이 되어감

(2) 존왕양이운동의 격화

- 1) 양이론과 존왕론의 침투
 - 유학을 배운 다이묘나 무사들 사이에서 외국인을 몰아내고자 하는 양이론이 강함
 - 막부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무사들은 황실을 존경해야 한다는 존왕론을 근거로 막부에 반대
- 2) 존왕양이운동의 발전
 - 막부가 조정의 허가 없이 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양이론과 존왕론이 결합하여 존왕양이운동으로 발전
 - 미토번, 조슈번, 사쓰마번, 도사번의 하급무사나 조정의 공가가 중심이 됨
- 3) 안세이(安政)의 대옥(大獄)과 그 영향
 - 안세이대옥 :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가 반대파인 공가와 다이묘를 처벌
 - 안세이 대옥의 결과, 존왕양이파의 막부에 대한 반감이 강해짐
→ 1860년 이이 나오스케가 미토번의 로닌들에 의해 살해당함
 - 물가상승, 외국에 대한 반감이 강해져 존왕양이운동이 격화
→ 1861년 막부는 존왕양이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공무합체운동을 전개
- 4) 조슈번과 존왕양이운동
 - 조슈번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제자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 등 하급무사의 발언력이 강화되어 조정의 양이파인 공가와 결합했고, 막부에 대해 양이의 실행을 요구해 존왕양이운동의 중심이 됨
- 5) 조슈번과 사쓰마번과의 양이실행
 - ① 조슈번 : 1863년 시모노세키해협을 통과하는 외국선박을 포격
 - ② 사쓰마번 : 1863년 사쓰에이(薩英)전쟁
⇒ 양이가 실제로 불가능함을 깨달음

(3) 에도막부의 멸망

1) 양이(攘夷)에서 도막(倒幕)으로

- 양이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조슈번과 사쓰마번의 하급무사들은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중심의 통일국가를 세우려함
- 군비의 충실 : 이들 하급무사는 번의 실권을 장악하고 서양식 군비를 갖추.
- 번의 실권을 장악한 하급무사
 - 조슈번 : 다카스기 신사쿠,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充)
 - 사쓰마번 :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2) 에도막부의 쇠퇴

- 막부는 두 차례 조슈정벌을 행하였지만, 실패함
- 1차 조슈정벌(1864) : 조슈번이 4개국 연합함대에 패한 것을 계기로 조슈번을 항복시킴
- 2차 조슈정벌(1865~1866) : 막부군은 군비를 갖춘 조슈번에 패배, 철수
- 삿초동맹(1866) : 도사번의 사카모토 료마(坂本竜馬)의 중개로 사쓰마번의 대표 사이고 다카모리와 조슈번의 대표 기도 다카요시가 맺은 군사동맹

3) 에도막부의 멸망

- 대정봉환(大政奉還)(1867) :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가 조정에 권력을 되돌려 줌

■ 주요용어

센고쿠다이묘 (戦国大名)	센고쿠시대에 각지에 할거하였던 대영주로, 부국강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영국(領国)에 대한 강력한 지배를 행하였다.
라쿠이치·라쿠자 (楽市·楽座) 정책	특권적 동업자집단인 좌(座)의 특권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인정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꾀한 정책으로, 근세적인 도시·상업관계의 성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이코겐치 (太閤檢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적으로 행한 통일적인 토지조사사업으로, 중세적 토지소유관계가 일소되고 근세적인 토지소유관계가 성립되었다.
하타모토(旗本)	영지 1만석 미만의 쇼군(將軍)의 직속가신으로, 쇼군과 알현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산킨고다이 (参勤交代)	대표적인 다이묘 통제 정책으로, 다이묘를 일 년씩 교대로 에도와 영지에 거주시켰다.
혼바쿠쇼 (本百姓)	에도시대 농민층의 근간이 된 계급에 대한 신분호칭이다. 전답과 가옥을 소유한 자영농으로, 연공과 여러 과역을 부담하였다.

■ 정리하기

- 오닌(応仁)의 난의 결과, 새로운 성격의 권력이 각지에서 생겨났는데 이를 센고쿠다이묘(戦国大名)라고 한다. 센고쿠다이묘는 막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분권적인 권력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영국(領国) 내를 독자적으로 강력히 지배하였다.
-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뛰어난 군사지휘자로서 천하통일의 대업을 달성해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정치나 경제의 질서, 권위에 도전하여 파괴하고 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해나갔다. 세키쇼(関所)의 철폐나 라쿠이치·라쿠자(楽市·楽座) 정책,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인 겐치(檢地)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 근세적 질서를 수립하고 통일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추진한 중심정책으로 토지조사사업인 다이코겐치(太閤檢地)와 신분통제정책인 가타나가리(刀狩り)·히토바라이레이(人掃令)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결과, 중세적 토지소유관계가 일소되고 근세적인 토지소유관계가 성립되었다. 후자의 결과, 신분이 확정되고 병농분리가 완성되어 에도(江戸)시대의 신분제도의 전제가 형성되었다.
- 에도시대에는 쇼군(將軍)이 다이묘의 영주권을 인정하는 한편, 쇼군권력이 영주권을 집권적으로 편성하여 봉건적 지배를 강화하였다. 즉, 번의 독자성·독립성이 인정되었지만, 그것은 막부의 허용 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하나 하나의 번들 전체를 강력히 통제하고 지배한 것은 막부였다. 이처럼 강력한 영주권을 가진 쇼군의 막부와 다이묘의 번이 토지와 인민을 함께 통치하는 지배체제를 막번(幕藩)체제라고 한다.

7.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곳으로 무사나 상공업자의 거주지, 신사, 절 등으로 이루어진 곳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무라(村) ② 부락(部落) ③ 쇼(庄) ④ 조카마치(城下町)
8. 8대 쇼군 요시무네가 이에야스 시대의 정치를 이상으로 내걸고 막부의 재정재건에 힘쓴 개혁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다누마개혁 ② 덴포개혁 ③ 교호개혁 ④ 간세이개혁

<정답> 1.① 2.① 3.② 4.① 5.④ 6.① 7.④ 8.③

[강의 연습문제]

1. 다음 중에서 센고쿠다이묘(戦国大名)의 부국강병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가신단의 편성 ② 가타나가리(刀狩り)
 ③ 분국법의 제정 ④ 겐치(檢地)
2. 전국통일과정에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최대의 적은 정토진종(浄土真宗) 혼간지(本願寺) 교단, 즉 ()의 신도들이 일으킨 무장봉기인 ()이다. () 안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각각 적으시오.
 _____, _____
3.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근세적 질서를 수립하고 통일정권을 확립하고자 추진한 중심정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다이코켄치(太閤檢地) ② 가타나가리(刀狩り)
 ③ 데라우케제도(寺請制度) ④ 히토바라이레이(人掃令)
4. 에도(江戸)시대에 쇼군(將軍)으로부터 1만석 이상의 영지를 받은 영주를 다이묘(大名)라고 하였는데, 다이묘는 쇼군가문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로 구분되었다. () 안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각각 적으시오.
 _____, _____, _____
5. 다음 중에서 대표적인 다이묘 통제 정책인 산킨고타이(参勤交代)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제도화하였다.
 ② 다이묘는 원칙적으로 일 년씩 교대로 에도와 영지에 거주하였다.
 ③ 다이묘의 처자식들은 인질의 의미로 에도에 상주시켰다.
 ④ 교통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정답> 1.② 2.잇코슈(一向宗), 잇코잇키(一向一揆) 3.③ 4.신판(親藩), 후다이(譜代), 도자마(外様) 5.①

8장. 근대국가 일본의 형성

■ 학습개요

17세기 초에 세워진 에도막부는 19세기의 서세동점의 격류에 휘말리면서 요동하기 시작한다. 중국의 아편전쟁 이후 막부정권은 흑선을 이끌고 내향한 페리의 압력에 굴복하며 개국을 결정, 일본열도는 정치적 격변기에 들어간다. 이 장에서는 서구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며 아시아를 덮쳐오는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막부말기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고 1868년 새로이 성립한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각종 개혁을 실시한다. 이후 **부국강병**, **문명개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메이지 정부의 조치들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된다. 여기에서는 막부말기 이후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혁신적 성격을 살펴보고, 일본이 외세의 위협 속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질주하게 되는 과정을 조망해본다.

■ 학습목표

1. 일본의 개국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의 목표와 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한다.
3. 메이지유신 이래 추진된 주요한 개혁정책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메이지헌법의 제정 배경과 그 정치적 성격에 관해 이해한다.
5. 근대 일본의 전쟁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목차

1. 페리의 내향과 막부말기
2. 8개의 지역구분
3. 자유민권운동의 고양과 메이지 헌법의 성립
4. 제국 일본과 계속되는 전쟁들

1. 페리의 내향과 막부말기

(1) 페리의 내향

- 1853년 7월 8일 페리제독이 이끄는 4척의 배(黑船, 구로후네)가 에도(江戸)만 우라가(浦賀)항에 들어옴.
- 페리의 내향 이후 막부는 널리 의견을 구하면서 고민 끝에 1854년 미국과 화친(和親)조약 체결.
- 이후 같은 해 영국 및 러시아와의 조약 체결.
- 1858년 막부의 주도하에 미국을 비롯한 5개국과 수호통상조약(일명 **안세이의 5개국 조약**) 체결.

(2) 국내정세의 전개

- 서양제국과의 조약자체를 반대하는 배외적 기운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에서 조약체결과 관련된 불만은 막부로 향한다.
- 이러한 와중에서 지금까지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천황이 점차 정치권력의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 천황이 부상하는 과정은 에도 사상계에 존재하던 **고쿠가쿠(国学)**와 후기 **미토가쿠(水戸学)**계통에서 제시해온 존황양이(尊皇攘夷)론이 당시 일본이 겪는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서 당대 지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과정이었다.

(3) 막부말기라는 시대 (페리내향 ~ 메이지정부가 들어서는 시기)

● 막부말기에 나타난 사상적인 변화

① ‘서양’의 발견

- 위기의식의 고조와 서양에 대한 관심 증가
 - 나가사키와 란가쿠(蘭学)의 전통
 - 서양제국과 일본의 군사력에서 나타나는 압도적 차이에 주목.

- 중국에 대한 인식 전환
 - 중국과 서양의 압도적인 격차를 확인
 - ⇒ 중국에 대한 멸시로 나감.

② '일본'의 발견

- 막연한 공간의식으로서의 일본에서, 막번(幕藩)의 경계를 넘어선 '하나 된 일본'이라는 자기의식이 생겨남
- 신분제 타파의식(공동체의식) 또한 모습을 나타냄

2. 메이지유신과 근대국가 만들기

(1) 메이지 신정부의 성립과 국내개혁 추진

- 왕정복고(王政復古) 이후 일본에서는 곧바로 보신(戊辰)전쟁(1868.1-1869.5)발생했으나 실패로 끝남
- 신정부는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판적봉환(1869), 관제개혁(1869), 폐번치현(1871), 중앙정부의 개편(1871), 학제발표(1872), 징병령(1873), 지조개정(1873) 등 개혁 단행.

① 판적봉환(版籍奉還) : 지방의 영주인 다이묘(大名)들이 토지와 농민을 천황에게 바치는 것.

사쓰마(薩摩), 조슈(長州), 도사(土佐), 히젠(肥前)에서 주도함.

② 폐번치현(廢藩治縣) : 정부가 전국의 번을 폐하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 현을 설치.

cf) 판적봉환과 폐번치현 - 메이지일본의 중앙집권화 정책을 상징함.

⇒ 일본 열도에 분산되어있던 기존의 정치권력을 해체하고, 명실 공히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형성해감.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국가목표로 추진.

※ 메이지 신정부의 대대적인 문명개화정책

- 단발령
- 검을 휴대하지 못하게 함
- 양력 사용
- 서양식 예복을 관리들의 정식 예복으로
- 의복의 간소화 추진
- 교육기관정비 - 1900년 4년제 의무교육시행, 1908년 아동취학률 97%

③ 징병제 실시, 군사학교 및 군수산업에도 박차, 일련의 군제개혁, 경찰제도 정비

(2) 메이지 신정부의 외교

- <개국화친의 방침>과 <5개조 선언>등을 통해 막부 말기에 체결된 조약의 준수를 선언.
- 열강과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는 문제는 메이지 정부 외교의 최대 과제로 인식됨.
- 만국공법(=국제법)에 근거한 국가 간의 신의와 평등 관념에 입각해서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추진하던 일본 정부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구미시찰 등을 통해, 조약개정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 **이와쿠라 사절단**
 - 목적 : 불평등조약의 개정교섭과 구미의 제도 및 문물시찰
 -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1825-83)를 특명전권대사로 한 구미파견 사절단.
 - 사절단 : 기도 다카요시, 야마구치 마사카, 이와쿠라 토모미, 이토 히로부미, 오키보 도시미치
 - 독일의 비스마르크와의 만남 : “오늘날 세계 각국은 모두 친목과 예의로써 서로 사귀다고 하지만, 이는 완전히 표면상의 명분이며, 은밀한 곳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핍박하는 실정이다”
 - 1871년 후반부터 거의 2년간에 걸쳐 서양의 근대적 산업시설과 금융제도, 정치제도, 군대, 교육 등을 시찰하고 돌아온다.
 - ⇒ 근대국제질서의 야누스적인 양면성을 인식 (열국평등 < 양육강식, 만국대치)
 - ⇒ 국가의 자주적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애국심 고양 및 국력을 진흥시켜 실력으로서 국권을 보존해야함.
 - ⇒ 근대일본의 비전을 '소국이라는 관념에서 대국지향으로' 바꾸어 설정

(3) 메이지 신정부의 분열과 정한론 논쟁

- ‘정한론(征韓論)’논쟁(1873) : 군대를 파병하여 조선을 정복하거나 조선에 정치체제 변혁을 압박한다는 주장
 - 메이지 정부의 일련의 중앙집권화 조치로 인해 실직하게 된 수많은 무사계급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 이와쿠라를 중심으로 한 내치파와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 등의 정한파간에 대립
 - : 이와쿠라 도모미는 천황 앞으로 보낸 의견서 (1873년 10월)를 통해, “조약개정이야말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메이지유신 이래의 기본과제이며, 조선문제는 국력을 충실히 한 후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
 - ⇒ 세이난(西南)전쟁(1877)으로 종결

※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1835~1901)

-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계몽사상가,
- 게이오기주쿠(慶応義塾) 창설
- 시사신보(時事新報) 창간
- 재야사상가로 살면서 ‘근대 일본의 정신적인 아버지로’로 불리며, 현재 만엔 지폐의 주인공.
- 문명개화 3부작 : 서양사정, 학문의 권유, 문명론의 개략
- 이후 ‘부국’과 ‘강병’으로 지나치게 경도되면서, 일본을 침략적인 ‘제국’으로 질주하게 만든 사상적기반을 제공, <통속국권론(1878)>

3. 자유민권운동의 고양과 메이지 헌법의 성립

(1) 자유민권운동의 발흥과 그 성격

- 급진적인 자유민권운동 이론가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는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고, 인민을 탄압하는 전제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민주권설을 선구적으로 주장.
- 자유민권운동이 점차 필연적인 시대적인 대세로 인식되면서 점차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됨.
- 영국식 의회정치를 모델로 하여 헌법을 제정할 것과 국회를 개설하려는 의견서를 제출.
 - ⇒ 입헌제 도입 주도권 경쟁 진행.

(2) 메이지 헌법 제정 과정 및 제국 헌법의 성격

- 자유민권운동의 고양과 번벌권력의 유지 및 재생산이 서로 공존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헌법제정은 메이지 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됨
 - ⇒ 프로이센식의 군권주의적 입헌정치 모델에 기반
- 1882년 <군인칙유> 발표, 천황제적 군대의 기초 확정.
- 1886년부터 헌법 초안 작업 시작하여,
-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발포.
 - ⇒ “제국 헌법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 1870년대와 80년대의 주요사건

- 1871년 폐번치현, 청일수호조약
- 1872년 학제발표
- 1873년 징병령, 지조개정, ‘정한론’ 부상
- 1874년 일본의 대만출병/ 자유민권운동 전개
- 1875년 운요호사건
- 1876년 질료처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 1877년 세이난(西南)전쟁
- 1879년 일본의 류큐병합

- 1881년 메이지14년 정변
- 1882년 <군인칙유>, 임오군란-청의 조선압박 시작
- 1884년 청불전쟁, 갑신정변-일본군과 청국군 충돌-청의 조선 압박 심화
- 1885년 후쿠자와 <탈아론> 발표, 내각제도 제정
- 1886년 각급 학교령
-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 1890년 일본에서 제1회 중의원 총선거 실시, 제국의회 설립, <교육칙어> 제정

4. 제국 일본과 계속되는 전쟁들

(1) 청일전쟁(1894년)의 의미

- 청일전쟁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다.
-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 청일전쟁은 중화문명권의 문명기준이 명실상부하게 역전되었으며, 동아시아에서 중화 질서가 사실상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냄.
-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기존의 문화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예의(禮義)를 중시하던 '사대교린' 질서 혹은 중화질서로부터, 근대 주권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무정부적인 속성을 지닌 근대국제질서로 변화했음을 의미.

(2) 러일전쟁(1904년)의 의미

-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구미제국에게 핍박받던 아시아인들을 열광시켰고, 제국 일본의 팽창 의도는 은폐되고 오히려 동양 혹은 아시아의 지도국가로서 한동안 일본의 이미지가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러시아의 랴오둥 반도 조차권을 계승하여 오랜 숙원이던 대륙 침략의 확고한 기반을 획득,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음. 일본의 조선 보호권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사실상 확보함.

(3) 20세기 일본의 전쟁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일본은 적도이북의 독일령 남양군도를 공략하고 독일 조차지인 산둥반도의 칭다오(靑島)를 공격하여 점령
- 1918년부터 1922년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이 이루어짐.
- 1931년 만주사변
- 1937년 중일전쟁
-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

▣ 주요용어

페리의 내항	1853년 페리 제독이 4척의 구로후네(黑船)를 이끌고 들어온 사건으로서 이후 일본 개국의 시발점이 된다.
존황양이 (尊皇攘夷)	막말 유신기에 일어난 반막부·반외세적 정치운동을 나타내는 이념이자 슬로건. 쇼군(將軍)대신에 천황을 받들어 섬기면서 외세를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판적봉환 (版籍奉還)	메이지 정부는 지방의 번주들이 토지와 백성을 조정에 반납하는 형태를 통해 번(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했는데, 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중앙집권화의 한 과정으로서 1869년에 실시되었다.
메이지유신 (明治維新)	1860년대 말 일본의 근대화를 결정짓는 체제전환을 가져온 일련의 사건. 넓은 의미로는 막말의 토막(討幕)운동으로부터 천황제 메이지 정부 수립까지를, 좁은 의미로는 체제교체를 결정지은 '대정봉환(大政奉還)'과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가리킨다.

폐번치현 (廢藩置縣)	메이지 정부가 1871년 전국의 번을 폐하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 현(縣)을 설치한 정치제도 개혁을 일컫는다. 판적봉환과 함께 일본의 중앙집권화 정책을 상징한다.
문명개화 (文明開化)	양이론(攘夷論)을 대신하여 메이지 일본의 기본적 정책방침이자 사회현상이 된 이념. 양이론에서 문명개화로 변화는 전환기의 패러다임 전환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부국강병 (富國強兵)	서세동점이 진행되는 위기상황에서 일본의 양이파·개화파를 막론하고 나타났던 슬로건이자 메이지 정부의 기본적 정책이념이다. 나라의 경제력을 부유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는 뜻.
정한론 (征韓論)	파병하여 조선을 정복하거나 조선에 정치체제 변혁을 압박한다는 주장을 일컫는다. 에도 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에 일본 정부의 안팎에서 논의되었으며, 메이지 정부는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의견대립과 갈등 조정 과정을 겪었다.
메이지헌법	1889년 2월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에 시행된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일본의 헌법이다. 공식 명칭은 ‘대일본제국헌법’이며, 약칭해 제국헌법, 또는 메이지 헌법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일명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전후 일본국 헌법과 대비시켜 구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평화헌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한 번도 수정이나 개정되지 않았다.
교육칙어	1890년 일본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발표된 일종의 교육헌장. 천황 중심의 교육을 통해 천황에 충성하는 ‘충량한’ 신민을 기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국주의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여 식민지로 삼는 침략주의적인 경향이나 국가 정책.
청일전쟁	1894년 동학농민봉기를 계기로 조선에 들어선 일본군이 조선 왕궁을 점령,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과 교전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전쟁. 이 전쟁으로 일본은 조선을 둘러싼 중국과의 세력경쟁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중화문명권에 결정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
러일전쟁	1904년 만주와 조선을 둘러싼 세력 다툼으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 1902년의 영·일 동맹 성립 이후 러시아는 만주 철병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곧 강경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역시 강경론이 고조된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교섭이 진행되지만, 1904년 일본이 랴오둥반도 여순항과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했다.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청년에 의해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된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1918년까지 유럽 전역을 휩쓴 세계 최초의 총력전. 동맹국(주도국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터키)과 연합국(주도국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이 맞서 싸운 결과 동맹국의 패배로 끝났다.

▣ 연구과제

1. 페리의 내항이후 일본이 서양국가와 조약을 맺은 것은 일본의 정치외교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조사해보자.
2. 메이지유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정리해보자.
3. 청일전쟁은 일본인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조사해보자.

[평가문제]

1.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메이지정부가 취한 조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러시아와 가라후토-지시마 교환조약을 맺어 영토경계를 확정하였다.
 - ② 류큐처분을 통해 오키나와를 강제로 일본영토로 편입시켰다.
 - ③ 판적봉환을 통해 봉건영주와 무사계급의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이들을 몰락시켰다.
 - ④ 지조개정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하였다.

2. 존왕양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서양과의 전쟁을 통해 양이론자들은 개국론으로 전환하였다.
- ② 조슈, 사쓰마, 도사, 아이즈 번 출신의 하급무사들이 주도하였다.
- ③ 지방의 호농층이 입지사(立志社)를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막부를 타도하고 근대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메이지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흡정헌법이다.
- ②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 ③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중심이 되어 헌법제정을 추진하였다.
- ④ 영국의 의회제 중심의 정치체제를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

4. 메이지정부의 사민평등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사족의 신분을 철폐하였다.
- ②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평등하게 하였다.
- ③ 화족의 신분을 창설하였다.
- ④ 이에제도를 폐지하였다.

5. 미일수호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이 조약의 체결은 존왕양이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같은 해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나라와도 같은 내용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③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본격적으로 개국을 하게 되었다.
- ④ 이 조약은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에게는 평등한 조약이었다.

6. 메이지정부가 봉건적인 지배기반을 없애고 근대적인 행정단위를 마련한 조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폐번치현(廢藩置縣) ② 관적봉환(版籍奉還) ③ 지조개정(地租改正) ④ 질록처분(秩祿処分)

7.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십오년전쟁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관점에서 제시된 명칭이다.
- ② 태평양전쟁은 '미국 제국주의 대 아시아 식민지'라는 대립구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본군부가 사용한 명칭이다.
- ③ 십오년전쟁에서 십오년은 만주사변 발발 시기인 1931년에서 태평양전쟁 종결 시기인 194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④ 태평양전쟁이라는 명칭에는 아시아대륙에서의 전쟁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하나 시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시대순으로 나열할 때 네 번째 오는 것은?

- ① 러일전쟁 ② 청일전쟁 ③ 진주만기습 ④ 만주사변

9. 전시기에 전시행정을 말단에서 지원한 주민조직은?

- ① 산업보국회(産業報国会) ② 고닌구미(五人組)
- ③ 도나리구미(隣組) ④ 요리아이(寄合)

10.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서 유일하게 격전장이 되어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많이 사망한 곳은 어디인가?

- ① 오사카 ② 나가사키 ③ 오키나와 ④ 히로시마

<정답> 1.③ 2.① 3.① 4.③ 5.④ 6.① 7.② 8.③ 9.③ 10.③

9장. 현대 일본정치의 성립과 전개

■ 학습개요

19세기 이후 일본정치는 국제정치의 흐름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일본의 정치와 외교도 국제정세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점령군의 전후개혁이 이루어졌고, 평화헌법이 탄생하였다. 일본은 냉전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이 진행중이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다시 주권을 회복하였고,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미국의 안보우산 속으로 들어갔다. 이후 일본정치에서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른바 '55년체제'라고 불리는 보수정당의 장기집권과 경제우선정책이었다. 이 장에서는 전후 일본정치의 내용에 관해 조망해본다.

■ 학습목표

1. 전후개혁의 목적과 내용에 관해 이해한다.
2. 평화헌법의 내용과 그 의의를 살펴본다.
3. 냉전과 '역코스'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4. 일본이 전후 자신감을 확대해 가는 과정을 이해한다.

목차

1. 미국의 점령통치와 전후개혁
2. 평화헌법의 정착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3. 55년 체제의 성립과 고도성장기의 정치
4. 냉전질서의 변동과 정치외교

1. 미국의 점령통치와 전후개혁

(1) 전후개혁의 방식과 의도, 그리고 개혁의 내용

- 배경: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미군이 일본에 진주하면서 1952년 4월 강화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약 7년간 점령통치 실시.
- 방식과 의도: 연합국 총사령부(GHQ)는 독일에 대한 직접통치방식과는 달리 일본정부를 통한 '간접통치' 방식을 채택. 민족주의적 저항감을 회피.
- 전후개혁의 목적: 일본의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와 민주화(democratization)
- 개혁내용: 육해군을 무장해제하고 해체. 육·해군성·군수성 등 관료기구를 폐지. 극동 군사재판에서 전범처리와 공직 추방. 천황의 탈신격화와 상징천황제로 존속. 신도(神道)의 국교화 폐지.

(2) 민주화를 위한 개혁

- GHQ는 여성참정권 부여, 노조 결성의 장려, 교육의 민주화, 인권탄압기구의 폐지, 경제기구의 민주화 등 '5대 개혁지침'을 시달.
- 일본정부는 즉각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해온 치안유지법·사상범보호관찰법 등을 폐지하는 한편, 그 담당기구였던 내무성과 특별고등경찰을 폐쇄하고, 약 2,400명의 정치범을 석방. 여성참정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 노조 결성 장려.

2. 평화헌법의 정착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 전후개혁의 의도와 경과 : 맥아더는

- ① 상징적 존재로서의 천황제의 존속,
- ② 일체의 전쟁과 군비의 포기,
- ③ 귀족제도의 폐지라는 3원칙에 입각한 헌법초안의 작성을 GHQ 민정국에 지시. 여기서 작성된 헌법초안이 일본정부에 제시되어 1946년 10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됨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

2) 평화헌법 제9조:

-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지한다.
-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지(保持)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헌법 제9조 해석의 변천 (= 해석개헌의 시작)

- 1950년 한국전쟁중에 경찰예비대 설치: “경찰예비대의 목적은 국내 치안유지에 있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다.”
- 1954년 자위대 발족: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력은 근대적인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장비와 편성을 구비하는 것인데, 자위대의 병력은 이러한 전력에 못 미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 미일안보조약 체제의 성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월 8일 체결(조인)-52년 4월 28일 비준(발효) = 같은 날에 미일안보조약 조인과 발효 이루어짐.
- 요지: 일본은 미국에 대해 자국 내 영토를 군사기지로 제공하고,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진다.
- 의의: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과 개방된 자유무역질서에 무임승차하면서 자국의 국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었다.
- 요시다 독트린:
 - ① 친미주의와 소극적 안보정책
 - ② 경제우선주의
 - ③ 보수적인 질서의 공고화 = 이후 자민당 보수분류 노선의 근간

cf) 요시다 시게루(1878-1967, 다섯 차례 총리역임)의 입장 : 비무장 중립안과 재무장안에 대한 비판

- 전후개혁의 궤도수정: 동유럽의 공산화, 중국의 공산화, 한국전쟁 등 동서냉전의 진행과 발맞추어 미국의 일본에서의 점령정책은 수정되어 간다. 이른바 ‘역코스’(reverse course)의 진행으로 전후처리 과정이 생략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국 일본에서는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체계를 주축으로 한 전후체제가 형성 되었다.

※ 평화헌법의 의의

① 전통성 원리의 전환

: 천황주권에서 국민주권의 확립

② 의원내각제의 제도화 : 의회정치 확립

-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
-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우위와 참의원에 대한 중의원의 우위 (중의원- 예산, 조약, 수상지명권)
-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수상의 중의원 해산권

③ 보수분류의 형성

: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성장에 주력

※ 헌법 제9조 해석의 변천

① 1950년 경찰예비대 설치

: “경찰예비대의 목적은 국내치안유지에 있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다”

② 1954년 자위대 발족

: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력은 근대적인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장비와 편성을 구비하는 것인데, 자위대의 병력은 이러한 전력에 못 미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③ 1957년 기시내각

: “헌법이 금하는 전력은 어디까지나 공격용 전력이기 때문에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④ 현재 아베내각 : ‘집단적 자위권’이 논의되고 있다.

3. 55년 체제의 성립과 고도성장기의 정치

(1) 1950년대 : 55년체제 성립

- 배경: 전후 일본의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보수정당들 간의 대립과 항쟁이 가져온 정국의 불안, 좌·우파 사회당의 통합, 재계의 압력
- 1955년 11월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하여 거대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결성.
⇒ 보수당 우위의 안정된 지배체제 정착. 자민당 일당 우위 하의 보-혁 양당제적 구조.

(2) 1960년대: 일본정치의 변화

-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의 **소득배증계획(所得倍增計劃)**추진
- 물질적 풍요의 확산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 유권자들의 보수화와 탈이데올로기화
 - **혁신자치제**의 확산.

※ **혁신자치제**

- 자치단체의 장이 정부 여당이 아니라 사회당, 공산당 등 혁신정당 계열이거나 시민단체 출신인 경우를 가르킴
- ‘지방에 의한 중앙 포위’를 내건 혁신계 정당들과 ‘생활방위’를 내건 지역주민들의 민주적 에너지가 결합하여 탄생시킨 것.
- 1960년대 중반 이해 약 15년간 일본의 지방정치를 석권
- 의의 : 자민당 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성장위주 정책을 크게 수정하여 환경과 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됨

- 이념적 가치를 둘러싼 ‘큰 정치’가 사라지고 이익분배를 둘러싼 ‘작은 정치’(이익유도정치)가 일본정치의 지배적 조류로 자리 잡게 됨. (자민당, 관료, 재계의 3자간 유착관계 확산)
⇒ 1960년대 : ‘경제의 계절’로 전환.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시대

4. 냉전질서의 변동과 정치외교

(1) 냉전에서 데탕트로

- 닉슨 독트린(1969)과 닉슨의 중국방문(1972) : 안보에 대한 일본의 위기의식 확산
- 1973년의 석유위기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군사적인 요인들에 관심을 갖게 함.
- **경제안보론** : 천연자원이 빈곤한 일본에게는 해외시장의 폐쇄나 에너지의 공급 중단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안보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
- **총합안보론** : 경제안보론을 좀 더 넓게 개념화한 것으로서, 일국의 안보는 단지 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에 대비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나 환경 등 비군사적인 분야의 목표도 안보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군사적 요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군사적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2) 데탕트에서 신냉전으로

- 배경: 1979년 2차 석유파동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1년 레이건 행정부 등장
-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지칭하며, 군비 증강과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략방위 구상(1983,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SDI)**을 추진하여 소련을 압박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책임 분담’ 압력.
- 일본 국내에서도 군사적 국제공헌론 대두
 - ※ 일본에서 방위력 증강에 대한 국내여론의 저항이 약화되고 군사적 국제공헌론이 대두된 배경
 - ①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security free rider)’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 ② 전후 세대의 성장으로 인한 전쟁 체험의 풍화현상,
 - ③ 미일안보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등

- 1982년 신보수주의를 자처하는 나카소네 정권의 등장
 - 경제대국 일본에 걸맞게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불침항모(不沈航母)설”제기.
 - 나카소네 정권은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걸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전후 처음으로 공식 참배.
 - 천황을 미화하는 새로운 교과서를 채택.
 - 각 학교에서 히노마루(日の丸), 키미가요(君が代)등을 강요.
 - 정치/군사대국화의 추진. 방위비의 GNP 1%한도 철폐.
- ⇒ 1980년대 이후 일본 안보외교의 특징 : 미일동맹 하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

(3) 탈냉전

1)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외교 추진 요인

- 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공헌 요구 - 가장 중요한 요인
- ② 중국의 급부상과 아시아의 세력균형의 변화.
- ③ 북한정세의 변화 -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보유.
- ④ 보수화된 일본의 국내여론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국가론’ : 전후의 상인국가, 통상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군사적 보통국가로 거듭날 것을 주장)

2) 55년 체제의 동요:

- 1993년 7월 총선으로 보수-혁신 대립 축의 소멸과 정당제의 유동화
 - (자민당 일당우위 붕괴, 제1야당이던 사회당 몰락 → 공산당을 제외한 호소카와 연립내각출범)
- 55년체제의 연속성과 단절성

국제정치의 탈냉전(좌파 이데올로기 쇠퇴. 사회당 몰락), 보수당의 다당화(자민당의 단독 일당우위 붕괴. 연립정권의 시대)	vs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은 여전히 유효, 자민당의 일당우위 지배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속 유지됨.
---	----	--

3) 전후 일본 정치의 쟁점과 정당제의 구조변화

	1950년대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국내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전 체험 • 냉전 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성장 • 동서 데탕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위기 • 신냉전 • 미일경제마찰 • 국제공헌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 종식 • 장기 불황 • 국제공헌 압박
정치의 주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헌법 수호 vs. 자주개헌(재무장) • 미일안보 존속 vs. 폐기 • 자위대 합헌 vs. 위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헌논쟁 중단 • 공해, 복지문제 (합의 쟁점) • 이익유도정치 vs 정치부패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행정개혁, 규제완화, 시장개방) vs 세계화 비판 • 이익유도정치 vs 정치부패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국제공헌 vs 비군사적 국제공헌 (개헌론 부상) •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vs 세계화 비판 - 정치리더십의 강화
정당제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당 일당 우위하의 자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당 일당우위하의 다당화 • 보-혁신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당 일당우위하의 다당화 • 보-혁신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당 일당우위의 동요 • 연립정권 • 보수세력의 다당화

▣ 주요용어

냉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까지 진행되었던 차가운 전쟁.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두 개의 이념으로 나누어진 진영 간에 군사, 경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했던 상황을 의미한다.
전후개혁	전후 GHQ와 그 영향하에 있는 일본정부에 의해 추진된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적으로 한 개혁.
연합국 총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의 약칭.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를 말한다. 맥아더를 최고사령관으로 하여, 일본정부에게 점령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1952년 강화조약의 발효로 폐지되었다.
평화헌법	1946년 11월에 공포된 일본국 헌법을 지칭한다. 헌법의 제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며 전력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갖게 된 별칭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9월 8일, 태평양 전쟁의 전후처리와 점령의 종결을 결정한 강화 조약이다. 한국 전쟁을 통해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재확인한 미국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소련과 중국 등 이른바 공산진영을 제외한 단독강화로 이루어졌다.
미일안보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던 날에 함께 성립된 안보조약으로, 일본은 미국에 대해 영토 내 군사기지를 제공할 것을,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의 안보우산과 자유무역체제 아래 경제성장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
요시다독트린	외교적으로 미국을 따르면서 안보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부흥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통해 보수정치의 질서를 공고화하려는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55년체제	1955년 일본에 성립된 정치체제로서 보수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혁신 야당인 사회당이 이후 양대 정당체제로 자리 잡게 된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양당체제였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세력비율은 항상 2:1로 보수적인 자유민주당이 우위에 있었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연립내각이 탄생되면서 동요되었고, 2009년의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서 사실상 붕괴되는 운명을 겪게 된다.
소득배증계획	요시다 독트린에 따라 미·일 안보하에서의 경제우선을 추구한 이케다 하야토 내각에서 추진된 계획으로, 연 9%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향후 10년 안에 국민소득을 2배 이상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총합안보론	경제안보론을 보다 넓게 개념화한 것. 국가의 안보는 단지 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나 환경 등 비군사적인 분야의 목표도 안보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군사적 요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군사적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공헌론	전후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경제성장을 도모해 온 일본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난이 커짐과 함께 등장한 주장. 헌법 9조를 둘러싸고 군사적·비군사적 국제공헌론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다가 걸프 전쟁(1991)을 계기로 군사적 국제공헌론이 강화 추세를 이루고 있다.

■ 연구과제

1. 평화헌법은 패전 직후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사해보자
2. 한국전쟁은 전후 일본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그 내용에 관해 살펴보자.
3. 전후 일본사회는 일본의 전쟁과 군국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에 관해 조사해보자.
4. 전후 일본의 소극적 안보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제도적인 틀이 무엇이었던지 조사해보자.

[평가문제]

1. 평화주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겠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헌법 조문은?
 ① 헌법 전문(前文) ② 헌법 제1조 ③ 헌법 제7조 ④ 헌법 제9조
2. 미점령군의 일본점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점령 초기에 미점령군은 사회안정을 위해 전전 사회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② 점령은 미군에 의한 직접통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③ 점령은 미군에 의한 단독점령으로 이루어졌다.
 ④ 미점령군은 미국의 산업정책을 모델로 하여 일본의 경제부흥을 추진하였다.
3. 미점령군의 점령정책이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① 동서간의 냉전체제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② 일본국민들의 점령정책에 대한 저항이 강했기 때문에
 ③ 일본 내에서 체제전복을 꾀하는 급진세력이 대두하였기 때문에
 ④ 일본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4. 일본국헌법은 1946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몇 차례나 개정되었는가?
 ① 한 번 ② 두 번
 ③ 세 번 ④ 지금 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5. 전후에 제정된 신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① 일본은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② 황위계승의 절차 및 순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③ 일본은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을 보유함을 명시하고 있다.
 ④ 메이지헌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6. 일본의 배상문제는 어떻게 귀결되었는가?
 ① 막대한 배상액은 일본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② 배상요구가 완화되어 일본은 배상부담에서 벗어나 전전의 시설을 경제부흥에 이용하였다.
 ③ 냉전체제가 성립되면서 일본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커졌다.
 ④ 배상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정답> 1.④ 2.③ 3.① 4.④ 5.① 6.②

10장. 일본의 천황제와 역사인식

■ 학습개요

천황은 일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천황제가 언제 어떻게 제도화된 것이며, 패전 이후 상징천황제는 과거의 천황제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 천황의 전쟁책임문제를 통해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를 검토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도 조망해보기로 하자.

■ 학습목표

1. 일본정치에서 나타나는 권력과 권위의 이중구조를 이해한다.
2. 일본제국의 천황제와 전후 상징천황제의 연속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3. 일본에서 천황 및 황실의 존재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4.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의 차이를 살펴본다.
5. 동아시아 국가에서 역사교과서 논쟁이 나타나는 맥락을 설명할 수 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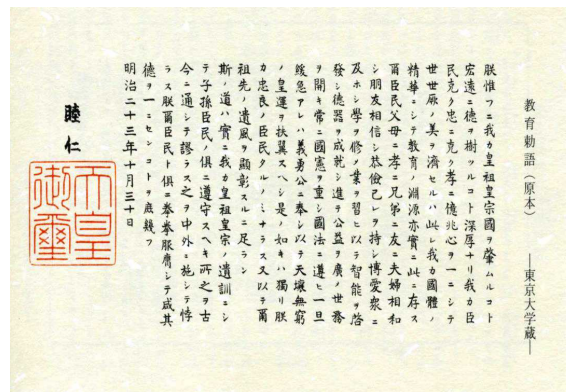
1. 근대 일본천황제의 성립과 전개
2.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
3. 천황의 전쟁책임과 역사인식 문제
4.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심층

1. 근대 일본천황제의 성립과 전개

- 전전의 천황은 아라히토가미, 즉 현인신(現人神)이라고 하여 절대권위와 권력을 가진 존재.
- 메이지 시대에 이루어진 천황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만들기 작업
- 헌법제정과정에서 이데올로그들의 고민
 - 어떻게 헌법의 틀 위에서 천황제와 근대적 정치제도인 의원내각제를 결합시킬 것인가?
- “제국 헌법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 천황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자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독점하며 육해군을 통솔하는 존재로 규정
- 교육칙어(1890)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
: 이세신궁(伊勢神宮) - 미에현



<교육칙어>

2.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

- 1945년 9월 27일 일본의 쇼와천황이 맥아더 장군을 접견한 사진
- 극동군사재판에서 천황의 전쟁책임 면죄

◎ 전전과 전후의 일본 천황제

- 변화의 측면: 주권이 천황에게서 국민으로 전환됨.
 - 신헌법의 1조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자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 연속의 측면: 에도시대 미미했던 천황의 위상, 그리고 막말의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천황이 권위의 중심에서 정치권력과 권위의 일체로 부상하는 과정, 그리고 다이쇼이후의 위기상황과 패전 직전의 극적인 위기상황에서 다시 부상.

3. 천황의 전쟁책임과 역사인식 문제

Q. '종전(終戰) 조서'에 담긴 내용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 ① 패전에 관한 인식이 등장하지 않음
- ② 주변국에 대한 침략 등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 ③ 태평양전쟁을 ‘자존과 자위의 전쟁’이며, ‘동아의 안정을 위한 전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④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천황의 ‘결단’만을 강조함으로써 ‘전쟁책임’문제를 애초에 회피하려 하고 있다.
⇒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에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종전조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야 함.

4.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심층

(1) 오리엔탈리즘

- 근대화의 추진은 서구 근대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근대를 절대화하고 미화하는 경향을 띠게 됨.
⇒ 결국 전후 ‘근대화’의 추진은 곧 ‘서구화’의 진행에 다름 아니었다.
- 이후 20세기 후반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의 저서 : <오리엔탈리즘(1979)>)
- 일본형 오리엔탈리즘
: 19세기 후반 이래 구미국가의 오리엔탈리즘을 접하게 되면서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일본’을 동양에서 예외적으로 문명세계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동양 국가들은 나약하고 나태하며 뭔가 중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사유한다.
(예) 후쿠자와 유키치의 표현을 들면, 중국이나 조선의 경우는 ‘완고하고 고루하며, 편협하고, 의심이 많고, 구태의연하고, 겁 많고 게으르며, 잔혹하고 염치없으며, 거만하고 비굴하고 잔인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
- 냉전의 발생, 전개와 아울러 전후처리가 임기응변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주의를 상대화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자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질문을 새로이 진지하게 던지게 된다.
⇒ 동아시아 국가들간 기억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
- 조지오웰의 <1984> :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즉 기억의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진실의 영역인 동시에 권력의 영역이기도 한 것이다. 아울러 어떤 특정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어떤 사실을 망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일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사다시쓰기’를 둘러싼 논의는 ‘기억을 둘러싼 일종의 내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격렬하게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기 쉬움.
예) 야스쿠니 신사 내 전쟁박물관, 오키나와의 평화기념관,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유대인 대량학살 추도비

▣ 주요용어

천황	고대로부터 세습적으로 이어져 온 일본의 군주를 가리키지만, 일본정치사에서 천황의 의미는 전통적 이중구조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일본역사, 특히 에도 시대에 천황은 실질적인 권력보다는 정신적인 권위를 갖는 존재로 이해되어 존속되었다.
막부	일본의 전통적인 이중구조에서 실질적 권력자 역할을 했던 정치기구를 말한다. 쇼군(將軍)을 최상위로 두고 하위에는 당시 지배층이었던 무사들이 위계질서를 구성했다.
국체(國體)	국체란 신성한 기원을 지닌 만세일계의 천황제를 모태로 하는 가족국가를 의미한다. 즉 천황과 국가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말로서 근대 일본인들에게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작용하였다.
천황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동일가계(同一家系)의 세습 천황이 존속하고 있다고 하는 일본의 독특한 제도를 말한다.
상징천황제	전전의 메이지 헌법이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절대적 권력을 갖는 통치권자로 규정했던 데 반해, 전후 일본 헌법에서는 천황을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징천황제라고 한다.
오리엔탈리즘	서양이 동양을 바라볼 때 가지는 선입견, 혹은 서양의 동양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관념, 이미지를 의미한다. 유럽은 동양을 스스로와 대조가 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일본형 오리엔탈리즘	일본은 19세기 후반 이래 구미국가의 오리엔탈리즘을 접하게 되면서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변형시켰다. 이를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일본'을 동양에서 예외적으로 문명세계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동양 국가들은 나약하고 나태하며 뭔가 중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사유한다.
역사 다시쓰기	이데올로기 대립의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이 냉전 종식과 함께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과거의 상황을 다시 해석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새롭게 접근하려는 세계적 차원의 경향을 일컫는다.
정체성(正體性)	어떤 존재의 참모습, 보통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한다. 정체성은 사회적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 일명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전후 일본국 헌법과 대비시켜 구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평화헌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한번도 수정이나 개정되지 않았다.

■ 연구과제

1.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에 관해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보자.
2. 서구화,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오리엔탈리즘과 일본형 오리엔탈리즘,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사해보자.

[평가문제]

1. 천황의 인간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메이지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메이지천황의 선언을 말한다.
 - ② 이 선언에서 천황은 자신의 전쟁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단일민족으로서 일본국민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천황 스스로가 천황의 신격성(神格性)을 부정한 것이다.
2. 신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해서는 내각이 책임을 진다.
 - ② 천황은 국회의 지명 없이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천황은 내각의 승인 없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 ④ 천황은 국회의 의결 없이 황실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3. 일본의 원호(元号)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원호란 천황의 재위를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 ② 메이지시대에 한 천황의 대에 하나의 원호를 쓰는 일세일원제도가 실시되었다.
 - ③ 쇼와(昭和)에서 헤이세이(平成)로 원호가 바뀐 것은 1989년의 일이다.
 - ④ 패전 후에 원호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현재 원호는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다.
4. 메이지기에 세워진 신사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자를 호국영령으로 모심으로써 천황숭배와 군국주의의 보급에 커다란 역할을 한 신사는?

① 이나리신사(稻荷神社)	② 메이지신궁(明治神宮)
③ 이세신궁(伊勢神宮)	④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5. 패전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일본국민의 천황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가?
 - ① 절대 다수가 천황제 존속을 희망하였다.
 - ② 혁신계인 사회당에서는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 ③ 대부분의 국민은 천황제의 폐지를 희망하였다.
 - ④ 천황제 존속과 폐지를 둘러싸고 일본국민의 여론은 양분되었다.

<정답> 1.④ 2.① 3.④ 4.④ 5.①

11장. 일본 정치문화의 특징과 21세기 주요 쟁점

■ 학습개요

일본정치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비롯하여, 일본의 지리적 특성, 일본어의 사회학적 분석, 그리고 그동안 축적되어 온 일본의 정치적·사회적 전통, 개인의 품성과 미학 등에 대한 이해는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총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빚어내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일본정치문화의 여러 특징들을 살펴보고, 현대일본정치의 주요한 쟁점은 무엇인지를 조망해 본다.

■ 학습목표

1.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일본인의 위기의식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본다.
2. 일본어의 특성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정치문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4. 21세기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일본의 주요한 정치과제와 이슈가 부상하는 배경을 이해한다

목차

1. 지정학적, 언어사회학적 측면에서 본 일본정치문화
2. 정치적 사회적 전통과 일본의 정치문화
3. 21세기 현대 일본정치의 주요 쟁점과 표류하는 일본정치
4. 3·11 사태와 근대 일본 시스템의 성찰

1. 지정학적, 언어사회학적 측면에서 본 일본정치문화

(1) 지정학적 측면

- 섬나라 일본: 문명의 해바라기적 속성,
19C 화혼한재(和魂漢才)에서 화혼양재(和魂洋才)로.
19C이후 탈아(脫亞)와 입아(入亞), 일본의 정체성 문제(아시아적, 서구적, 독자적 정체성)
-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일본: 가옥구조에 반영된 '위기의식'의 일상화,
단결과 조화의 일상화 (이지메 (イジメ)문화)

(2) 언어사회학적 측면

- 일본어 사전을 찾을 때 느끼는 난감함. 수많은 동음이의어.
(예) 가이호우(かいほう) = 개방(開放, 開方), 개법(開法), 개봉(改封), 개포(介抱), 궤붕(潰崩), 쾌방(快方), 쾌보(快報), 해방(解放), 해법(解法), 회보(回報, 會報), 회포(懷抱) 등
- 일본어 발음체계: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체계와 비교해서 생각해볼 것.(예: 어머니, 맥도널드, 南君)
일본어의 음독과 훈독체계, 그 자의적 사용과 절충적 성격.
(예) 日 [음독]にち、じつ / (훈독)ひ、か、
⇒ 맥락이나 문맥(context)을 모르면 논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보편적인 원리보다 구체적인 사안의 중요성, 구체적인 팩트의 중시.
과학적 탐구. 서류문화의 발달. 보편적인 '철학'보다는 구체적인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많다.

2. 정치적 사회적 전통과 일본의 정치문화

(1) '나의 몫'의 정치학

- 自分(나의 몫)의 정치, 사회, 문화: 독자적인 주체보다는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익숙
= 상호의존과 응석(甘え)문화, 관계의 문화 間柄중시
(예) お陰様で, 迷惑をかけないように等等

⇒ 분수에 맞는 삶에 익숙. 자기에게 적합한 위치 찾기에 익숙.

- 職分사회 일본: 소명의를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하는 힘. (간바레 문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중시된다.
- ⇒ 동시에 매뉴얼화 되기 쉬운 인간.
매우 주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매우 타율적인 사고를 할 소지가 큼.
총체적 ‘순응’사회 시스템의 여지,
‘개조’식 사고의 등장. (仕方がないです) -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개조’와 같은 용어 등장

● 볼프렌(Karel van Wolferen) - 「일본권력구조의 수수께끼」

: 일본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권력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이라는 사회 자체가 내부 및 외부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강력한 권력구조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부름
⇒ 일본의 정치권력구조의 속성

(2) 이중적 권력구조의 전통

- 가마쿠라 막부 등장 이후 일본 정치는 정신적 군주인 텐노를 중심으로 한 ‘조정(朝廷)’과 세속적 군주인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막부’에 의한 이중적 권력구조를 갖게 됨.
- 이중적 권력구조 하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텐노는 정치책임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일본정치에는 ‘혁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텐노 신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
- 막부정권하의 일본은 실질권력과 상징적인 권력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원화되어 공존

● 천황과 쇼군

⇒ 천황과 수상: 이중적 권력구조 - 상징권력과 실질권력

(3) 무사 지배 사회의 전통

-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士)가 무사. 효(孝)의 원리보다 충(忠)의 원리 강조.
- 보다 상위의 전체자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호오코오(奉公)의 도덕 강조.
- 무사사회의 신켄쇼부(真劍勝負)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위기의식과 긴장감.
- 무사사회의 ‘실력상응주의’와 ‘실용주의’적 성향. 원칙적인 것 보다 구체적인 것에 흥미
- 대세존중의 경향성. 상황주의. 매우 주체적인 듯 하면서 대단히 타율적 존재일 가능성. 보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 ‘합의’(consensus)라는 절차를 중시하는 일본식 의사결정방식

- 일본 정치문화의 특징:
첫째, 집단 성원 간에 의견이 결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 대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가능한 많은 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논리적 설득이나 정서적 일체감을 만들어 간다.
둘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결정이 소극적인 성격으로 중화되어진다.
따라서 결정된 집단의회는 집단 성원 대부분의 지지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실행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의사결정은 느리지만, 실행은 성실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지님.

● 마루야마 마사오 (丸山眞男)

- “다음에서 다음으로 저절로 이루어져가는 기세”(つぎつぎおみずからゆきなる勢い)
즉 ‘세계의 대세’에 민감하며 상황주의적 특성을 갖는다.
이를 마루야마는 일본사상에서 집요하게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집요저음(執拗低音)**이라고 지적.
(집요저음 : 위 성부의 화성과 선율이 바뀌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베이스 성부)

● 이시다 타케시(石田雄) : 일본 정치문화를 “동조의 경쟁적 심리”라는 관점에서 분석

3. 21세기 현대 일본정치의 주요 쟁점과 표류하는 일본정치

- 격차문제와 일본형 시스템: 종신고용제 등 일본형 시스템의 구조 전환으로 일본판 양극화현상 심화.
- 헌법개정문제와 정치적 대립축: 전후 일본정치 노선의 전환
- 미일동맹 재정립 및 주변국과의 외교문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강화 노선을 확고히 천명
⇒ 대미종속 현상 심화,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4. 3·11 사태와 근대 일본 시스템의 성찰

-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뒤흔든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 연쇄적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거대한 대참사였다. 연이은 대재앙의 순간들은 TV로 중계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가감 없이 드러내 주었다.
- 19세기 이후 제국 일본과 21세기 경제 대국 일본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원자력이었다.
⇒ Q) 앞으로 일본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
그리고 3.11 사태에서 한국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 주요용어

위기의식	위기상황이 절대온도라면 위기의식은 체감온도에 가깝다. 어떤 위기상황에서 무엇을 지키며 양보할 것인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격차사회	중류계층의 붕괴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형 경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지칭하는 말.
3.11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 현 센다이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다. 일본을 강타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 지진은 쓰나미를 동반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과학기술의 위대한 성과라고 간주되었던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안전신화'에 비판이 대두되었다.

▣ 연구과제

1. 집단적 자위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2.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의 핵심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3.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은 피폭국이다. 또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조사해보자.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을 추진한 전후 일본 수상은?

외교적으로 미국을 따르면서 안보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부흥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통해 보수정치의 질서를 공고화하는 국가 전략을 의미한다.

- ① 요시다 시게루 ② 하토야마 이치로 ③ 기시 노부스케 ④ 다나카 가쿠에이

15.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951년 9월 8일,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와 점령의 종결을 결정한 강화조약.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재확인한 미국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소련과 중국 등 이른바 공산진영을 제외한 단독강화로 이루어졌다.

- ① 포츠담 선언 ② 카이로 선언 ③ 워싱턴 조약 ④ 샌프란시스코 조약

16. 다음 중 전후 일본헌법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국민주권 ② 상징천황제 ③ 군국주의의 추진 ④ 평화주의의 원칙

17. 전후 55년체제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혁신정당의 소멸 ② 보수당 우위의 파벌정치 종결
- ③ 분배를 중시한 경제정책 추진 가능 ④ 자민당 일당 우위하의 보수, 혁신 양당제적 구조

18. 다음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일본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972년 닉슨의 중국방문, 1973년 석유위기

- ① 경제안보론과 총합안보론의 대두 ② 미국에 대한 군사동맹 강화
- ③ 한일 국교정상화 ④ 이념적 가치를 둘러싼 '큰 정치'의 공고화

19.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민당 정권하에서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한 지역개발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조화된 정치형태. 자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사업의 배분과 보조금을 따오는 대가로 선거구의 이익집단과 주민들로부터 정치자금과 조직화된 표를 제공받았다.

- ① 보수분류 ② 혁신자치제 ③ 이익유도정치 ④ 일본열도개조계획

20. 다음 중 1980년대 나카소네 총리가 추진한 소위 '전후정치의 총결산'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일본의 '불침항모(不沈航母)설' 제시 ②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 ③ 천황을 미화한 신교과서 채택 ④ 방위비를 GNP 1% 이내로 제한

21.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일본은 1973년의 석유위기를 통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적 위협으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 대두하였다. 이는 일본의 안보관념이 소극적인 방향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 ① 총합안보론 ② 국제공헌론 ③ 문명개화론 ④ 보통국가론

22.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일본이 적극적인 안보외교를 추진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보수화된 국내 여론
- ②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보유
- ③ 일본의 군사화를 견제하려는 미국에 대한 반발
- ④ 중국의 급부상과 아시아의 세력균형 변화

23. 다음 중 시기별 일본 정치의 주요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1950년대 : 미일동맹 존속 vs. 폐기
- ② 1960~70년대 : 이익유도정치 vs. 정치부패비난
- ③ 1980년대 :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vs. 세계화 비판
- ④ 1990년대 : 원자력발전소 수호 vs. 원자력발전소 폐기

24. 다음 중 일본적 의사결정방식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의에 이르는 절차 중시
- ②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결정
- ③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실행에 옮김
- ④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를 얻음

25. 일본의 지리, 정치, 사회적 특징에서 기인한 일본문화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의 측면 :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결과 조화가 일상화 됨
- ② 언어사회학적 측면 : 동음이의어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대화의 구체적 맥락을 알지 못하면 대화를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③ 무사지배사회의 전통 : 진검승부를 강조하여 실력상응주의와 실용주의적 경향을 띠
- ④ 일원적 권력구조의 전통 : 상징권력과 실질권력이 천황 중심으로 통합되어 안정적인 지배체제 구축

26. 다음 표현들에 담긴 일본의 언어문화와 관계가 깊은 일본인들의 인간관을 고르시오.

“나 = 自分 ” “덕분에 = お陰様で” “폐를 끼치지 않도록 = 迷惑をかけないように”

- ① 독자적인 주체로서의 인간
- ② 데카르트의 근대적 인간
- ③ 조화를 중시하며,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인간
- ④ 전체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중시하는 인간

27. 21세기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지역 내 국가들의 경제발전 격차가 크고, 상이한 정치체제가 공존한다.
- ②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무력분쟁 가능성은 사라졌다.
- ③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 네트워크와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 ④ 동아시아 국가 간 안보갈등을 조율하고 의논할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

28. 일본의 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15년 전쟁이라고 일컫는데, 이 때 15년 전쟁의 시작점이 된 사건은 무엇인가?

- ① 중일전쟁
- ② 만주사변
- ③ 청일전쟁
- ④ 태평양전쟁

29. 다음 중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기까지의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말은?

- ① 냉전
- ② 데탕트
- ③ 신냉전
- ④ 잃어버린 10년

30. 1945년 9월 2일 미전함 미주리호에서 일본의 항복문서에 서명한 일본 측 대표는 누구였는가?

- ① 일본 천황
- ② 일본 수상
- ③ 일본 수상과 외상
- ④ 일본 외상과 참모총장

31. 다음 중 일본의 전후처리에 있어서 역코스 정책이 취해진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걸프전쟁
- ② 한국전쟁
- ③ 중국의 공산화
- ④ 동유럽의 공산화

32.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전후 일본의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외교적으로 미국을 따르면서 안보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부흥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통해 보수정치의 질서를 공고화하려는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 ① 전면강화론
- ② 경제우선주의
- ③ 대미 협조노선
- ④ 소극적 안보정책

33.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던 날에 함께 성립된 안보조약으로, 일본은 미국에 대해 영토 내 군사기지를 제공할 것을,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의 안보우산과 자유무역 체제 아래 경제성장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

- ① 알타협정 ② 미일안보조약 ③ 미일화친조약 ④ 시모노세키조약

34. 다음 사건들을 발생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종전조서' 옥음방송	(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다) 평화헌법 공포	(라) 한국전쟁 발발 (마) 포츠담 선언

- ① (가)-(마)-(라)-(나)-(다) ② (마)-(가)-(다)-(라)-(나)
- ③ (라)-(가)-(나)-(마)-(다) ④ (마)-(가)-(나)-(다)-(라)

35. 다음 중 일본의 구헌법(제국헌법)과 신헌법(전후헌법)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헌법: 천황주권, 신헌법: 국민주권
- ② 구헌법: 육해군 통수권은 천황이 가짐, 신헌법: 전쟁포기와 비무장
- ③ 구헌법: 경제우선주의, 신헌법: 비무장 중립안
- ④ 구헌법: 일본 신민의 인권 제약, 신헌법: 일본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36. 다음 중 1960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본문화에 대한 '부정적 특수성'의 인식 ②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시대
- ③ 소득배증계획 추진 ④ 이익유도정치의 정착

37. 다음 중 1970년대 데탕트의 상황에서 일본정치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안보론과 총합안보론의 대두 ② 일본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확대
- ③ 이념적 가치를 둘러싼 '큰 정치'의 공고화 ④ 일본열도개조계획이 추진됨

38. 다음 중 시기별 일본 정치의 주요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1950년대: 평화헌법 수호 vs. 자주개헌 ② 1960~70년대: 이익유도정치 vs. 정치부패 비판
- ③ 1980년대: 미일동맹존속 vs. 폐기 ④ 1990년대 이후: 군사적 국제공헌 vs. 비군사적 국제공헌

39. 일본의 정치, 사회적 전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충(忠)의 원리보다 효(孝)의 원리 강조 ② 조화를 강조하는 정치전통
- ③ 이중적 권력구조의 전통 ④ '실력상응주의'와 '실용주의'적 성향

40. 다음 중 일본어의 “自分”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 ① 분수에 맞은 삶에 익숙함 ②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 ③ 상호의존과 응석(甘え)문화 ④ 데카르트의 근대적 인간

<정답> 1.존황양이론 2.폐번치현 3.정한론 4.서양사정 5.사쓰에이전쟁 6.청일전쟁 7.이와쿠라 도모미 8.가마쿠라
 9.러일전쟁 10.미일화친조약 11.판적봉환 12.자유민권운동 13.④ 14.① 15.④ 16.③ 17.④ 18.① 19.③
 20.④ 21.① 22.③ 23.④ 24.② 25.④ 26.③ 27.② 28.② 29.④ 30.④ 31.① 32.① 33.② 34.② 35.③
 36.① 37.③ 38.③ 39.① 40.④

12장. 일본은 어떻게 경제선진국이 되었을까?

■ 학습개요

동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식민지를 면하고 공업화에 성공하여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일본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알아본다

■ 학습목표

1. 일본의 공업화 과정이 서구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이 일본이 공업화를 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3. 근대 경제성장이 개시되기 전의 일본사회는 공업화를 향한 어떤 변화와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목차

1. 일본의 경제성장과정
2. 근대경제성장 개시의 조건
3. 메이지유신과 국민국가의 수립
4. 에도시대의 유산
5. 맺음말

1. 일본의 경제성장과정

(1) GDP와 경제선진국

- 한 나라의 경제규모 측정 시 사용되는 지수: GDP
- 경제대국: GDP가 큰 나라
경제선진국: 1인당 GDP가 높은 나라
(1인당 GDP는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냄)
- 중국은 GDP가 세계 제2위이지만 1인당 GDP는 3천달러로 경제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음.
- 북구는 국가 GDP는 높지 않지만 1인당 GDP가 높은 경제선진국임.
- 일본은 90년대 이후 장기불황임에도 경제대국임과 동시에 경제선진국임.
2013년 현재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면서 1인당 GDP는 4만 6천 달러임.

(2) 일본은 언제부터 경제선진국이 되었을까?

-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업화 이전의 경제선진국
 - 17세기라면 중국이야말로 경제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업화 이후에는 서유럽국가들이 경제선진국으로 도약
 - 비유럽국가 중에는 일본만이 유일하게 19세기 후반에 공업화를 달성하여 경제선진국의 멤버가 됨.
(공업화가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출발점)
- 공업화는 쿠즈네츠(Simon Kuznets) 가 말하는 근대경제성장(modern economic growth)을 가능하게 함.

(3) 근대경제성장의 특징 (by 쿠즈네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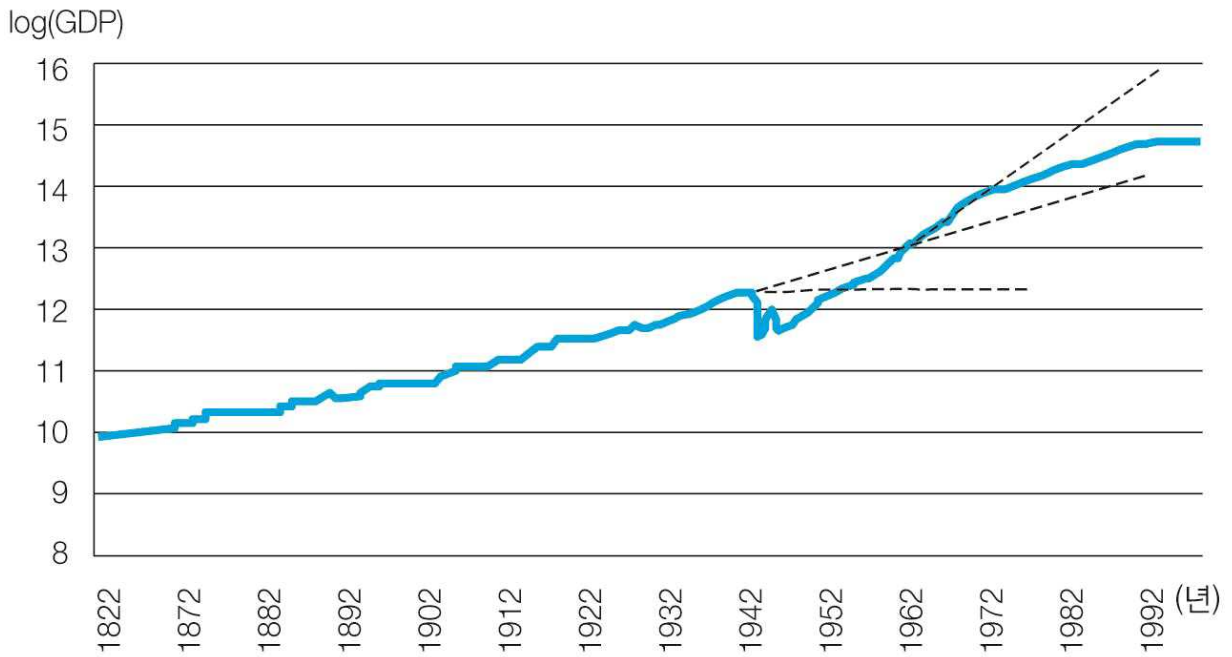
- ① 인구와 1인당 생산이 함께 급성장한다.
 - ②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이 발생한다.
 - ③ 이상의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 즉, '자기유지적 성장'이 존재한다.
- ⇒ 근대 이전에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예외적인 현상이었으며 맬서스의 인구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였음.

cf) 맬서스의 인구법칙 : 어떤 이유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증가가 초래하는 식량 부족, 위생악화, 환경의 열화 등으로 다시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성장은 정지된다.

(4) 일본의 근대경제성장과 GDP의 상승 (그림 12-1)

- 서유럽국가 및 일본의 근대경제성장 기점
 - 영국: 18c 후반
 - 벨기에, 프랑스: 1830년대
 - 독일: 1850년대
 - 캐나다, 호주 등 신대륙국가 및 기타 북유럽국가: 1860년대
 - 일본: 1880년대
- 일본의 근대경제성장 직전의 일본의 1인당 GDP는 매우 낮았음
 - 1870년 일본 737달러, 당시 영국은 3,191달러 (1990년 가격)
- 근대경제성장 이후도 일본의 1인당 GDP 수준은 여전히 낮음
 - 1950년의 일본의 1인당 GDP는 영국의 28%, 미국의 20%에 불과.
 - 그러나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1970년대에는 서유럽 국가 수준에 도달
(근대경제성장 시점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일본 3.6%, 유럽 각국은 1~2%)
 - 1980년대 중반에는 한때 미국을 추월하기도 함
 - 2000년대: 90년대 이후 장기불황으로 미국에 많이 뒤쳐져있으나 여전히 경제선진국임

[그림 12-1] 일본 실질 GDP의 장기적 추이(1822~1998년)



2. 근대경제성장 개시의 조건

(1) 비서유럽권인 일본에서 근대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공업화(산업혁명)가 가능했던 이유

1) 정치적 · 제도적 측면

: 근대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선행하여 정치조직이나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자력으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
- 서유럽에서의 산업혁명의 전파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현상이었음.
- 영국을 기점으로 하여 무역이나 기술자의 교류를 통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에 차례로 전파됨
-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서구문명이 아시아에 출현했을 때 그들은 단순한 교역을 넘어서 식민지화를 포함한 정치적 종속을 강요
- 중국과 한국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화, 국가독립을 보전한 일본에서만 근대경제성장이 시작됨.
- ➔ 국가와 같은 정치적 조직 또는 제도가 근대경제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시사

2) 근대경제성장의 시작시점에서의 일본경제의 실체

- 경제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점진적이고 연속적
- 정치조직이나 제도가 변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경제의 실체가 달라지지는 않음
- 근대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함
-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근대경제성장에 필요한 조건이 더 정비되어 있었을 수 있음
→ 에도시대의 유산을 살펴볼 필요

3. 메이지유신과 국민국가의 수립

(1) 메이지 유신을 통한 독립 보전

● 19c 한·중·일의 상황 비교

중국	한국	일본
1840년 아편전쟁 발발 태평천국의 난(1851~1864년) 신해혁명에 의해 청나라 붕괴 → 중화민국 건국 (반식민지상태로 전락)	1876년 강화도조약 1894년 동학농민운동 (서구문명 유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여 일본식민지로 전락)	1854년 개국, 1858년 개항 사회적 정치적 위기감고조(夜明け前) 1868년 보신전쟁 도쿠가와 막부 붕괴, 메이지정부 수립 (메이지유신)

(2) 독립 보전과 국민국가의 수립은 경제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1) 정치적 독립의 확보는 서구열강의 경제적 이해에 종속되는 일 없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 ① 불평등 조약의 철폐에 따른 관세자주권 회복 (20c)
- ② 자국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수립(ex. 식산흥업정책)

2) 메이지유신에 의해 새로 태어난 국가가 근대의 ‘국민국가’라는 점이다.

- 국민국가(nation-state) :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승인되어 있는 규범원리로서 하나의 국민이 하나의 국가를 갖고 하나의 균질적인 영토를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것에서 실현됨.
- 국민국가는 평등하고 일체인 국민의 공동사무기관임과 함께 그 생명유지장치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주권은 절대적인 것이다.
- 국민국가가 이 규범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통합을 위한 장치(정부, 의회, 군대, 경찰 등)와 국민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함
 - 메이지정부는 폐번치현, 지조개정, 사민평등, 징병제, 학제 등으로 국가 통합을 위한 제도를 정비
 - 교육칙어, 군인칙유 등 천황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국민통합에 성공
 - 국민의 에너지를 근대화에 집중시킬 수 있었음.

(3) 본격적인 공업화는 메이지 유신 후 20년이 지나서 시작

• 메이지유신과 같은 정치적 변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업화는 188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됨.

- (근거) - 민간기업의 급속한 발전
- 증기기관의 마력수가 급속히 증가
 - 제조업의 실질생산액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

• 경제적 변화는 정치와 달리 연속적 · 점진적으로 일어남을 의미. 왜냐하면 제도나 법률이 달라진다 해도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요소(자본스톡, 인적자원,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축적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음.

(4) 공업화 시작 이후 일본경제의 모습

- 경제적 변화는 본질적으로 점진적, 연속적
- 방적업이나 군소공업분야 등 일부에서는 증기기관을 설치한 대규모 공장에서 다수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근대적

공장이 출현

- 그러나 공업화 초기의 공장은 대체로 소규모 작업장 수준, 업종도 에도시대부터 내려온 재래산업분야가 많았음
즉, 메이지 유신이라는 정치적 변혁과 근대 서구문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재래적 요소에 강하게 규정되면서 공업화가 진행됨.

4. 에도시대의 유산

● 근대경제성장의 전제가 되는 에도시대의 유산

- ① 경제사회의 성립
- ② 농촌공업의 발전 (농간여업)
- ③ 높은 교육수준

(1) 경제사회의 성립

- 경제사회 : 어떤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행동을 취하는 사회
cf) 경제적 행동 : 경제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효용을 얻고자 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행동
- 일본의 경제사회의 시작과 성립
 - 전국시대에서 도쿠가와 막부기로 이행하는 16세기~17세기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
 - 도쿠가와 중기(18세기) 이후에 성립.
- 경제사회 성립의 한 지표: 소농경제의 발달
- 소농경제(小農經濟)란: 가족세대와 농가경영의 단위가 일치하는 것
- 소농경제의 특징
 - 소농가족이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
 - 농업소득(비농업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취함.
 - 경작가능토지가 인구에 비해 좁아서 생산량의 증대는 일정면적에서의 수확을 최대화하려함 (ex. 경지이용 빈도의 증대, 深耕에 의한 토지의 수직적 이용, 비료의 다량투입)
 - 장시간의 고된 노동이 '근로'로 윤리화되고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에토스가 됨 (근로를 통해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
 - '근로 에토스'를 내재화한 소농경제의 성립은 경제사회 성립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음

(2) 농촌공업의 발전

- 18세기 이후 농촌공업이 광범한 지역에서 발전하기 시작함.

1) 농간여업(農間余業)의 형태로 발전

- 농간여업은 기술적으로 수공업, 생산조직적으로는 가내생산이었다는 점에서 근대공업과는 다르지만, 산업혁명 내지는 공장제 공업화에 선행하는 국면에서도 산업발전의 태동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프로토공업(proto-industry)이라고도 부름.

2) 농간여업의 네 가지 타입

- ① 가업으로 하는 부업- 상층농가가 경영하는 양조나 포목상
- ② 내직과 같은 부업- 부녀자가 직조하는 목면
- ③ 꺾감만들기에서 양잠에 이르는 다양한 부업으로서 영위되는 상업적 농업
- ④ 고용노동으로서 농한기의 출가·하루벌이 등

3) 농간여업의 비중

- 비농업부문의 산출고는 석고(石高)로 본 번의 경제규모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 에도 중기 이후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수공업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 도쿠가와 경제를 농업 경제에서 비농업경제로 변질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함.

4) 프로토공업화론

- 프로토공업화론의 출발은 거의 모든 근대공업지대가 그 이전의 농촌공업지대였다는 관찰사실로부터 농촌가내공업과 공장제 단계 사이에 '계기적이며 발생사적인 관련'을 보이려는데 있었음.
- 에도시대에 프로토공업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산업혁명의 진행에 적합한 토양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함.
- 에도시대에 발전한 농촌공업은 메이지유신 이후 재래산업의 원형이 되고 농촌에 시장경제를 침투시켜 사업경영의식에 눈뜨게 하는 본격적 공업화의 개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3) 높은 교육수준

- 에도시대의 질 높은 노동력은 일본의 공업화 수행에 크게 기여
- 공업화 개시 이전에 이미 식자율이 높았고 기초적 교육이 보급되어있어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갖추었음.
-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서민교육기관: 데라코야(寺子屋)

1) 데라코야

- 20~50명의 생도에게 읽기, 쓰기, 주판 등을 가르침.
우리나라의 서당(유학과 한문교육)에 비해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
- 18세기 말에 현저히 증가, 19세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함
1875년까지 전국에 1만 5,530교가 개업, 10~14세 인구 200명에 1교 정도의 밀도
- 취학률 6~13세 인구의 취학률은 1875년에 남자 54%, 여자 19%
도어(R. Dore)는 이로부터 1868년 경 남자의 43%, 여자의 10% 정도가 데라코야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
이는 현재의 개발도상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당시의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

2) 데라코야 보급의 의의

- 교육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상업활동에 필요한 주판 계산과 실용적인 문서쓰기가 가능해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함
-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계몽서 『西洋事情』(1866~1870년)이 20~25만부, 『學問の勸め』(1872~1876년)가 22만부 팔림
- 인구 160명에 대해 1책 꼴로 이런 딱딱한 내용의 책이 팔린 배경에는 높은 식자율과 학습의욕이 존재했기 때문

5. 맺음말

●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에 앞서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① 일본은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에 성공함.

- 메이지유신을 통해 봉건적인 도쿠가와막부를 무너뜨리고 근대국가를 수립함으로써 서구자본주의의 침탈을 방지하고 국력을 공업화(부국강병, 문명개화)에 집중시킬 수 있었음
(한국과 중국은 근대국가 건설에 실패하여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하여 공업화를 수행할 수 없었음).

② 일본은 에도시대에 이미 공업화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지고 있었음.

- 경제사회의 성립, 프로토공업화의 성격을 갖는 농간여업이 발달, 식자율 높은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는 등 공업화 진전에 유리한 환경이었음

주요용어

<p>공업화 (industrialization),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p>	<p>공업화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즉 농업을 주제로 하는 사회에서 공업이 주체가 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산업혁명은 공업화의 초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화석연료의 사용과 공장제 기계공업의 도입에 의한 산업의 변혁과 이에 수반하는 사회구조의 변혁을 지칭한다. 산업혁명이 학술용어로 정착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의 저작에 의한 것이다. 토인비는 산업혁명을 과거와 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그 후의 실증적 연구의 진전은 산업혁명이 점진적인 변화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의 연구를 집대성한 애쉬톤(T. S. Ashton)은 “때로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인간관계 시스템은 1760년 보다 훨씬 이전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충분한 발전을 본 것은 1830년 보다 훨씬 후의 일로서, 연속성이라고 하는 본질적 사실을 놓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p>
<p>근대경제성장 (modern economic growth)</p>	<p>쿠즈네츠(S. Kuznets)는 산업혁명 달성 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근대경제성장이라고 하였는데, 그 특징으로는 ①인구 및 1인당 생산의 급성장, ②산업구조의 급속히 변화와 인구의 도시화, ③이상의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자기유지적 성장’의 존재 등이 지적된다.</p>
<p>국민국가 (nation-state)</p>	<p>국가 내부의 전주민을 하나의 구성원(=‘국민’)으로 통합함으로써 성립한 국가. 국민국가(nation-state)는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승인되어 있는 규범원리로서, 하나의 국민이 하나의 국가를 갖고 하나의 균질적인 영토를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것에서 실현된다. 국민국가는, 평등하고 일체인 국민의 공동사무기관임과 함께 그 생명유지장치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주권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국가 규범성의 요점이며, 국민국가가 이 규범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합을 위한 여러 장치들(정부, 의회, 군대, 경찰 등)과 함께, 국민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한다.</p>
<p>경제사회</p>	<p>어떤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행동을 취하는 사회. 여기서 경제적 행동이란 경제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효용을 얻고자 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행동을 가리킨다</p>
<p>소농경제 (小農經濟)</p>	<p>가족 세대(世帶)와 농가경영의 단위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시대에 직계 가족으로 이루어진 소농이 성립하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소농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p>
<p>프로토공업화 (proto-industrialization)</p>	<p>프로토 공업화는 거칠게 정의한다면 영국의 경우는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 대륙의 경우는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시기, 즉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에 나타난 농촌부에서의수공업생산 확대 현상을 말한다.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에서는 국내 및 외국 시장에 공급하는 제조업이 종종 농촌에 입지라고 있었다. 생산은 농가내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져 거기서 만성, 여성 또는 어린이들이 농작업에 종사하는 한편으로 섬유제품, 가죽제품, 금속제품등을 제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산은 주로 도시 상인에 의해 조직되는 가내공업(putting out system)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프로토 공업화론의 문제의식은 산업혁명 혹은 공업화의 시동이라고 불리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친 경제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며 과거부터 사회경제사의 중심적인 테마의 하나였다. 프로토 공업화론의 출발은 거의 모든 근대공업지대가 그 이전의 농촌공업지대였다는 관찰사실로부터 농촌가내공업과 공장제단계 사이에 ‘계기적이며 발생사적인 관련’을 보이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농촌공업지역이 모두 근대공업지대로 발전한 것은 아니며 거꾸로 19세기에 ‘농민화’, ‘전원화’가 진행된 지역도 많다. 프로토 공업화론은 이러한 사례를 de-industrialization(공업화의 좌절)이라고 하여 왜 공업화가 이들 지역에서 궤도에 오르지 못했는지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p>
<p>데라코야(寺子屋)</p>	<p>에도시대의 서민교육기관. 생도는 20-50명 정도로 읽기·쓰기·주판 등을 가르쳤으며, 한국의 서당이 유학과 한문교육에 치중한 것과 비교할 때 데라코야는 보다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했다.</p>

▣ 정리하기

- 일본만이 아니라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일찌감치 공업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업화는 ‘근대경제성장(modern economic growth)’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 일본의 경제선진국으로의 과정은 공업화와 함께 1880년대에 시작되어 이후 서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 함으로써 1970년대에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왔다.
-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독립을 보전하면서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했다는 것은 근대경제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정치조직 및 제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적 독립의 확보는 서구 열강의 경제적 이해에 종속 되는 일 없이 자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또한 메이지 정부는 중앙정부에 의한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신분제도의 타파로 평등한 국민을 기반으로 한 정권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를 근대화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에 이미 공업화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지고 있었다. 경제사회가 성립하고, 프로토공업화의 성격을 갖는 농간여업이 발달하였으며 높은 식자율 등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업화의 진전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물론 서구의 충격 없이도 일본이 공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으나, 무언가의 계기가 주어진다면 재빨리 공업화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는 할 수 있다.

[강의연습문제]

1. 일본에서 근대경제성장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인가?

- ① 1700년대 후반 ② 1800년대 전반 ③ 1860년대 ④ 1880년대

2. 메이지정부가 국민국가의 건설을 위해 시행한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폐번치현 ② 보통선거 실시 ③ 지조개정 ④ 징병제 실시

3. 근대경제성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에도시대의 유산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사회의 성립 ② 농간여업의 발전
③ 화석연료의 광범위한 사용 ④ 데라코야와 같은 대중교육의 보급

<정답> 1.④ 2.② 3.③

13장. 일본경제는 추락하고 있는가?

■ 학습개요

1990년대부터 일본경제는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추락’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 본다.

■ 학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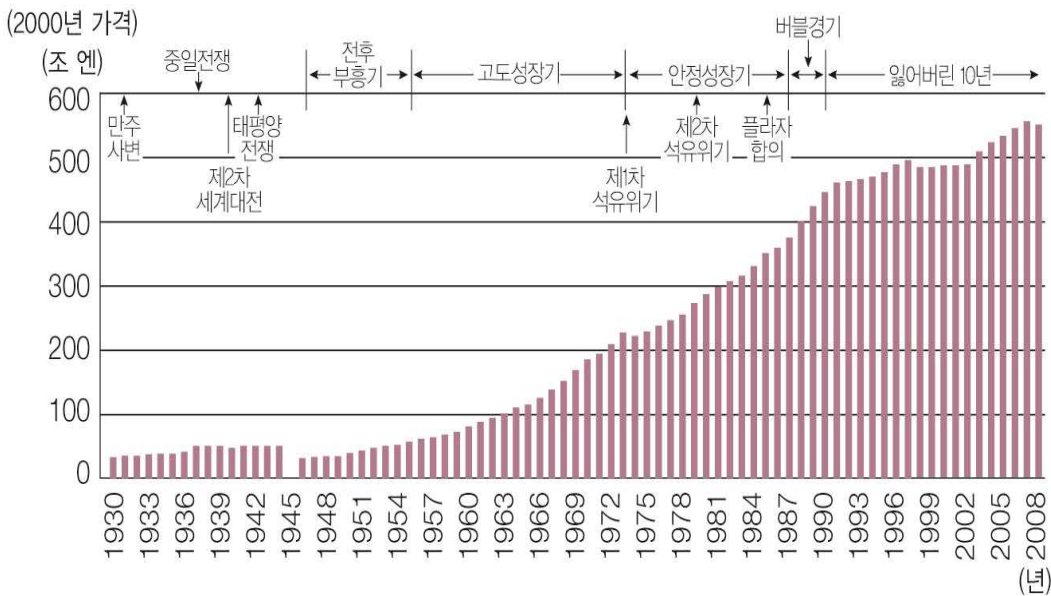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의 경제성장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1990년대부터 시작한 장기 불황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3.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의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일본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일본의 불평등도의 악화, 또는 소득격차의 확대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목차

1. 전후의 경제성장
2. ‘잃어버린 20년’과 일본경제의 ‘추락’
3. 고령화와 생산성 향상의 둔화
4. 제도피로
5. 구조개혁
6. 일본경제의 과제

1. 전후의 경제성장

[그림 13-1] 전후 일본의 실질 GDP 추이



(1) 전후부흥기 (패전 직후~1955년)

- 연합국 점령하에서 인력의 경제개혁(농지개혁, 노동의 민주화, 재벌해체 등) 실시
- **경사생산방식**(생산력의 기간인 철강과 석탄 등 특정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법) 도입
- 정부금융기관인 **부흥금융공고**를 설치하여 석탄, 철강, 해운, 비료, 전력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융자
⇒ 1947년 하반기에 석탄생산 목표치 3천만 톤 달성. 하지만 격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경제사회의 불안정성 증폭
⇒ 맥아더는 1949년 3월 강력한 긴축정책(**닷지라인**, Dodge Line) 실시로 인플레이션 진정. 하지만 불황을 가져옴.
- 1950년 한국전쟁에 따른 '특수(特需)'로 일본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접어들.
- 1955년 소득액과 생산액이 전전·전시의 피크수준까지 회복

1956년판 『경제백서』

일본경제의 회복을 상징하는 표현: “더 이상 전후는 아니다(もはや戦後ではない)”

(2) 고도경제성장기 (고도성장기, 1955년~1973년)

- 195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
 - 실질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10%에 이름
- 1960년대 말 서독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제2위의 GDP 규모 과시, 20여 년간 지속

● 연이은 호황을 일본 고대신화에 나오는 이름을 따서 부름

- 1954년 11월~1957년 6월 : **진무** 경기
- 1965년 10월~1970년 7월 : **이자나기** 경기

- 고도성장에 따라 경제생활이 크게 향상
 - 1960년 전후 '3종의 신기' - 흑백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 1960년대 후반 '신3종의 신기'- 컬러 텔레비전, 에어컨, 자동차
- ➔ 표준적 라이프스타일이 완성, 국민의 약 90%가 중류의식을 가짐
-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로 고도경제성장의 종언 (1974년 전후 최초로 마이너스성장 기록)

(3) 안정성장기 (1973년~1985년)

- 성장률은 낮아졌으나 낮은 물가상승률, 낮은 실업률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이 안정되었던 시기
 - 실질 경제성장률은 고도성장기보다 크게 낮은 3%~4%대
 - 그러나 일본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실업률 달성에 성공
 - 서구 선진국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병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악전고투
-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마찰이 격화됨.
- 서구에서 일본의 '성공'에 대한 관심증가
 - 에즈라 보겔(1979) 『Japan As No. 1』
 - 모리시마 미치오(1982) 『Why Has Japan 'Succeeded'?』

(4) 버블경기 (1987년~1990년)

- 1985년 플라자합의로 급격한 엔고 진행, 86년에 엔고 불황.
- 1987년~1990년 버블경기 : 지가 및 주가 상승이 경기를 자극
 - 실질성장률은 5%대, 87년 1인당 GNP는 미국을 능가.
 - 일본인은 성공을 확신하고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음
- ✱ 일본경제신문사의 『セミナール日本経済入門』(1988) : 일본의 경제발전을 정부 기업 노동자의 3자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전개된 재파노믹스(Japanomics)의 '성공'으로 인식

(5) 장기불황 (1990년대 초~2010년대 초)

- 1990년부터 주가하락, 1991년부터 지가하락.
-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경제성장률이 급락
- 이후 20여 년간 이어진 불황기조를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름.
 - 일본인은 냉소적 시선을 가지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함

2. '잃어버린 20년'과 일본경제의 '추락'

(1) '잃어버린 20년'의 실상

1) GDP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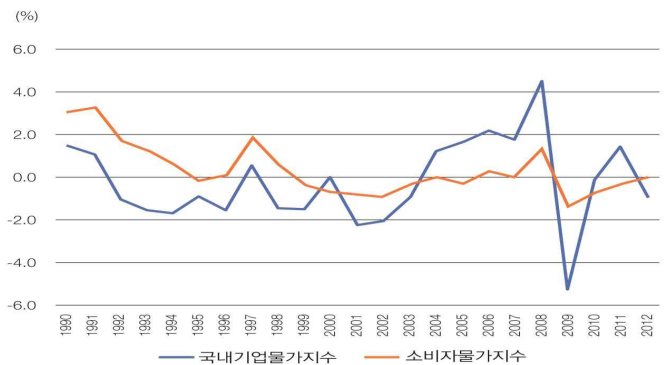
- 이 시기 연평균 GDP의 실질성장률은 1%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 (그림 13-2).
- 디플레이션, 즉 물가의 지속적 하락이 일어남(그림 13-3).
- 명목성장률을 보면 이 시기에 경제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일본인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액수는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듦.

제1차 석유훁기 이후 1974년에 GDP가 감소한 것은 일회성이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사람들이 손에 쥐는 돈은 증가했음.

[그림 13-2] '잃어버린 20년'의 경제성장률



[그림 13-3] '잃어버린 20년'의 물가동향



2) 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

-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은 평범한 근로자가구가 실제로 버는 수입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해졌는지를 확인하기에 편리함.
- 1995년 근로자가구의 실수입은 약 57만 1,000엔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2년에는 약 51만 9,000엔
- 물가의 변화를 배제하기 위해 2010년 가격으로 보면 같은 기간에 약 56만 5,000엔에서 약 52만 1,000엔으로 감소함 (실질가격으로 보았을 때 감소폭이 작아지는 것은 이 시기에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

3) 장기불황의 결과

- 일본은 여전히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고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를 훌쩍 넘는 잘 사는 나라임.
- 하지만 불황 속에서 일본인들의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의 우경화는 일본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여유의 고갈과 자신감 상실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음.

3. 고령화와 생산성 향상의 둔화

(1) 일본경제가 정체하게 된 두 가지 요인

① 경제의 기초적 요인(펀더멘털즈)

: 노동력, 자본, 기술에서의 문제로 인해 일본경제가 정체하였다는 시각.

즉, 노동력이나 자본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거나 기술혁신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경제정체의 요인이라고 생각.

cf) 기초적 요인 :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 즉, 노동력, 자본, 기술

② 제도적 요인 : 실제 경제와 괴리된 제도가 경제성장 정체의 요인이라는 시각

(2) 경제의 장기침체의 기초적 요인

① **고령화** : 인구가 고령화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일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됨.

- 2012년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 2055년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고령화에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 여성 노동력과 고령자를 경제활동에 투입, 외국노동자의 도입
-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생산성을 향상 (ex. 일본 교육시스템 개혁)

② **생산성 상승의 둔화** :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혁신이 지체됨

- 고도성장기: 외국으로부터 신기술을 도입하여 큰 기술혁신이 일어남
-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 절약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1990년대: 생산성 상승속도가 크게 떨어짐 (IT혁명에서 미국에 뒤쳐졌음이 지적됨)

4. 제도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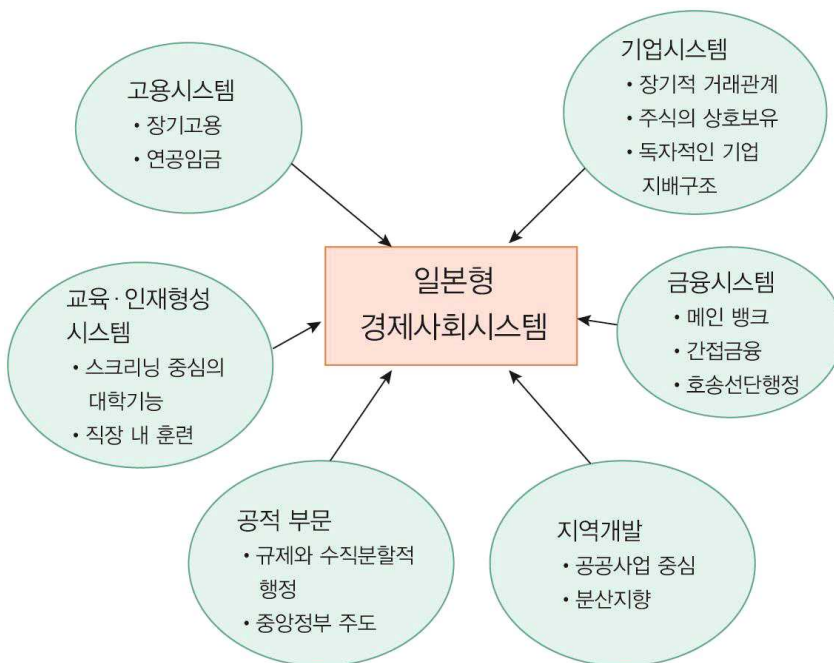
(1) 제도피로란?

-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이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추어 변화하지 못해 경제성장과 효율적인 경제운영에 장애가 되는 것
- 일본경제의 장기적 침체를 제도적 요인에서 찾는 사람들은 일본의 독특한 경제시스템 또는 기업시스템이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하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함.

(2) 일본의 독특한 경제시스템 또는 기업시스템이란?

- 도식화 한다면, 일본의 경제시스템은 몇 개의 서브시스템(고용시스템, 기업시스템, 금융시스템, 지역개발, 공적 부문, 교육·인재형성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브시스템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음. (그림 13-4)
- 서브시스템 간의 상호보완성은 개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일단 강한 개혁압력으로 일부 시스템이 바뀌면 관련된 시스템에 잇달아 파급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그림 13-4] 일본형 경제시스템



(3) 일본의 독특한 경제시스템 또는 기업시스템이 확립된 이유

- 이에(家, 工)제도와 같은 일본 고유의 문화적 요인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러한 시스템의 형성시기로 볼 때 설명에 한계가 있음.
 - 일본형 경제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고도성장기에 확립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
- 일본적 시스템은 고도성장기의 경제적 환경에 적합했음.
 - 고도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환경에서는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했음
 - 연공임금은 노동자에게 기업에 정착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 기업은 장기고용을 전제로 졸업 후 입사한 신규직원을 우수한 숙련공으로 키워냄. 즉, 고도성장이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제도를 유도, 다시 이런 고용시스템은 고도성장에 기여했음.
- 경제성장의 속도가 떨어지면 이 시스템의 유지가 어려운 이유
 - 연공임금제도에 대한 인건비 상승압력이 커짐.
 -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크게 상승시키지 못한다면, 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됨.
 - 제도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이 변해도 제도나 시스템은 그에 맞추어 곧바로 변화하기 어려움

(4) 기초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통합적 이해

- 경제 정체를 각각 기초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보는 시각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음
 - 제도피로 또는 제도관성(제도적 요인)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기초적 요인)을 약화시킴으로써 장기불황을 가져왔다는 설명이 가능함.
- 고용시스템과 생산성 향상 둔화의 관계
 - 장기고용과 연공서열임금은 노동력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기능.
 -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분야가 나타나도 그 부분으로 노동력이 원활하게 이동한다는 것을 제약.
 - 기존의 고용시스템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제약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속도를 둔화시킴.

5. 구조개혁

: 장기불황의 요인이 생산성 상승속도의 하락이고, 생산성 상승속도의 하락의 중요한 요인이 제도의 관성이라고 한다면, 장기불황의 탈출해법으로 제도개혁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

(1) 무역마찰 대응책으로서의 구조개혁

1) 1980년대의 구조개혁

: 주로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차원의 구조개혁

-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일본에서는 대미 무역흑자)가 누적되고 대외관계의 불균형이 수출자주규제라든가 환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자 미국이 추진한 것이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이었음.

(2) 장기불황의 탈출해법으로서의 구조개혁

1) 1990년대의 구조개혁

: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1995년 12월 1일 무라야마 내각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계획-활력있는 경제·안심할 수 있는 생활」
 - 경제성장정책의 한 축으로서 경제구조개혁을 자리매김하는 자세를 분명히 함.
 - 현시점을 글로벌화의 진전, 높은 차원의 성숙경제사회로의 전환,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이행, 정보통신의 고도화라는 새로운 조류가 밀려오는 전환점으로 파악하고,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중장기적 발전의 개척이 불가능하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2) 고이즈미내각(2001년 4월~2006년 9월)의 구조개혁

- ‘성역 없는 구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
- 「금후의 경제재정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1」에 구조개혁의 성격이 드러나있음.

“글로벌화한 시대에서의 경제성장의 원천은 노동력인구가 아니라, ‘지식·지혜’이다. ‘지식·지혜’는 기술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효율성이 낮은 부문에서 효율성이나 사회적 니즈가 높은 부문으로 사람과 자본을 이동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창출한다. 자본의 이동은, ‘시장’과 ‘경쟁’을 통해 진행되어 간다. 시장의 장해물이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리하여 지혜를 내고 노력을 한 사람만이 보답 받는 사회를 만든다. ‘구조개혁’은 이런 관점에서 일본경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실력을 더욱 높여 그 실력에 걸맞는 발전을 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구조개혁의 핵심: 시장을 통한 자원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정책, 그러한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 즉, 공급측면에서의 개혁임.
-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보다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음은 인정됨.

6. 일본경제의 과제

(1) 여전히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한 일본경제

- 강력한 구조개혁정책에도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음.
-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발발, 2011년 도호쿠지방의 쓰나미 같은 외부적 충격의 불운도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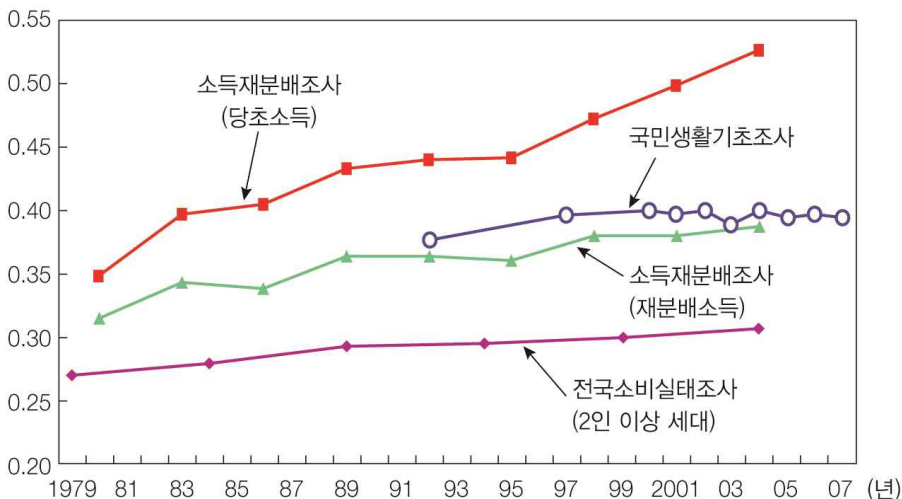
(2) 아베노믹스란?

- 2012년 12월에 성립한 아베내각이 추진한 경제정책.
-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당장은 금융완화 및 재정투자라고 하는 매크로 경제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제정책.
- 당장의 경기회복을 위해 금융재정정책을 동원한다는 면에서는 고이즈미내각의 경제정책과 성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제시스템을 시장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개혁해 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3)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비판

- 구조개혁이 소득격차를 확대하여 불평등도를 높인다는 비판이 유력
 - 구조개혁이 경쟁을 부추기고,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비를 삭감하여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가속시킨다는 주장.
- 소득격차는 정말로 확대되고 있는가?
 - 소득격차의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로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3-5).
 - 단, 이러한 통계상 관찰되는 소득격차의 확대는 상당부분 고령화의 진전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에 주의.
 - 그러나 고령화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일본의 불평등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불평등도가 낮은 수준이 아님.

[그림 13-5] 각종 통계에 의한 지니계수 추계



• 빈곤문제의 발생

- 직접적인 생존을 위협받는 빈곤은 아니지만 일해도 가난한 ‘워킹푸어’를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사회 저변에 퇴적해있음.

(4) 일본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하는 규제나 관행을 개혁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 않고 약자에 대한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일본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임.

▣ 주요용어

<p>잃어버린 20년</p>	<p>199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어 2010년대 초까지 계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을 지칭하는 말.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2000년경에 19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유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도 명확한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못한 채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2000년대까지를 포함하여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고 있다.</p>
<p>고령화</p>	<p>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현상. 고령화률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고령화률에 따라 고령화사회(고령화률 7-14%), 고령사회(동 14-21%), 초고령사회(동 21% 이상)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본의 고령화률은 2013년 10월 1일 현재 25.1%로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p>
<p>생산성</p>	<p>경제학에서 생산활동에 대한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의 기여도를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은 노동력(단위시간당 노동투입) 1단위에 대해, 자본생산성은 자본 1단위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의 가치를 산출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p>
<p>일본형 경제시스템</p>	<p>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의 일본에 특징적인 경제시스템을 의미.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 역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장기고용이나 연공임금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시스템이나 주식의 상호보유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와 같이 서구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본에만 독특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러한 일본형 경제시스템은 전후 고도경제성장기에 확립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 과정에서 일정한 변화를 겪고 있다.</p>
<p>구조개혁</p>	<p>사전적 의미로는,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표면적인 제도나 법률만이 아니라 사회 그 자체의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그 사회구조 자체를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책론적 입장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 구조개혁이란 용어를 먼저 사용했지만, 마르크스주의가 그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현재는 일본적 시스템의 개혁이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온 고이즈미 내각(2001년~2006년)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핵심은 시장을 통한 자원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정책, 또는 그러한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p>
<p>지니계수(Gini's coefficient)</p>	<p>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게 된다. 소득이 완전평등분배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0이 되며, 소득이 완전불평등분배(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점)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1이 된다.</p>

▣ 정리하기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전후부흥기, 고도경제성장기, 안정성장기, 버블경기를 거친 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현재까지(2010년대 초) 20여년간 불황기조(‘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잃어버린 20년’간 일본경제의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1%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있으며,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미국, 중국에 이은 제3위의 GDP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제대국이며 1인당 GDP도 4만달러를 넘는(2014년) 선진국이다.

- 경제의 기초적 요인이란 관점에서 볼 때, 고령화와 생산성 상승의 둔화가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제도적 요인이란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경제시스템(또는 기업시스템)의 제도피로가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1990년대에 들어와 구조개혁이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주장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고이즈미내각은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강력한 구조개혁을 실시했다.
- 고이즈미내각의 구조개혁의 핵심은 시장을 통한 자원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정책, 또는 그러한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은 소득격차의 확대(불평등도의 악화)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유력한 비판이 있다.
-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규제나 관행을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 않고 약자에 대한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일본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강의연습문제]

1. ‘잃어버린 20년’은 어느 시기를 지칭하는 것인가?
 - 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불황기
 - ② 만주사변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
 - ③ 제1차 석유위기에서 버블경기까지의 기간
 - ④ 버블 붕괴 후부터 2010년경까지의 기간
2. ‘잃어버린 20년’ 간의 일본경제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본의 GDP 규모는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는 OECD국가 중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 ②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낮은 수준이었다.
 - ③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연평균 명목경제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 ④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은 감소하였다.
3. 경제의 기초적 요인이란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의 요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재정금융정책의 실패
 ㄴ. 고령화의 진전
 ㄷ. 생산성 상승의 둔화
 ㄹ. 제도 피로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ㄹ

<정답> 1.④ 2.① 3.②

14장. 일본경제는 정부가 이끌고 있는가? - ‘일본주식회사론의 검토’

■ 학습개요

일본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산업정책이 일본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 학습목표

1. ‘일본주식회사’라고 불리는 일본의 관민협조체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일본의 산업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목차

1. ‘일본주식회사’론, ‘개발지향적’ 국가론
2. 산업정책의 전개
3. 산업정책의 성과

● 문제 제기 : “과연 일본경제는 관주도(정부주도)로 성장했는가?”

- 일본경제는 일본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보호 하에 성장해 왔다는 이미지가 있음.
- ‘일본주식회사론’은 위와 같은 시각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주장임.
- 그러나 일본경제가 관주도로 성장했는지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 증명되고 있지 않음.
-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가 효과적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 일본정부의 역할에 대해 탄탄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엄밀한 분석이 필요

● 정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 현대국가는 경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 발휘
- 대표적인 정부의 역할은 금융재정정책과 같은 **총수요관리정책**의 실시
- 일본에서는 총수요관리정책 외에 특정 산업을 보호·지원하는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여기서는 일본정부의 역할을 산업정책이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산업정책의 정의

: 정부가 보조금, 우대 세제, 무역제한, 카르텔 등의 경쟁억제 등의 수단을 통해 자원을 특정 산업부문으로 이동시키는(또는 반대로 특정산업 부문에서 자원을 다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정책.

1. ‘일본주식회사’론, ‘개발지향적’ 국가론

- 일본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
: 일본주식회사론, 개발지향적 국가론

(1) ‘일본주식회사’론

- ‘일본주식회사(Japan Incorporated)’란 말은 1970년경 일본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던 시점에 서구 저널리즘에 등장하기 시작한 말
- 일본경제의 성장 요인에 대해 분석하다가 일본의 독특한 관민협조적 경제운영 또는 독특한 산업정책을 주목.

『주식회사 일본』 (Japan: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 1972년 미국 상무성이 간행
- 일본정부와 비즈니스의 복합적 체제에 대한 당시로서 가장 포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
- 일본의 산업계와 정부의 광범한 협력이 국제시장에서 일본에게 부당하게 경제상의 우위에 있게 한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일본주식회사의 진정한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 것.
- 일본경제의 비약적 발전의 원천의 하나를 정부가 경제발전을 유도한 독특한 방식, **정부와 비즈니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경제행동원리의 결정에서 찾음.
 - 정부·업계는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
 - 각종의 정부원조와 자극책에 의해 촉진되는 행정지도하에서도 일본의 산업계는 '대폭적인 이니셔티브와 독립성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
 - 일본주식회사를 "지휘관 관료가 직접적으로 행동지령을 발출하고 업계가 이에 따른다고 하는 조직"으로 볼 수 없음
 - 산업정책의 목표설정은 정부와 업계의 '합의'의 결과라고 함.
 - 정부와 산업계의 "융화와 컨센서스는 상호작용의 기초라기보다도 오히려 그 결과"이며, 일본주식회사의 구조는 "일체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고도 하고 있음.
 - 일본의 산업정책은 러시아식 계획경제에 입각한 지령적인 것과는 다른 성격이고, 산업계와 정부의 상호작용 하에 입안·실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개발지향적 국가

- 1982년 미국 정치학자 차머스 존슨(Chalmers Johnson)
 - 「통산성의 기적(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 : '일본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 (**통산성**에 의해 주도된 산업정책이 그 핵심요소라고 주장)
- 미국 등 규제적(regulatory) 또는 시장합리적(market-rational) 국가
 - : 경제적 경쟁의 룰에 관심이 있고, 구체적 내용에는 관심이 없음
 - (별도로 산업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규칙과 상호양보**를 강조)
- 일본 등 발전지향적(developmental)·계획합리적(plan-rational) 국가:
 - : 구체적인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세움
 -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에 관련되는 **산업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둠)

2. 산업정책의 전개

- 메이지부터 1970년대까지의 일본정부의 산업정책 전개과정

● 일본주식회사적 체제는 언제 형성되었는가?

: 일본주식회사의 내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짐

- 일본주식회사를 근대산업을 급속히 이식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 협조해야 한다는 공통의 국가의식하에서 관민이 협조하여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면, 메이지정부 시기에 이미 형성
- 조세특혜, 보조금지원 및 경쟁제한 등과 같은 몇몇 산업지원정책의 패키지가 완성된 시점으로 본다면 1950년대 전반에 형성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1) 메이지기

- 메이지 초기에 정부가 공업화를 위해 수행한 역할
- ① 공업화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
 - ex) 법제도의 정비(민법·상법의 정비, 재정제도, 화폐제도 등)
 - 산업 전체를 위한 기반 정비(철도·통신망의 건설 등)

②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적 성격의 정책도 시행

ex) 식산흥업정책, 관영공장 운영 등

• 산업혁명이 개시된 메이지 후기에도 정부의 산업정책이 시행됨

① 군수공장의 확충, 기간철도의 국유화(1908), 관영제철소 건설(1901)

② 항해장려법(1896)과 조선장려법(1896)을 통한 해운업과 조선업의 보호, 육성 등의 산업정책 실시

③ 정책의 핵심은 군수공업의 확충

• 메이지 초기(공업화의 준비단계)를 제외하면 일본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이루어짐

- 근대적 면방직공업(산업혁명의 시발점) -민간기업가가 실현

- 국립은행 조례개정 이후 생겨난 은행 - 민간인이 설립.

상인, 부농에 축적되었던 자금이 산업부문에 투자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일본의 경제성장에 따라 정부역할은 축소되어 감.

2) 제1차 세계대전 ~ 1930년대 전반

• 제1차 세계대전기~1920년대

- 정부의 역할은 더욱 축소, 경제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방임(laissez-faire)기조

• 쇼와공황(1929년 후반~1932년) 이후 정부가 다시 전면에 나서기 시작

① **다카하시재정**이라는 케인스적 금융재정정책을 선구적으로 시행. <산업정책은 아님>

→ 서구선진국에 앞서 불황에서 벗어남

② **중요사업통제법**의 제정(1931): 산업정책적 성격을 갖는 정책

강제 카르텔 조항에 의해 카르텔을 조직함으로써 산업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한 정책

③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면서 조선업, 자동차산업, 석유업 등에 보조금, 세제혜택 지원

④ 1934년 민간제철업과 관영제철소 합병 등 정부의 개입 증가

⇒ but, 1930년대 전반까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아직 기본적으로 수동적, 소극적 기조였음

3) 전시통제기(1937년~1945년)

•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일본경제는 전시통제경제로 이행

-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보다 직접적인 것이 됨

- 물자동원계획(물동계획)을 입안·실행

→ 시장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지령에 의해 군수산업으로 자원배분을 시작

• 1941.8월 **중요산업단체령** 공포

- 각 산업부문마다 **통제회**가 성립함으로써 정부는 기업에 대한 광범한 권한을 가지게 됨

- 통제회의 주요임무 : 물동계획의 틀 내에서 생산·노동력·자재의 할당 및 생산 상황의 모니터링

→ 이후 육,해군이 각각 자신의 관리하의 기업을 **공업회**로 조직함으로써 통제회의 기능은 약화됨

• 1943년 12월 **군수회사법** 성립

- 군수성 발족과 함께 성립

- 군수관련 주요 기업들을 전면적으로 국가관리하에 둠

- 국가에 의한 기업관리와 자원배분의 통제는 비효율적, 자원의 '부족'과 '과잉'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노정

● **전전 정부의 역할 정리**

① 공업화 초기국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업화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만이 아니라 국가자본 자체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② 공업화가 궤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후경으로 물러나고,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가와 민간기업가에 의해 추진됨.

③ 전시통제기에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통제하는 등 통제적 성격이 강해지는데 이는 전시기의 일회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전후에도 영향을 미침.

(2) 전후 산업정책의 형성

1) 1940년대 후반

-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일본경제는 통제경제하에 있었음
 - 식량난, 물자부족으로 생산물은 배급에 의해 분배, 물가도 엄격히 통제
 - 닛지라인이 실시된 1949년 후반이 되어야 통제 철폐
- 이시기 특정 산업을 지원한 정책 - **경사생산방식** (1946.12.)
 - 철강과 석탄의 생산에 모든 물자를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철강과 석탄의 생산 확대를 도모, 생산부흥을 꾀도에 올려놓고자 한 정책
 - 1947.1월 부흥금융공고(정부금융기관)를 설립하여 이 정책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함.

2) 1950년대 전반 : 전후 산업정책의 골격이 형성

- 경제통제 철폐 후의 일본 정부의 전략: 수출진흥을 통한 ‘경제자립’
 - cf) 경제자립 : 합리적인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생활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원조 없이도 국제수지의 균형을 실현하는 상태
- 경제자립의 수단으로서 자국개발 우선주의를 버리고 무역주의를 선택. 즉, 장차 성장할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합리화정책을 전개
- **산업합리화정책**의 추진
 - 1949.4 ‘산업합리화의 건’이 각의에서 결정
 - 1949.12. ‘산업합리화 심의회’ 발족
 - 1951.2., 1952.7. ‘우리나라 산업합리화 방책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1,2차 답신으로 기본적 방향을 제시
- 위 답신에 기초하여 1950년대 전반에 전후산업정책의 골격이 형성.
 - 주요 정책수단은 **조세특별조치, 산업금융시스템의 정비, 외환통제** 등.

● 1950년대 전반에 형성된 전후 산업정책의 골격형성에의 주요 정책수단

① 조세특별조치

- 기업의 자본축적 및 수출촉진을 위해 세제상의 특별조치 도입 (52년에 제정된 **기업합리화 촉진법**으로 움직임이 촉진됨)
- 설비의 합리화, 근대화를 목적으로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제도
- 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술수입에 대한 중요 수입기계의 관세면제
- 중요 외국기술사용료 과세의 특례
- 수출촉진을 위한 준비금제도 or 특별상각제도

② 금융시스템의 정비

- 정부계 금융기관의 정비
 - 일본수출은행(1950년, 1952년 일본수출입은행으로 개칭)
 - 일본개발은행(1951년)
 - 중소기업금융공고(1952년)
- 1953년부터는 국가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재정투융자 계획** 확립
- 일본개발은행은 전력, 해운, 석탄, 철강 등 중점산업의 설비투자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 수출입은행도 수출진흥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취함
-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민간기업으로의 융자는 사실상의 생산보조금, 수출보조금이라 간주할 수 있음

③ 외환통제

- 국제거래 측면에서는 수입제한 또는 기타 경쟁제한적 조치 등 직접 통제적 수단이 동원됨
- 1949년 12월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 1950년 5월 「외자에 관한 법률」(외자법)이 제정
 - : 정부는 원료수입에 관한 수입수량할당과 기술도입의 인허가권 등 직접 통제수단을 장악.
 - 이 권한은 정부가 여러 정책개입에 강력한 수단이 되었으며, 이를 무기로 많은 산업을 중점목표산업으로 선택하여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이 이 시기에 강구됨.

- 1950년대 전반에 형성된 전후 산업정책의 골격 - 정리
 - 외환법, 외자법에 의한 인허가 권한과 산업합리화심의회를 통해 책정된 여러 합리화법안을 기초로 철강, 석탄, 전력, 비료,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합리화가 촉진
 - 이 시기에는, 전략산업을 산업 전체로서 우대한 경사생산방식과는 대조적으로, 대상 산업 내에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을 선별적으로 우대하는데 중점을 둠.
 - 시장기능의 유효성을 중시하는 만큼 경사생산방식에서의 직접적 통제방식 보다는 정상적인 기업의 채산성을 고려한 이익유도적·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

- 3) 1950년대 후반의 산업정책 : 고도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
- 기존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화정책에서 신규·성장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둠
 - 신규산업과 성장산업의 육성·진흥 사례:
 - 합성섬유(合成纖維5個年計劃: 1953.4.)
 - 석유화학(石油化學育成對策: 1955.7.)
 - 전자공업(電子工業振興臨時措置法: 1957.6.)
 - 일반기계(機械工業振興臨時措置法: 1956.6.)
 - 이외 자동차산업, 중전기산업 등에서는 높은 관세 및 수입할당 등 수입규제의 보호무역정책에 의해 국내기업이 보호됨
 - 독점금지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유지·촉진정책은 후퇴
 - 이 시기의 산업별 합리화촉진법은 모두 독금법의 적용제외가 규정됨
 - 1953년 독금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카르텔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합리화카르텔, 불황카르텔을 적용제외하는 제도가 설치됨.

(3) 1960년대 산업정책: 무역·자본자유화에 대응

- 1) 무역·외환의 자유화 및 자본의 자유화 진행의 의미
- ① 이러한 '자유화'는 산업정책 시행에서 강력한 정책수단이었던 정부(통산성)의 외환할당권 소멸을 의미
 - ② 자유화는 아직 선진국수준에 이르지 못한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됨
 -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체제론'을 주장하게 됨
- 2) 신산업체제론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정책
- : 무역자유화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산업질서, 산업구조, 정부·민간관계의 방향을 논한 것
- ①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기업의 집중·합병·공동행위를 촉진
 - ② 정부·민간 관계를 변혁하여 생산량, 설비투자, 가격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를 제안
 - 신산업체제론은 관민협조방식을 실천하려는 「특정산업진흥임시조치법」(특진법)의 법제화로 발전

3) 특정산업진흥임시조치법(특진법)

- '관민협조방식'을 축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는 산업을 지정하여 합병과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추진
- 지정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줌
- 통산성에 매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금융계 및 '자주조정론'을 주장하는 산업계의 반대로 폐안됨
- 하지만 특진법안의 구상은 다음과 같이 일부 실행에 옮겨짐
 - 통산성은 석유화학, 종이·펄프, 화학섬유 등은 '관민협조간담회'를 통해 설비투자조정을 중심으로 한 당해산업의 구조개선방안에 개입
 - 철강, 섬유 등은 통산성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비투자조정에 개입

(4) 석유위기 이후의 산업정책

1) 1970년대 제1, 2차 석유위기 이후 산업구조조정정책으로 이행

- 에너지 코스트의 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이른바 구조불황산업에 대한 정책.
- 산업구조조정정책
 - : 사양산업 혹은 구조불황산업에서의 혼란을 회피하고 원활한 산업조정을 진행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① 1978년 「특정불황산업안정임시조치법」(특안법), 1983년 「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산구법) 성립.
 - 과잉설비의 공동폐기, 불황카르텔 실시
 - ② 1987년 「구조전환원활화법」(원활화법) 성립.
 - 생산능력 과잉설비분야에서의 사업자 또는 고용환경이 악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설비처리와 사업전환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짐

2) 정부·기업간 관계의 변화

- 안정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업정책의 성격이 수동적·지침적·중개적 성격으로 바뀜
 - 국내적: 독금법 강화에 의해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 결성에 제약이 커짐.
 - 대외적: 격화되는 무역마찰을 계기로 국내산업정책에 의한 해외로부터의 비판이 드세짐.
- ‘비전(vision) 제시’
 - 70년대 이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커짐.
 - 산업구조와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 민간기업에게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업계의 의사결정을 비전에서 제시한 정부의 정책목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

3. 산업정책의 성과

(1)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성과

1) 다케우치(2002) : 일본의 산업을 성공산업과 실패산업으로 나누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

- 성공산업에서 일본정부의 역할이 인정되기는 하나, 일본적 특징으로서 생각되는 것과는 대단히 다르다.
- 일본적 특징으로 간주되는 경쟁에 대한 직접 개입은 미싱산업 외의 어느 성공산업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음
- 성공산업에서 효과를 본 정부정책은 엄격한 기준의 설정(가정용 에어컨), 초기수요의 자극(팩시밀리, 산업용 로봇)과 같은 ‘일본형’ 산업정책과 다른 것들임.
- 오히려 전형적인 산업정책은 실패한 산업에서 많이 시행되었음을 밝힘.
 - 카르텔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경쟁이 억제되었던 분야인 민간항공기사업, 화학산업(화학비료, 석유화학제품) 등이 대개 실패한 산업임.

⇒ 이 연구결과는 적어도 일본주식회사적인 정부와 산업계의 협조체제 또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일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줌.

2) 깃가와 (1991)

- 산업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모두 일면적 견해라고 비판.
- 정부의 역할은 산업마다 다르며 동일산업 내에서도 정책내용에 따라 산업정책의 효과가 달라짐 (전기사업법, 석유업법의 사례를 분석).
 - 전기사업법 제정 시 : 업계가 주도성을 발휘하여 정부의 개입은 한정적
 - 석유업법 제정 시 : 업계가 법 제정에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정부개입을 불러들임.

⇒ 종래 정부·산업간 관계를 정부 쪽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는 방법의 한계성을, 업계 쪽의 질서화 능력 내지는 조정능력에 주목하여 극복하고자 한 시도.

(2) 정리

- ① 산업정책이 일본의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했다는 주장은 학계에서는 지지되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의 노력과 창의에 의해 달성,
 - 산업정책은 호의적으로 평가해도 민간인의 노력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침
(일부의 학자들은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고 주장)
- ② 일본정부가 민간을 지도하고 이끌었다는 이미지도 잘못된 것임
 - 메이지 초기 서구의 충격이라는 외압하에 공업화를 수행하고자 할 때 정부가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공업화가 궤도에 오른 이후는 시장기구를 전제로 한 경제운동을 해 왔음.
 - 정부가 민간부문과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것은 일방적으로 지령하는 방식이 아닌 협조주의적 방식을 취함.

(3) 우리나라 경제정책 운영에 대한 시사점

- 한국도 발전지향적 국가로서 경제성장을 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산업계나 국민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듯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는 긍정정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즉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정부의 지원과 보호는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의 보호, 효율성 낮은 기업의 온존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기 쉬움.

▣ 주요용어

일본주식회사	일본의 국민경제를 회사조직에 빚대어 사용되는 용어 또는 개념. 일본에서의 정부와 기업 간의 밀접한 협조관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지향적 국가 (계획합리적 국가)	차머스 존슨(C. Johnson)에 따르면, 개발지향적(developmental) 또는 계획합리적(plan-rational) 국가는 구체적인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세우는데 특징이 있으며, 경제정책에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에 관련되는 산업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반면, 규제적(regulatory) 혹은 시장합리적(market-rational) 국가는 경제적 경쟁의 형식과 수속, 즉 룰에 관심을 갖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며 산업정책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는 대신 규칙과 상호 양보를 강조한다.
산업정책	산업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정부가 보조금, 우대 세제, 무역 제한, 카르텔 등의 경쟁 억제 등의 수단을 통해 자원을 특정 산업부문으로 이동시키는(또는 반대로 특정산업 부문에서 자원이 다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리하기

- 정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일본에서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특정 산업을 지원, 보호하는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산업정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정부가 보조금, 우대 세제, 무역 제한, 카르텔 등의 경쟁 억제 등의 수단을 통해 자원을 특정 산업부문으로 이동시키는(또는 반대로 특정산업 부문에서 자원이 다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1970년대에 서구 저널리즘에 등장하기 시작한 ‘일본주식회사(Japan Incorporated)’란 용어는 일본경제의 성장요인으로서 독특한 관민협조적 경제운영 또는 독특한 산업정책을 주목한 것이다.
- 일본주식회사론은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일본 산업정책의 본질로 보며, 러시아식의 계획경제에 입각한 지령적인 것과 구별하고 있다.

- 미국의 정치학자 차머스 존슨은 1982년 출간된 「통산성의 기적」에서, 메이지유신 이후 발전지향적, 계획합리적 국가로 등장한 일본이 전개한 산업정책, 특히 통산성에 의해 주도된 산업정책이 일본의 '기적'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 메이지정부 초기에는 민법·상법의 정비, 재정제도, 화폐제도 등과 같은 법제도의 정비나 철도·통신망의 건설과 같은 공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식산흥업정책이나 관영공장의운영 등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적 성격을 가지는 정책도 시행했다.
- 일본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메이지 초기의 공업화의 준비단계를 제외하면 1930년대 전반까지 일본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민간인과 민간자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1937년의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본경제가 전시통제경제로 이행하면서 정부의 산업에 대한 개입은 보다 직접적인 것으로 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되던 경제통제는 1949년 닛지 라인의 실시에 따라 철폐되었다.
- 경제통제의 철폐 후 일본 정부가 재빠른 경제부흥을 위해 선택한 전략은 선진국을 캐치업하기 위해 수출진흥을 통해 경제자립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산업합리화정책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 1950년대 전반에 전후 산업정책의 골격이 형성되었는데 그 주요 정책수단은 조세특별조치, 산업금융시스템의 정비, 외환통제 등이었다.
- 1960년대에 들어와 진행된 무역·외환의 자유화 및 자본의 자유화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서 '신산업체제론'을 제창하였다.
- 1970년대의 제1, 2차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산업정책의 중심은 에너지 코스트의 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이른바 구조불황산업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정책으로 이행하였다.
- 일본의 산업정책의 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는 부정적인 것이 많으며, 이러한 연구성과에 기초할 때 일본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의 노력과 창의에 의해 달성된 것이며 정부의 산업정책은 호의적으로 평가해도 민간인의 노력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의연습문제]

1.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을 주도한 일본의 정부 부서는 어디인가?
 ① 대장성 ② 통산성 ③ 경제기획청 ④ 내각부
2. '메이지 정부가 시행한 산업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식산흥업정책 ② 군수공장의 운영 ③ 제철소의 운영 ④ 중요산업통제법의 제정
3. 일본의 전후 산업정책의 골격이 되는 정책수단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생산 보조금 지급 ② 조세특별조치
 ③ 산업금융시스템의 정비 ④ 외환통제

<정답> 1.② 2.④ 3.①

15장. 일본의 노사관계는 협조적인가?

■ 학습개요

일본의 노사관계는 협조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협조적 노사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협조적 노사관계가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 학습목표

1. 노사협조적 노사관계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노사협조적 노사관계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노사협조적 노사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목차

1.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노사관계
2. 제2차 세계대전기의 노사관계
3. 전후 부흥기
4. 고도성장기
5. 석유위기와 노사관계의 전환
6. 협조적 노사관계의 공과

- 문제 제기 : 일본의 협조적 노사관계는 일본의 문화적 풍토나 일본인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
 - 협조적 노사관계는 언제, 어떤 요인에 의해 일본에 정착되었는가?
 - 협조적 노사관계는 ‘바람직’한 것인가? 문제점은 없는가?

1.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노사관계

(1) 메이지기의 노동운동

1) 임금노동자 계급의 성장

- 1880년대 중반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임금노동자라는 계급이 성장
- 이들이 점차 권리를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경영자와 대립

2) 1900년대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노사관계

- ‘봉건적 주종관계에 흡사’한 ‘원생적’ 노동관계
- 노동자는 엄격한 통제 하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 받고 임금은 낮은 수준
- 고용주는 가부장적 · 권위주의적으로 노동자에게 충성과 복종을 요구, 노동자의 합리적 관리에는 관심이 없었음.

3) 1897년 노동조합기성회 결성

- ‘원생적 노동관계’ 하에서 탄광노동자의 폭동, 방적공의 파업, 직인의 임금투쟁 등 노동쟁의가 발생하기 시작.
- 1890년대 말의 노동운동의 고양을 배경으로 노동조합기성회 결성.

4) 정부의 대응

- 1900년 치안경찰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노동운동을 비롯한 정치 · 사회운동을 탄압
- 이로 인해 노동쟁의는 감소함.

5) 러일전쟁의 영향

- 군공장, 조선소, 광산을 중심으로 다시 대규모 노동쟁의가 빈발.
- 이 시기 조직 면에서는 저조, 노동자의 계급의식도 약한 상태.
- 사회주의 사상보다 기독교 사상이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침.

6)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

- 메이지 말부터 사회주의 사상의 서서히 보급, 1906년 일본사회당 결성.
- 정부의 강력한 사회운동 탄압(1908년 赤旗사건, 1910년 大逆사건)으로 노동운동은 퇴조.

(2) 제1차 세계대전기 노동운동의 고양과 우애회의 활약

1) 제1차 세계대전기의 노동운동의 고양

- 1차대전의 발발로 1917~1919년에 대규모 쟁의가 빈번히 발생함.
- 우애회가 중심적 역할을 함.

2) 우애회의 활약

- 1912년 스즈키 분지(鈴木文治)에 의해 조직됨.
- 15명으로 시작, 1918년에는 2만 명, 지부 120개에 달함.
- 노동조합의 결성이 활발해지는데 기여(1919년에 조합 수가 71개)
- 1919년 8월 우애회가 종래의 협조주의에서 계급투쟁을 기조로 하는 노동방침을 채용, 대일본노동총동맹우애회로 개칭.
- 1921년 일본노동총동맹으로 개칭

(3) 경영가족주의

: 대기업 경영자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해 '경영가족주의'로써 대응함

1) 경영가족주의

- 기업을 가족적 공동체로 간주하고 종업원에 대해 온정주의에 의한 시책 실시.
- 종업원은 그 온정에 부응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노사협조사고에 기초.
- 1차 세계대전기부터 전후에 걸쳐 확대된 기업조직의 통합, 노동자의 직용화(直庸化), 노동운동의 도전에 직면한 대기업 경영자에 의해 채용됨.

2) 경영가족주의 하의 노사관계 실태

: 커다란 격차 구조

- 직원과 노동자 사이에 신분적이라 할만큼 커다란 격차가 존재함.
- 종업원의 기업 내 위계는 학력에 조응.
- 임금체계도 노동자는 일정 직급 이상 승급이 되지 않는 반면, 직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승급
- 이로 인해 노직(勞職) 간에 임금격차도 확대.

⇒ 즉 '종업원'이라는 이름 하에 노동자와 직원을 동등하게 기업구성원 으로 간주하는 노사관계 이념이 1930년대에는 실태로서 현실화 되지 않음.

2. 제2차 세계대전기의 노사관계

(1) 전시 노동통제의 전개

-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전시노동통제가 전개
 - 정부는 노동자들을 군수생산에 동원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동제한 및 이동방지조치를 취하고 임금을 규제함.
- 태평양전쟁기에는 국민징용과 근로동원이 본격화 됨.

● 전시노동통제가 고용제도에 미친 영향

- 노동자의 이동제한·방지조치나 기능자 양성제도의 의무화는 기업 내 승진체제의 확대·제도화를 촉진
- 임금형태와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옴
 - 각 기업은 임금통제령 실시에 의해 승급 테이블을 확립해야 했고 정기승급이 일반화 되어 감.
 - 대량의 징용공을 고용하게 되면서 근속보다 연령을 기본으로 하여 능력급보다 생활급이 제창됨.
 - 노동력 확보와 생활유지를 위해 퇴직금제도가 급속히 보급됨.

⇒ 장기고용과 연공서열 임금이 성립하는 기반이 됨.

(2) 산업보국운동

1) 산업보국운동

- 전시노동통제 중 특히 노사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노자일체(勞資一體) = 산업보국(産業報國)을 표방하는 운동으로 1938년 3월경부터 정부에 의해 전개되기 시작.
- 1938년 7월 산업보국연맹(운동추진을 위한 중앙기관)이 창설된 후 대기업에서는 공장위원회 등 기존 기업 내 조직을 통합하는 형태로 진행, 중소기업에서는 경찰이 주도하면서 사업자·종업원을 포함하는 단위산업 보국회의 조직화가 진행.
- 1939년 말 26,963개 사업소에 산업보국회가 설립, 약 300만 명이 조직됨. 산업보국회의 조직화 진행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은 해산할 수 밖에 없게 됨.
- 원래 간담회 활동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수립을 지향했으나 노동동원이 본격화함에 따라 전시노동통제의 하청기관으로서 재편성 됨.
- 1940년 11월 대일본산업보국회 설립, 단위산보에서도 직제기구에 대응한 부대조직회가 진전.
- 하지만 전국이 악화하고, 대량의 징용·근로노동에 의해 직장질서가 동요하는 속에서 산보의 노사관계 조정기능은 저하, 물자배급과 근로동원의 보조적 활동이 주된 임무였음.

2) 산업보국운동이 제창한 '근로'의 의미

- 1940년 11월 '근로신체제확립요강'은 노동자를 경영자와 함께 국가에 봉사하는 근로자로서 파악.
-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격을 승인 받는 존재인 노동자의 자발성·전쟁협력을 환기하고자 함.

3) 전시 하에서의 '평등화' 진행

: 산보의 이념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평등화'가 진행

- 전시경제의 심화는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 노직간의 격차축소를 촉진.
- 노동자 뿐 아니라 사무·기술계 직원도 급증, 하급직원과 공원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급속도로 축소.
- 근로자로서의 평등성에 근거하여 전쟁 말기에는 직원과 공원의 차별성을 철폐한 공원월급제가 제창

3. 전후 부흥기

(1) 패전 이후 일본 노사관계의 변화

- GHQ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노동의 민주화 추진
 - 노동조합의 합법화, 노동관련법 정비, 노동운동의 활성화
- 각 사업소에 노동조합이 결성, 활발한 노동운동
- 1949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55%에 이룸

(2) 노동운동의 중심 - 기업별 조합

1) 기업별 조합

- 공원·직원을 일체로 조직한 종업원 조합
- 공원·직원을 일체로 조직할 수 있었던 전제: 전시에 산보의 이념에서도 실태에서도 양자의 '종업원'으로서의 평등화가 진행.

2) 기업별 조합 형성의 의미

- 기업별 조합은 종업원 이해의 옹호라는 기업주의적 원리를 그 행동양식의 핵으로 하고, 상황변화에 대한 높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 일본 노동운동이 서구의 산업별·직업별 조합 기반의 노동운동임에 비해 경제변화에 대한 높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지니는 까닭임.

(3) 전국적 조직의 결성

일본노동조합총동맹(총동맹)	전일본산업별노동조합회의(산별회의)
횡단적 노동조합, 온건한 사회적 개혁이 목적	횡단적 노동조합, 급진적 체제변혁을 지향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협약과 기업 내 노사협의를 노사관계의 프레임워크로 둠.	노동조건을 둘러싼 강력한 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동시적·일체적으로 수행
산업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를 향한 점진적 사회개 혁을 지향하는 우파적 조합주의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좌파적 급진적 조합주의

(4) 전국적 조직의 노선과 기업별 조합 행동원리(기업주의)의 격차

- 총동맹과 산별회의의 조직원리는 기업별 조합의 행동원리와는 이질적인 것이었음
- 이들의 조합주의란, 조직원리라는 점에서 산업별·지역별 조직을 기본적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종업원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노동자의 이익을 조합의 목적으로 생각함.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혁을 전망하는 시야를 가짐
- 전국적 조직의 노선과 기업별 조합의 행동원리인 '기업주의'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 채로 전후 노동운동이 전개

(5) 노동운동의 후퇴

- 1947년 맥아더의 중지명령에 의한 '2·1 제네스트'의 좌절, 1948년 9월의 맥아더 서한에 기초한 '정령 201호' 공포에 의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의 박탈 등 노동운동에 대한 GHQ의 자세가 전환되고, '닷지 라인'의 실시로 기업정비가 진전되자 노동운동은 후퇴하게 됨.
- 한국전쟁 발발 전후부터 '레드 퍼지'가 개시되어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해고당하게 됨.
-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 1950년 결성)에 의해 노동운동이 다시 활성화됨

(6) 총평의 산업별 조합의 단일화 시도와 좌절

1) 총평의 산업별 조합 정리통합 도모

- 총평은 설립 당시 온건한 우파적 노선을 천명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주의’를 노동운동의 목표로 내걸었음.
-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을 노동계급의 수중에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계급주의적 해석을 함.
- 기존의 종업원조합을 ‘계급적 연대성’ 위에서 재조직하는 조직강화 방침을 결정, ‘산업별 조합의 단일화’를 당면의 기본과제로 설정함.

2) 대규모 쟁의가 총평의 패배로 끝나면서 기업별 조합이 정착

- 1952년 탄로·전산쟁의, 1953년 닛산쟁의, 1954년 아마코쟁의, 닛코무로란쟁의 등 1950년대 전반에 총평이 주도한 대규모 쟁의가 조합측의 패배로 끝나면서 총평의 산업별 조합의 단일화는 좌절되고 기업별 조합이 정착.

4. 고도성장기

(1) 노동조합 조직률의 추이와 노동쟁의 빈도

1) 노동조합 조직률의 추이

- 1949년 55.8%로 피크를 기록한 후 급속히 하락
- 1955~1973년에는 33~34% 수준의 안정적 추이를 보임.
- 1976년 이후 조직률의 급속한 하락과 대조적임.
- 고도성장기에 노사관계구조가 하나의 안정적 형으로서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

2) 노동쟁의 빈도

- 석유위기 이후 노동쟁의 빈도 수가 현저히 감소한 데 반해 고도성장기에는 일정수준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남.
- 노동손실일수로 보면 석유위기를 전후한 시기의 차이는 더 날카롭게 드러남.

(2) 분쟁적 안정구조

1) 고도성장기 안정된 노사관계 구조를 ‘분쟁적 안정구조’라 함.

- 석유위기 이후의 ‘협조적 안정구조’와는 성격이 다름.
- ‘분쟁적’이란 노동쟁의가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한 요소로 되어 있음을 의미. 구체적으로는 쟁의행위를 수반하는 임금분쟁(춘투)이 루틴화·제도화함으로써 달성.
- 분쟁적 구조가 ‘안정적’이었던 것은 고도성장의 지속이라는 경제적 조건이 있어 가능했음. 즉, 고도성장에 따른 노동수요가 많아져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해지고, 성장은 그 자체가 분쟁의 코스트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기업에 부여했기 때문.

2) 춘투의 개시(1955년)가 분쟁적 안정구조의 정착에 시사하는 바

- 춘투의 개시는 고도경제성장의 시작과 부합
- 춘투는 기업별 조합의 취약한 교섭력 보완을 위해 구상됨.
- 기업별로 임금을 교섭하는 것은 기업별 조합 체제에서는 노동조합에 불리하기 때문에 봄철에 ‘산업별 통일 투쟁’으로 임금을 교섭하는 방식임.
- 고도성장기를 통해 춘투가 노동의 주요요소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경제의 고도성장은 노동운동을 임금거래의 기구 중에 통합했다고 할 수 있음(전후 부흥기의 급진적 노동운동은 고도성장기에 들어와 보다 안정적인 경제주의 운동으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음).
- 이 시기에,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체제적 문제를 포함하는 ‘노자관계(勞資關係)’라는 말 대신 노동조합과 경영의 제도적 교섭관계를 보다 강하게 의미하는 ‘노사관계(勞使關係)’라는 용어가 일반화 됨.

(3) 총평 세력의 약화

1) 총평은 계급대립의 관점을 고수

- 기업의 틀을 넘어서 산업레벨에서의 임금결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임금투쟁의 방법으로서 노동자의 대중적 참가를 의도함.
- 여기에는 노자관계를 계급적·근본적 대립관계로 보고 스트라이크라는 힘에 의한 교섭을 기본으로 하는 '노자관 계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 총평의 퇴조와 노사협조적 흐름의 영향력 강화

- 총평의 지도력은 미이케 쟁의 패배(1959~60년)로 급속히 약화됨.
- 1964년 전일본노동총동맹(동맹)과 IMF·JC(국제금속노련일본협의회)의 결성이 계기가 되어, 노사협조적 노선을 표방하던 그룹이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

(4) 동맹의 성립과 IMF·JC의 결성

1) 동맹의 성립

- 1954년 전일본노동조합회의(전로회의) 성립으로 거슬러 올라감.
- 전로회의는 1952년 전산·탄로쟁의 시 총평의 지도방침을 비판하고 탈퇴한 총평의 우파가 1954년 총동맹과 함께 결성한 노동조합 협의체.
- 산하에 전로회의 소속 단산과 총동맹이라는 내셔널 섹터를 두었기 때문에 가맹조직의 증가에 따라 조직간 알력 등이 발생, 조직의 일체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1964년 산업별 조합을 직결하는 동맹체로서 동맹이 발족.

2) IMF·JC의 결성

- 동맹 결성과 같은 시기에 국제금속노련으로의 가맹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IMF·JC의 결성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음.
- 철강산업에서는 1960년 전후로 야하타제철 출신의 미야타 요시지(宮田義二)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협조노선이 노동운동의 리더십을 장악
- 미야타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IMF·JC가 발족.
- 이후 노사협조주의 노선에 입각한 노동운동을 전개, 춘투를 주도.
- 1967년부터 '총평춘투', '동맹·금속임투'가 동시에 전개하면서 점차 IMF·JC 주도의 춘투로 전환.
- 그로 인해 임금인상이 생산성 상승률 범위로 억제됨으로써 춘투에 의한 노동시장 규제력이 상실될 조짐이 이미 고도성장기 후반부터 보임.

3) 동맹과 IMF·JC 발족의 영향

- 민간대기업 중에는 총평을 탈퇴, 동맹에 가입한 사례가 속출.
- 1967년 이후 민간부문에서는 동맹조직이 총평을 상회함.
- IMF·JC에 가맹한 민간 주력 단산에서는 대기업의 기업별 노조가 형식적으로는 총평에 소속, 지역조직에서는 실질적으로 탈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총평의 세력은 약화됨.

5. 석유위기와 노사관계의 전환

- 1) '협조적 안정구조'로 변화 - 75년을 경계로
 - 1974~1975년을 피크로 일본에서 노동쟁의는 급속히 감소
 - 노동조합 조직률도 1976년 이후는 저하경향
 - 1975년을 경계로 일본 노사관계는 '분쟁적 안정구조'에서 '협조적 안정구조'로 변화.

cf) '협조적'의 의미
 : 노동조합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그 때문에 사회경제의 변혁을 전망하는 시야를 가지고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업 내부의 종업원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기업의 경영전략에 적극 협조하는 것

- 2) 협조적 노사관계의 정착
 - 노사 이해의 일치를 중시하는 견해가 일반적이 됨
 - 안정성장기에는 노동쟁의가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한 요소였던 상황이 소실되고 노사 이해의 일치를 중시하는 견해가 일반적이 됨.
 - 언론이나 노동자의 의식도 노동조합이나 쟁의 행위에 대해 무관심 혹은 비판적이 됨

● 안정성장기에 협조적 노사관계가 지배적이 된 이유
 : 경제성장을 저하에 따른 노동 수요의 감소가 고용불안을 증대시켜 노동자의 직장으로의 고착이 강화된 것을 배경으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의 세력이 증진되고 기업주의적 노동운동이 고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3)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억제
 - 석유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금인상을 억제했기 때문.
 - 제1차 석유위기 직후인 1974년 32.9%라는 기록적인 임금인상에 대응하여 정부와 일경련은 한 자릿수 임금억제 정책을 전개
 - 여기에 철강노련 미야타가 동조, 종래의 '전년 실적+알파'라는 임금인상방식의 수정을 제기.
 - 이에 동맹이 동참하면서 노동조합이 제시한 '임금인상자숙론'이 주목받기 시작. 경제성장애 걸맞은 실질임금인상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합성론'이 확산.
 - 이후 임금인상은 IMF·JC가 주도, 임금인상 타결금액이 매년 일경련의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결정되면서 JC 춘투는 관리춘투, 일본형 소득정책으로 인식됨.

- 4) 노동조합의 기업노선 강화
 - 노동조합은 감량경영 등 기업의 합리화 전략에 적극 협력함.
 -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고 더 많은 성과배분을 기대한다는 기업주의 노선을 강화
 - 이런 경영에 대한 협조적 자세는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 석유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됨.

- 5) 석유위기 후 발생한 노동운동 전환의 불가역적 진행
 - 노동운동의 노사협조적 노선은 80년대 이후에도 일본 노동운동의 주류가 됨.
 - 1989년 구노동 4단체의 다수를 흡수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연합, 렌고) 성립, 협조적 노사관계의 제패를 여실히 보여줌.
 - 렌고의 성립으로 '계급투쟁의 주체'에서 '광의의 노사관계의 일 당사자'로의 노동조합의 전환이 선언.
 - '계급주의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세력은 공무원, 중소기업을 주기반으로 하는 전노련, 전노협 등 소수세력에 불과함.

6. 협조적 노사관계의 공과

1) 노사관계 변용의 의미

- 오일쇼크를 계기로 한 경제성장방식의 변화에 높은 적응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
- 기업별 조합은 격렬한 기업 간 경쟁 하에서의 노사협조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노사 간의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공헌하고 있음

⇒ 이는 오일 쇼크 이후의 시기에 일본이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일본 협조적 노사관계의 문제점

①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요인이 됨

- 기업별 조합은 정사원(정규직 노동자)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기업의 합리화에 협력하는 것은 조합원, 즉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함.
- 경영 측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위협함 없이 불확실한 경영상황에 대처해야 하므로 조합원이 아닌 비정규고용노동자를 늘릴 수 밖에 없음.
- 비정규노동자의 증대에 따라 기업 내 종업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서는 ‘과반수대표’를 유지하기 힘든 조합도 생겨남.

② 이른바 ‘회사인간’을 양산하는 배경이 됨

- 회사인간이란, 회사에 과도하게 커미트(over-commit)하는 직장귀속인간임.
- 이들은 자발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장시간 노동이나 단신부임 등을 감수하면서 회사 일에 몰두하다 과로사에 이르기도 함.
- 회사형 인간은 자신의 인생과 일을 밸런스를 잃은 사람으로, 건전한 현상이라 할 수 없음.
- 협조적 노사관계의 배후에는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고착강화 및 노동자 간의 경쟁격화에 따른 회사인간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있음에 주의.

▣ 주요용어

<p>노사관계</p>	<p>노사관계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대립을 조정하거나 해소하는 과정을 말한다. 노사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로 구별되며, 이 중 후자가 노동자의 집단적 발언기구(대개는 노동조합)와 경영간의 관계로서 노사관계로서 통상 취급되고 있는 영역이다. 구체적으로는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나 노사협의제 등 노사간의 정보교환이나 교섭, 결정의 과정이다.</p>
<p>직공(職工)의 평등화</p>	<p>직원과 공원의 평등화. 여기서 직원은 관리직 또는 화이트칼라층을, 공원은 생산직 또는 블루칼라층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에서는 직원과 공원 사이에는 신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두 계층의 평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p>
<p>기업별 조합</p>	<p>당해 기업의 종업원만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 산업별 조합이나 직업별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이 실업을 하거나 소속 기업이 바뀌더라도 산업이나 직종이 동일한 한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지만 기업별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자격을 잃으면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p>

<p>기업주의적 노동운동</p>	<p>기업 내부의 종업원 이해 옹호라고 하는 기업주의적 원리를 그 행동양식의 핵으로 하는 노동운동. 기업의 생존과 종업원의 생존이 일체이며 기업과 종업원이 '운명공동체'라는 사고방식이 침투하게 된다.</p>
<p>분쟁적 안정구조</p>	<p>일정한 수준의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대단히 안정적인 노사관계구조를 의미. '분쟁적'이라는 것은 노동쟁의가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한 요소로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분쟁적 구조가 '안정적'이었다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한 경제적 조건, 즉 고도성장의 지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p>
<p>협조적 안정구조</p>	<p>노동운동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회경제의 변혁을 전망하는 시야를 상실한 채, 기업 내부의 종업원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기업의 경영전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노사관계구조를 의미.</p>
<p>회사인간</p>	<p>회사에게 과도하게 커미트(over-commit)하는, 직장귀속인간.</p>
<p>비정규직 노동자</p>	<p>이른바 '정규고용' 이외의 유기고용(有期雇用) 계약 하에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법적인 고용형태 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유기계약노동자, 파견노동자, 파트타임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규고용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체로 정년까지 고용된다. 일본의 총무성(「가계조사」, 「취업구조기본조사」)에서는, 회사·단체 등의 임원을 제외한 고용자에 대해, 근무처에서의 명칭에 의해 '정규의 직원·종업원', '파트', '아르바이트', '노동자파견사업소의 파견사원', '계약사원', '촉탁(囑託)' '기타'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 '정규의 직원·종업원' 이외의 6 구분을 통틀어서 '비정규의 직원·종업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비정규의 직원·종업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파트/아르바이트: 취업 시간이나 일수에 관계없이 근무처에서 '파트 타이머'나 '아르바이트', 또는 그것에 가까운 명칭으로 불리는 자.</p> <p>노동자파견사업소의 파견사원: 노동자파견사업소에 고용되어 이곳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p> <p>계약사원: 전문적 직종에 종사시킬 것을 목적으로 계약에 근거하여 고용된 고용기간이 정해진 자</p> <p>촉탁: 노동조건이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무처에서 '촉탁직원' 또는 그것에 가까운 명칭으로 불리는 자.</p>
<p>현장력</p>	<p>현장력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장이 지속적으로 가이젠(改善)을 수행할 수 있는 힘' 또는 '현장이 스스로의 의지로 진화하고자 하는 힘'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p>

▣ 정리하기

-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노사관계는 '붕건적 주종관계에 흡사(酷似)한 '원생적(原生的) 노동관계였다.
- 공업화가 진행되고 노동운동이 크게 고양됨에 따라 1897년 노동조합기성회가 결성되었다.
- 초기의 노동운동에서는 기독교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메이지 말기부터는 사회주의 사상도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하여 1906년에는 일본사회당이 결성되었다.
- 노동운동의 고양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00년에 치안경찰법을 제정하여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정치·사회운동을 탄압하였다.
-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라 일본경제가 공전의 붐을 맞이하게 되자 노동운동도 1912년 스즈키 분지(鈴木文治)에 의해 조직된 우애회(友愛會)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고양되었다.

- 제1차 세계대전기의 노동운동의 고양에 대해 대기업 경영자들은 경영가족주의로써 대응하였는데, 경영가족주의는 기업을 하나의 가족적 공동체로 간주하고 경영자는 종업원에 대해 가정적인 온정주의에 의한 시책을 실시하며, 종업원은 그러한 온정에 부응하여 기업의 존속과 발전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노사협조의 사고에 기초한 것이었다.
- 경영가족주의의 제창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노동자 사이에는 신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였으며, '종업원'의 이름 하에서 노동자와 직원을 동등한 기업구성원으로 간주하는 노사관계 이념이 1930년대에는 실태로서 현실화되지 않았다.
- 전시노동통제의 전개는 고용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후의 장기고용과 연공서열임금이 성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 1938년부터 '노자일체(勞資一體)=산업보국(産業報國)'을 표방하고 전개된 산업보국운동이 제창한 '근로'의 의미는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노직간의 격차축소를 촉진함으로써, 전시하에서는 산보의 이념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노동자와 직원 간의 평등화가 진행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GHQ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비롯한 노동관련법의 정비, 노동운동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의 민주화를 추진하였다.
- 전후 부흥기에 고양하는 노동운동의 중심은 공원·직원을 일체로 하여 조직된 종업원조합인 기업별 조합이었다.
- 기업별 조합은 종업원 이해의 옹호라고 하는 기업주의적 원리를 그 행동양식의 핵으로 하고 상황의 변화에 대한 높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노동운동은 서구의 산업별 조합 또는 직업별 조합을 기초로 하는 노동운동에 비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높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 기업별 조합이 급속히 보급되는 중에 산업별 조직화, 전국 조직의 결성도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전국적 조직의 '조합주의' 노선과 기업별 조합의 행동원리인 '기업주의'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였다.
- 1950년부터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인 총평은 계급대립을 전제로 산업별 조합의 단일화를 기본과제로 설정하지만 1950년대 전반의 총평이 지도한 일련의 노동쟁의에서 패배함으로써 끝남으로써 총평의 산업별 조합으로의 단일화는 좌절되었으며, 기업별 조합이 정착되게 되었다.
- 고도성장기의 노사관계는 일정한 수준의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노사관계구조는 대단히 안정되었다는 의미에서 '분쟁적 안정구조'라고 할 수 있다.
- 분쟁적이라는 것은 노동쟁의가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한 요소로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쟁의 행위를 수반하는 임금분쟁=투쟁이 루틴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이것은 달성되었습니다. 분쟁적 구조가 '안정적'이었다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한 경제적 조건, 즉 고도성장의 지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일본경제가 고도성장하는 중에 계급대립·계급투쟁의 관념을 고수하고 있던 총평의 지도력은 1959~1960년의 미이케쟁의에서의 조합 패배를 계기로 급속히 약화되었으며, 이에 대신하여 노사협조노선을 표방하는 동맹과 IMF·JC가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 1974-75년을 경계로 하여 일본의 노사관계는 '분쟁적 안정구조'에서 '협조적 안정구조'로 변화하였다. 여기서 '협조적'이란 것은, 노동조합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그 때문에 사회경제의 변혁을 전망하는 시야를 가지고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업 내부의 종업원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기업에 경영전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협조적 노사관계 하에 노동조합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더 많은 성과배분을 기대한다는 기업주의 노선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경영에 대한 협조적 자세가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석유험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 협조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과 정규고용종업원 비율의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협조적 노사관계에 수반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것이 이른바 '회사인간'을 양산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의연습문제]

- 1. 일본의 노동조합의 주류는 어떤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인가?
 ① 산업별 조합 ② 직종별 조합 ③ 기업별 조합 ④ 지역별 조합
- 2. 일본에서 제1차 세계대전기에 고양된 노동운동에 대해 대기업 경영자가 취한 대응책으로서 옳은 것은?
 ① 경영가족주의 ② 군대식 강압주의 ③ 조사평등주의 ④ 산업민주주의
- 3. 일본의 고도성장기 노사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적 안정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노동쟁의의 빈도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안정적 노사관계가 유지되었다.
 ㄴ. 임금분쟁이 제도화되고 루틴화되었다.
 ㄷ. 노동쟁의가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한 요소로서 간주되었다.
 ㄹ. 고도경제성장이 분쟁의 코스트를 흡수함으로써 분쟁적 안정구조가 유지되었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정답> 1.③ 2.① 3.③

[기출문제] - 일본인의 경제생활

- 1. 고도성장기의 일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구소비재의 보급에 의해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② 대량생산에 의한 비용절감이 추구되었다.
 ③ 원세트의 내구소비재에 둘러싸인 표준적 라이프스타일이 완성되었다.
 ④ 소득의 상승과 함께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사회문제화되었다.
- 2. 1990년대의 디플레이션이 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단기적으로는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
 ㄴ. 단기적으로는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ㄷ. 물가하락이 장기화되면 기업수익이 악화하여 고용·임금 조정이 본격화하게 됨으로써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ㄹ. 물가하락이 장기화되면 실질소득의 증가가 소비지출의 증가를 부추김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 3. 일본적 고용관행(장기고용관행, 연공서열임금)의 이점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장기적 시점에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다.
 ㄴ.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ㄷ. 유연한 배치전환이 가능하다.
 ㄹ.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 4. 경제성장과정을 중심으로 한 시기구분 중에 잘못된 것은?
 ① 전후부흥기(1945~1955년) ② 고도성장기(1955~1973년)
 ③ 안정성장기(1973~1985년) ④ 버블기(1985~2000년)

5. 고도성장기의 일본인의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성장보다 환경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② 내구소비재의 보급에 의해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 ③ 원세트의 내구소비재를 갖춘 표준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완성되었다.
- ④ 국민의 90% 가까이가 중류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6.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ㄴ. 수치가 낮을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ㄷ. 지니계수가 0인 경우는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ㄹ. 지니계수가 1인 경우는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7.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물가 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반적으로 완만한 인플레이션 경향이다.
- ② 디플레이션 기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다가 1997년의 소비세율의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 ④ 디플레이션 경향이 지속되다가 2008년의 리먼 쇼크 이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기출문제] - 현대일본경제의 이해

8.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과정을 올바른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 ① 전후부흥기 → 안정성장기 → 고도성장기 → 버블경기 → 헤이세이 불황
- ② 전후부흥기 → 고도성장기 → 안정성장기 → 버블경기 → 헤이세이 불황
- ③ 전후부흥기 → 고도성장기 → 버블경기 → 안정성장기 → 헤이세이 불황
- ④ 전후부흥기 → 고도성장기 → 안정성장기 → 헤이세이불황 → 버블경기

9. 근대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인구와 1인당 생산이 함께 급성장한다.
 ㄴ.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이 발생한다.
 ㄷ. 영국은 19세기 중반부터 근대경제성장이 시작되었다.
 ㄹ. 일본의 근대경제성장은 1880년 대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10.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물가의 전년비 상승률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세우고 있다.
- ② 제로 금리를 금융정책의 주요 운영목표로 두고 있다.
- ③ 금융정책의 운영방침을 머니터리 베이스의 컨트롤에 두고 있다.
- ④ 대담한 양적, 질적 금융완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1. 근대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업혁명 달성 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근대경제성장이라고 한다.
- ② 인구와 1인당 생산이 함께 급속한 성장을 하는 것이 관찰된다.
- ③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인구의 도시화가 발생한다.
- ④ 일본의 근대경제성장은 1910년대의 제1차 세계대전 붐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설적인 이해이다.

22. 일본의 기업별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ㄱ.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종업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 ㄴ. 조합원이 실업을 하거나 소속 기업이 바뀌더라도 조합원자격을 유지한다.
- ㄷ. 정규종업원이면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당해 기업의 조합에 가입한다.
- ㄹ. 기업의 종업원적을 유지한 대 조합전임임원이 된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ㄷ

23. 일본의 노사관계는 석유위기를 계기로 하여 '분쟁적 안정구조'에서 '협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특히 1975년은 '국민경제 정합성론'을 주장하는 노동조합 세력이 주도권을 작은 해로서 중요하다. 당시 협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에 주도적 역할을 한 노동조합 세력은 어느 것인가?

- ① 연합 ② 총평 ③ 동맹 ④ IMF · JC

24.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아지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 저하의 배경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 등의 산업부문 종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석유위기나 엔고 후의 감량 경영 등으로 고용기회가 큰 대기업 분야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비정규직 종업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5. 일본의 노사관계는 석유위기를 계기로 '분쟁적 안정구조'에서 '협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였다고 말해진다. 7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의 '협조적' 노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다 고르시오.

- ㄱ. 기업 내부의 종업원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기업의 경영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ㄴ. 노동조합의 기업에 대한 고착 경향을 강화하고 그에 의해 교섭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 ㄷ. 노동조합의 활동에서 '조합주의'적인 성격은 크게 후퇴하고 '기업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 ㄹ. 협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에서 금속산업 거대기업의 노동조합 협의체인 IMF · JC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26. 일본에서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노동조합이 합법적 존재로 인정된 것은 언제인가?

- ① 다이쇼 디모크러시의 영향을 받은 1926년
- ② 제2차대전의 발발로 군수생산을 위한 노동자들의 협조가 절실했던 1941년
- ③ 제2차대전에서 패한 후 GHQ의 통치를 받고 있던 1945년
- ④ 전후 최대의 시민들이 참가한 안보투쟁이 전개되었던 1960년

27. 일본의 기업별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ㄱ. 당해 기업의 종업원인 것을 조합원 자격의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 ㄴ. 조합원이 기업을 바꾸면 직종이 동일한 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 ㄷ. 당해 기업의 정규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ㄹ. 정규종업원이면 직종에 관계없이 당해 기업의 동일한 조합에 가입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